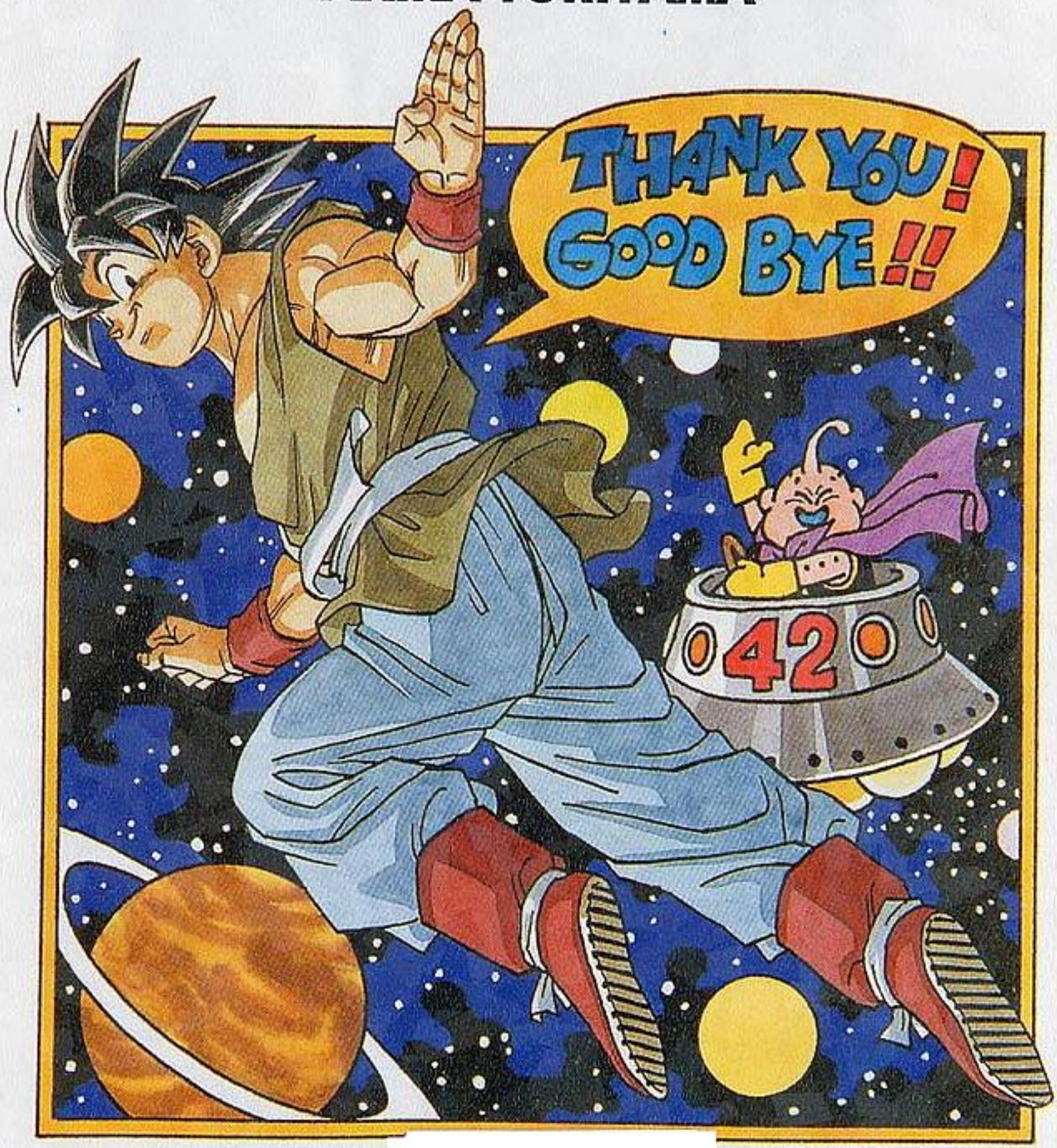
IQ JUMP COMICS
무수정 오리지널 한국어판

DRAGON BALL
드래곤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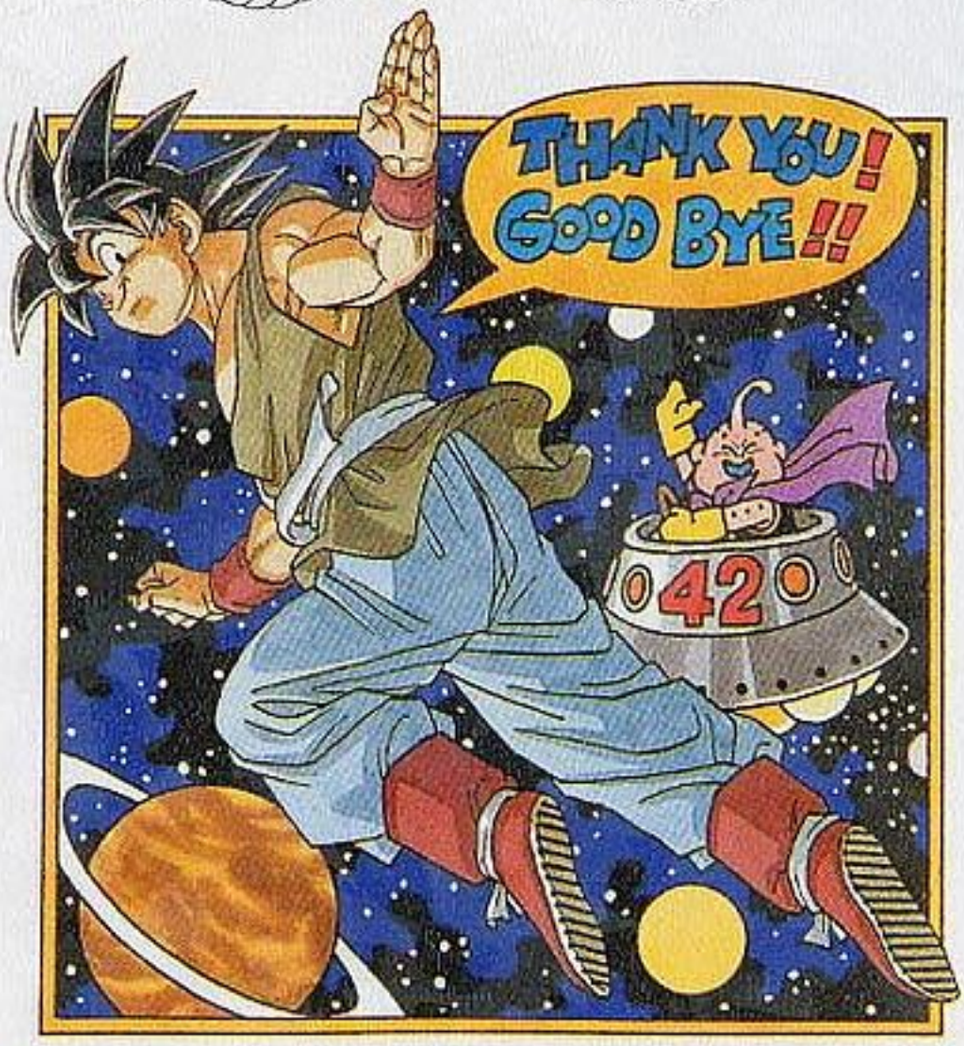
AKIRA TORIYAMA



★42 안녕, 드래곤 월드

IQ JUMP COMICS

DRAGON BALL



살아있는 만화의 전설 〈드래곤 볼〉!
무삭제 오리지널판 완벽 부활!!

minyoung

9 788953 235489 47830

ISBN 89-532-3548-0
ISBN 89-532-0133-0 (세트)

© 이 작품은 일본 집영사(集英社)와 독점 계약한 작품이므로 법률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 또는 전부의 무단복제와 복사는 저작권 침해로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Korean edition, for distribution and sale in Republic of Korea only.
*한국 내에서만 배본과 판매가 가능한 한국어판.

(주)서울문화사 값3,000원

hinyoung





AKIRA TORIYAMA
-토리야마 아키라-

드디어 이걸로 마지막 권입니다! 최후에는 오히려 매끈하게 아직 계속되는 것처럼 그려보았습니다만, 어땠습니까? 42권 마지막까지 계속 읽어주신 여러분, 오랜 세월을 함께 지켜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팬레터와 선물 등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혀 답장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안녕히

오리지널판 <드래곤 볼> 완간기념 특별선물!!

-열혈독자 2,500분께 칠성구 세트를 드립니다!!-

(응모요령은 본책 246쪽과 〈주간 아이큐점프〉에)

<드래곤 볼> 42 칠성구 응모권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42화 안녕, 드래곤 월드

AKIRA TORIYAMA

등장인물소개







미스터 사탄



계왕신님



15대 전 계왕신님

지난 줄거리

아주 먼 옛날. 7개가 모이면 용신이 나타나 소원을 들어준다는 드래곤 볼을 찾아 여행을 하던 손오공은, 대모험 끝에 모든 구슬을 모은다. 그렇지만 나쁜 곳에 쓰일 뻔했기 때문에, 엉터리 소원을 말해버려 소원을 이룬다. 용신은 한 번 소원을 들어주면 1년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 동안 거북신선 밑에서 수련을 쌓은 오공은, 다시 드래곤 볼을 찾아 여행을 떠났다.

시간이 흐르고…. 마도사 바비디에 의해 눈을 뜬 마인 부우가 그 악명을 떨치고 있었다. 이 강적을 쓰러뜨리기 위해 오천과 트랭크스는 마침내 퓨전을 완성시켰다. 그러나, 사탄과 친해지면서 죽이는 행동을 중단했던 마인 부우에게 가공할 이변이 일어났다…!! 마침내 인류를 말살시키고, 초오천크스 · 피콜로 · 오반까지도 흡수하여 천하무적이 되었던 것이다. 이제 부우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오공밖에 없다. 15대 전 계왕신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오공이 부우에게 도전하는데….

DRAGON BALL 42

안녕, 드래곤 월드



제503화 손오공 최후의 합체!! 7
제504화 천하무적 합체 아빠들 21
제505화 화를 돋우는 베지트 35
제506화 부우 속의 오공과 베지터 49
제507화 부우 속의 부우와 부우 63
제508화 순수한 마인 부우 77
제509화 우주의 운명을 건 시합!! 91
제510화 베지터와 카카로트!! 105
제511화 죽음을 무릅쓴 베지터 119
제512화 초사이어인3(스리) 소멸하다 132
제513화 베지터의 생각 145
제514화 부활한 지구인들을 향한 메시지 159
제515화 모이지 않는 원기옥의 파워 173
제516화 결말 187
제517화 대단원, 그리고… 200
제518화 그리고 10년 후 213
제519화 드래곤 볼 227

DRAGON BALL 드래곤볼

제503화 손오공 최후의 합체!!



자…, 그렇게 절망할 필요는 없다. 금방 편안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아주 잠시 동안 괴로울 뿐이야….

크크큭…! 승리만이 모든 것을 말한다. 그건 너한테도 마찬가지잖아….

마…, 임대로 생각하세요….

크, 큰일이네! 이제 총알도 다 떨어졌는데! 놈을 죽을 수 없단 말야!

이, 이봐…! 어떻게 아직 마인 부우가 살아있는 거니…?

하… 하필이면 미스터 사탄밖에 없다니….

비…, 빌어먹을…. 역시 덴데와는 안 되겠지….

사… 사탄이랑은 안 돼…! 1,000의 힘이 1,001이 되어봤자 이길 수 없어…. 아냐…, 혹시 잘못되면 지금보다 약해질 수도…!

5초만 기다려주마. 어느 쪽이랑 합체할지 결정해라.

마음 악한 난 너에게 합체할 기회를 주겠다.

이걸 받아 !!

사탄 !!

이, 이런 제길~ !!

이렇게 된 이상 할 수 없다… !!

3….

2….

뚜두둑 뚜두둑

1….

끝났다….

씩….

뭐야!?

엥!?

!!

이 기는… !!

이….

서…, 설마!!


베…
베지터!!?
조금
떨어진 곳이라
미안하지만,
나도 무섭걸랑….
여기서 그만
들아갈래….
미안하지만
힘을 내….
흥! 걱정 마….
어차피 약간
늦어지는 것
뿐이다….
다시 마인
부우에게
죽는 것이
말야….


럭키!!
뭐야!! 벌써 포기한 거냐!?
그럼 한방에 보내주마!!
푸슈슈ん
푸슈ん
!?

번뜩

순간
이동!!

엇!?

푸슈

베지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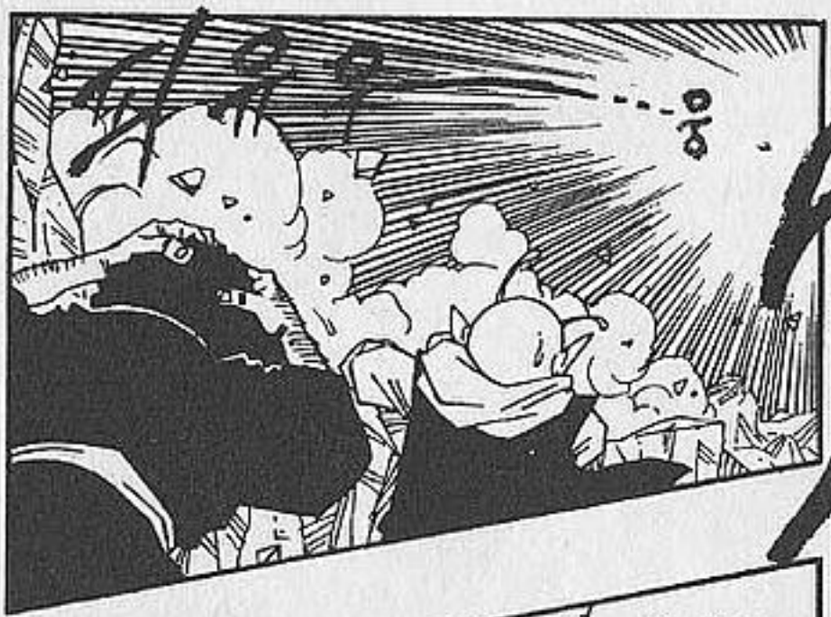
잘 됐어!
역시
그랬구나!!

카카로트
…!!

카…


땅속이든
다른 별이든,
끝까지 쫓아가겠다.
네 목숨을 끊어버릴
때까지….
크크큭….
나한테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나….


이… 이럴
수가… !?
오…
오공… !!
어…
어떻게 네가
여기에… !?


응




이… 이봐….
지금 재가
나한테 뭘
주려던 거지?
끄, 끝난
일이니
신경 꺼요.
우, 우선
나도 쫓아가
뵈야겠어요… !


엑~
!!


가만
안
둘껴!
야, 임마!
나, 나도
데려가 줘!
호, 혼자
있는 건 너무
무서워~잉!

염라대왕님도 대단한 모험을 했네.

널 그냥 보존해 두다니.

……

으, 으악!

그, 그럼 잘 싸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게… 게다가 살아서 돌아오다니…!

얘, 얘긴 나중에 하고 할멈은 빨리 저승으로 도망쳐!

마인 부우가 맹스피드로 이쪽으로 달려온다구!!

이, 이걸 너도 달면 너와 난 합체할 수 있다! 어, 엄청난 힘을 가진 전사가 탄생하는 거야…!

……

왜지…?

부탁한다!

베지터, 시간이 없다! 잠자코 이걸 오른쪽 귀에 달아!

너랑 합체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너, 너라면 분명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마인 부우를 이기려면 그 수밖엔 없어!!

난 못해…!

웃기지 마셔. 내가 뭐 하러 너 같은 놈이랑….

합체라고…?


또 한 명의 큰 파워를 가진 인간이 늘었네!
하지만 어차피 버러지 같은 놈이겠지! 비록 합체한다 해도!!
저, 접근하고 있다!!
부탁이야, 베지터! 이 귀걸이를 달아줘! 지금 자존심 내세울 때가 아니잖아! 잘못하면 모든 게 끝장나 버린다구…!!
……
맘에 안 들어….
뭐!?

넌 나와 싸울 때
보다 강한 힘을
가졌으면서도
그걸 숨기고 있었다!
그런 수작으로 내 비위를
맞출 셈이었냐!?

난 저승에서 보고 있었어…!
웃기고 있네…!
뭐가 초사이어인3야…!?
모든 게 맘에 안 드는
놈이야! 그런 놈과
합체하긴 싫다구!!

……

아…, 알았다.
그건 변신하는
시간이 한정돼
있었다…. 그래서
만약을 위해….

변명은
필요없다.

날 깔본
것만은
변함이
없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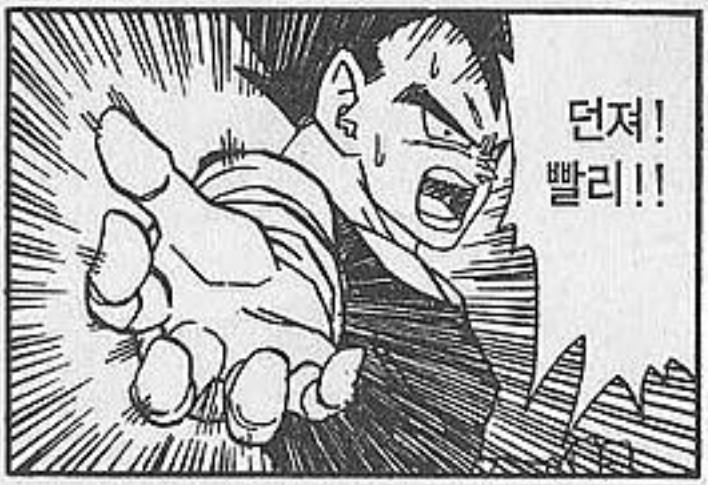
난
완전히
바보가
됐어….

그럼…,
이 사실을
알고
있냐!?

남았던 모든 사람이
부우에게 먹혔다…!
부르마까지도!!
게다가 피콜로, 오반, 오천,
그리고 트랭크스는 녀석에게
흡수됐다! 급격한 파워 업은
그 때문이야…!!

……!!


하하
-!!
찾았다!!


던져!
빨리!!


……!!
……!!


베…
베지터!!


팟


비…,
빌어먹을!
오른쪽
귀였지…!!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이 합체는 한 번 하면 다시는 둘로 갈라지지 않는다! 알겠니!?
뭐, 뭐야!?
하아아앗 —!!
자, 이제 됐지!?
제…, 제길! 그걸 이제서야 말하다니…!!
!!
고맙다! 베지터!!


아자
—!!
!



제504화

천하무적 합체 아빠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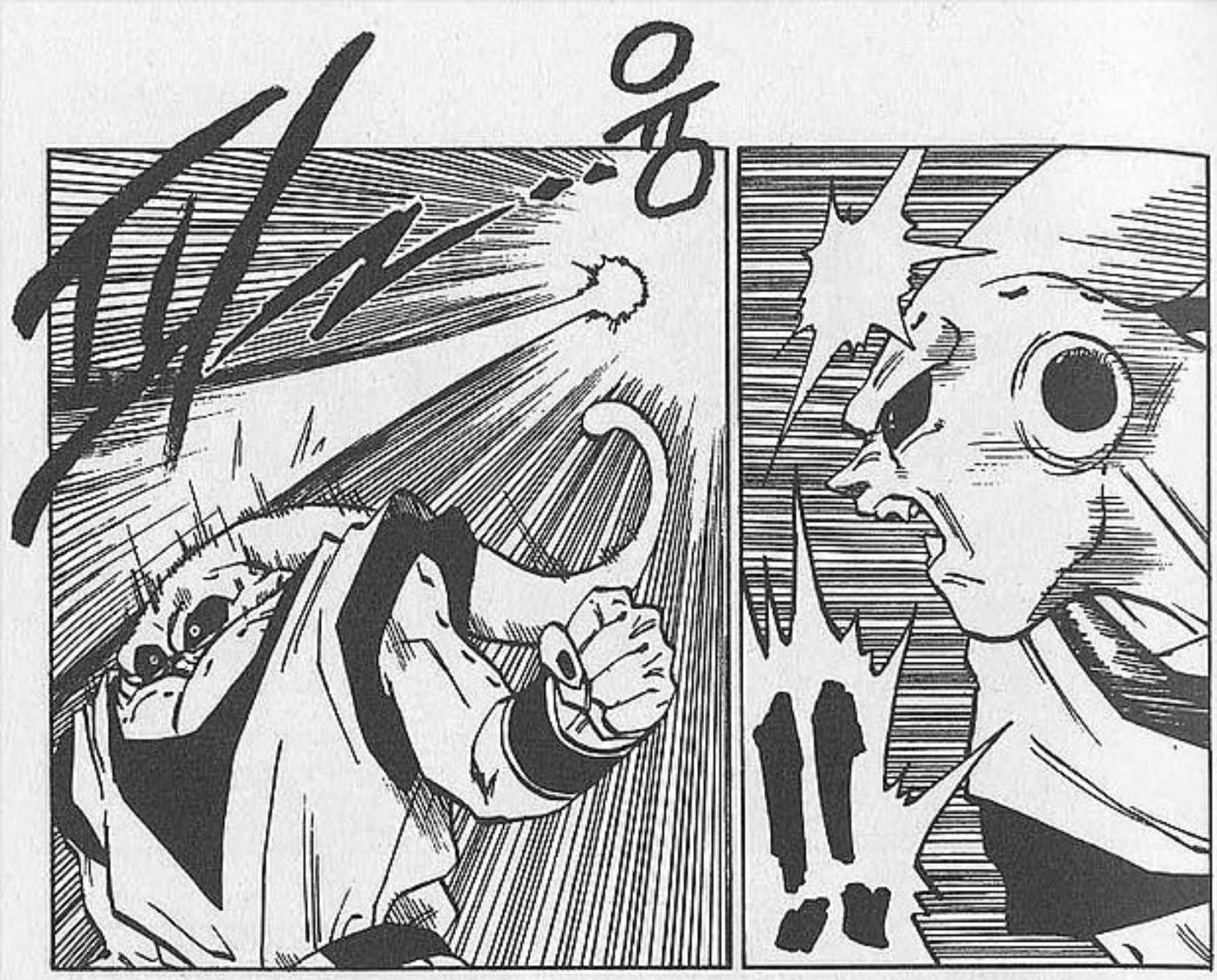


이것이
초베지트!

그게
왠….


어린애
장난
이냐!!
KAIO


스악


쓔우우우

그 잘난 척하는 얼굴은 뭐야…?

지금 공격을 되받아친 것 정도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니?

멍청한 놈!!

너 따위한테 …


그럼 차리리 옛날처럼 코가 없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코피가 나는걸.
왜 그래?


날 화나게 하면 할수록….
넌 더욱 고통스럽게 죽어간다는 걸 알고서 이러는 거냐?
흥….




!!
에잇!!
흐이야압
!!


가, 강하다! 저 마인 부우가 전혀 상대가 안 돼!
귀걸이에 의한 합체가 이 정도까지 대단할 줄은…!
띨띨한 놈. 저 두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가능한 거야. 저승과 이승을 포함해 3번째 안에 드는 달인 중의 두 사람이 합체했기 때문이라구.
거기다 서로 라이벌끼리 합체했으니 최강이 되는 건 당연하지!
ㅅㅋ…



꽈꽝
쥬슈ㅅ
치이…잉
스사삭

왜 그래? 말이 없어지고….

하지만 이 정도론 너무 재미없네.

힘 좀 더 내시지.

그렇다면 내가 좀 전에 한 말은 너무 심했군. 미안하다, 사과하마!

아니면…, 네 능력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냐?



큭…!!

으윽…!!

스륵…

스…으윽








뭐…
뭐여!?
컥…!
퍼
퍼
퍼

중요한 것은 기의 강도와 움직임을 파악하는 거다.

넌 눈으로 쫓기 때문에 내 동작을 따라오지 못하는 거야.

.....

사삭

핫!!

조금 있다 이걸 네 몸에도 먹여주마.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사라져버리면 두 번 다시 재생하지 못할걸?

.....

뭐… 뭐 하고 있니…!

이건 게임이 아냐! 지금! 바로 지금 박살을 내버려야지!!

이런…!

부르르…

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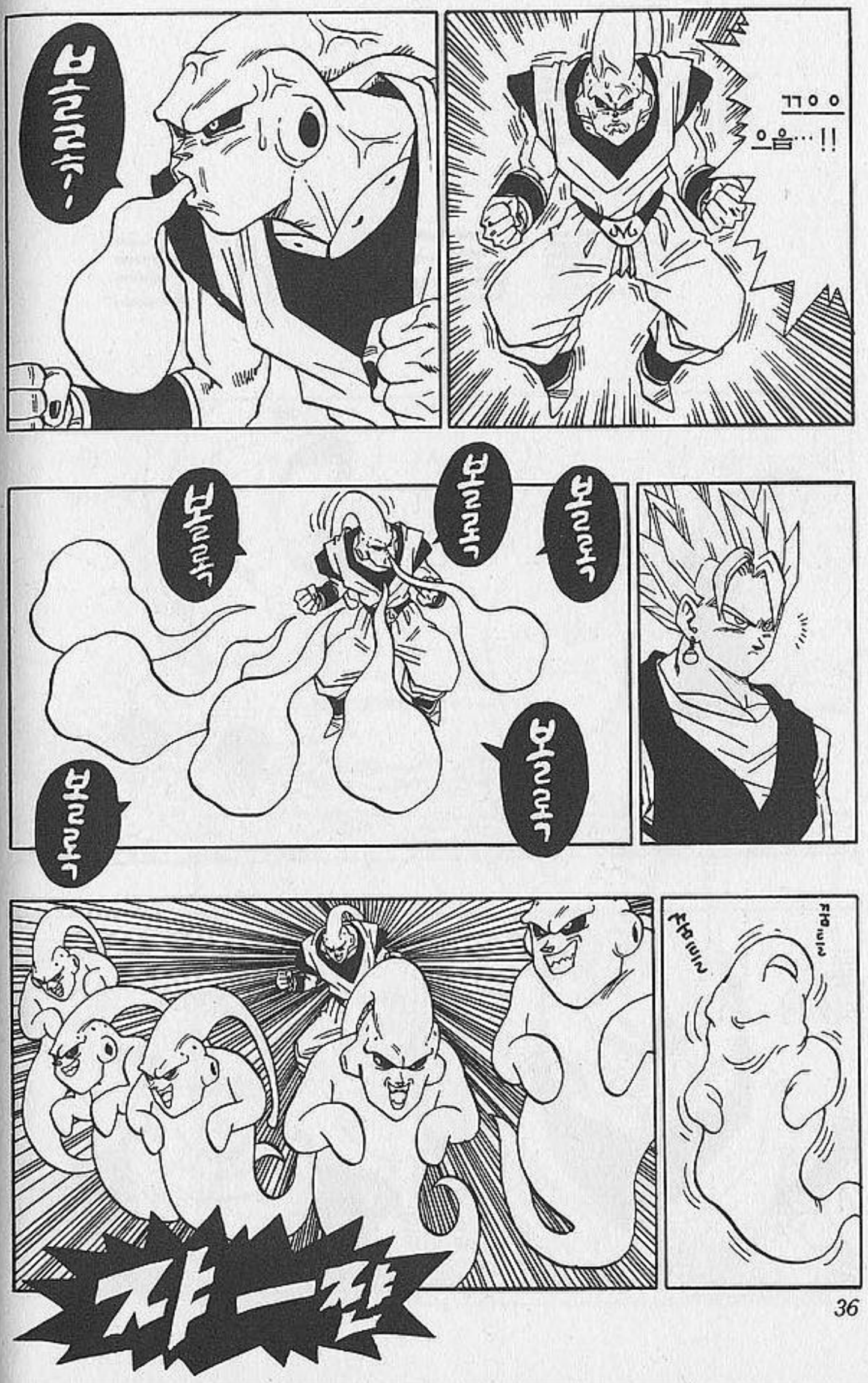
제505화

화를 돋우는 베지트








ㄱㄱㅇㅇ
으읍…!!
보ㄹㄹㅋ
보ㄹㄹㅋ
보ㄹㄹㅋ
보ㄹㄹㅋ
보ㄹㄹㅋ
보ㄹㄹㅋ
자ㅡ잔

슈퍼 고스트
태풍
어택- !!

이거나
먹어라
!!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폭발한다!!

가라!!

오우,
잘도 아네!
그렇다면
그 파괴력도
알고 있겠지!

흡수한
오천크스의
기술이군.

어쭈구리
....


!!
이거 받아! 멋진 걸 선물해주지!!
!?

얼라들이 생각해낸 기술이라구.

그런 기술이 나한테 먹힐 것 같나?

엄청 열받고 있나보네.

……!!

!!

으…!!

이, 이봐…! 빨리 끝내버려!!

계속 부우를 열받게 하며 즐길 생각이냐…!?

크아아아—!!

덜 떨어진 자식…! 너무 재주가 많아도 탈이군…!

지… 지랄할…! 너무 강해져 버렸나봐….

난 네가 좀 더 강할 줄 알았다….

내가 실력 좀 발휘하게 만들어줘….

큭… !!

이야아아—!!

치사한 자식! 비겁하게 합체 따위를 하다니!!

놀구 있네!

타닷

지가 먼저 마음대로 합체를 해버린 주제에!

힘 좀 써봐! 너 같은 건 내 다리만으로도 충분하잖아!


이… 이 진동은 뭐지…!?
오공이 싸우고 있는 소리겠죠….
윽…! 이… 이렇게 멀리까지 들려…?
쿠—…웅
꽈—…앙
파—…앙
퍼억
컥…!!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확실히 알려주마.
다 쓸데없는 짓이야. 니가 아무리 날 이기려 발버둥 쳐봤자라고.
어이….
커피 사탕 좋아하냐?
뭐?


빠직
샤샥
……!!
터억
쟈앙
앗…!!
그…
그래서
말했잖아…!
저… 저런
빙신…!!
모든 게
끝장
이야…!
띨띨한
자식!
꼴 좋다-!!
이야호
-!!
생각 없이
내게
접근하다니!
멍청한
자식-!!
우헤헤
헤헤-!


퍼억
!!
너무 슬퍼 마셔! 금방 먹어줄 테니!!
크하하하! 불쌍한 놈! 이제 사탕이 됐으니 쪽도 못쓸 거다!!
어억 …!!
이렇게 작으면 네가 공격하기 더 어려울 텐데.
위험하지 않니?
뭐…!?
이런 모습이라도 파워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은걸.
미안, 미안. 안 됐구나, 부우.
어쩌지? 네 상대는 세계 최강의 콩사탕인데.
뻐억
봐라!
퍼퍽


파박퍼퍽
에잇!
얍!
얼레!
파악팍
쳇!!
읏차!
빼짝
커헉!!
크…
크윽!!
비,
빌어
먹을!
쥐새끼
같은 게…!
돌아와…!
워…,
원래
대로….
어떡
하지?
좀 더
계속할래?
……
어억
…!!
억…!!
어머나!
미안해.
먹고 싶다고 해서
먹혀드리려고 했는데
목에 구멍만 났네.

제발!
제발 좀 빨리
끝내주셔!!

이, 이제 됐다!
니 맘 다
알았다구!

휴우…!

어라?

사탕 장난
벌써
끝이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쳐봤자
소용없단 걸
알았나
보구나.

……!!

2….

1….

3….

10을 셀
때까지
기다려줄 테니
유언이라도
남겨.

그럼…,
이제 좀 질렸으니
끝내버릴까.

앗!

제…
제길….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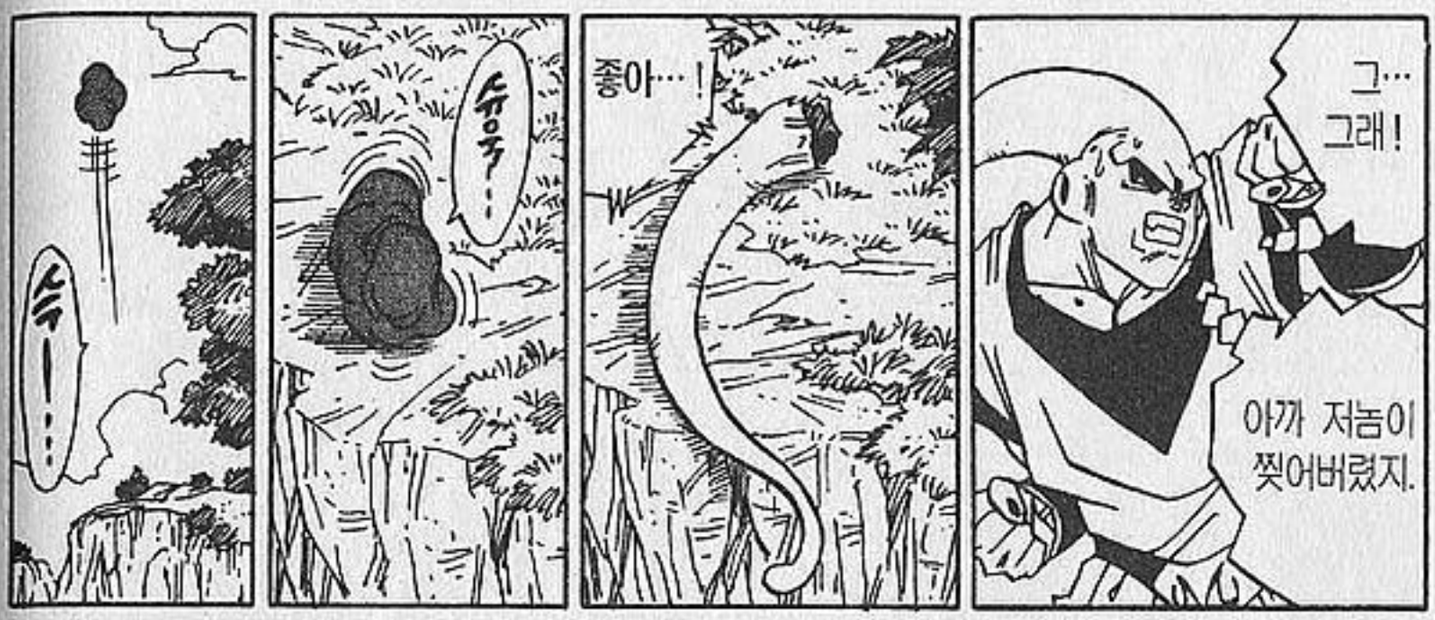
하지만…,
어떻게….

아… 이젠
저놈을
흡수하는
방법밖엔….

뭐 하냐,
임마!
빨리 눈치 좀
채라…!

4….

이 정도로
당했다면 이제
남은 방법은
한가지뿐이잖아….


그… 그래!
아까 저놈이 찢어버렸지.
좋아…!
슈웅~!
슈~!!


8….
7….
겨우 눈치 챘구만.
그래서 일부러 네 머리에 붙은 혹 같은 걸 잘라준 거야!
돼…, 됐다…. 놈은 방심하고 있어….


9….
이게….
과연 잘 될까…!?
10!!


좋아!
바리어-!!
콰아악
하앗-!!
.....
서....
성공....
끝났다
...!!



제506화

부우 속의 오공과 베지터




엄청
잘난 척하더니…!
하지만 이제
승부는 끝났어!
빌어먹을
자식아!!
와하하
하하…!!
성공-!!
하하-!!
꼴좋다-!
띨띨한
자식-!!


아니….
……
아직
몰라….


끄…
끝장
이다….


벼…,
변화가
없네…!
대,
대체 어떻게
된 거죠!?


마인 부우는
지금까지 전사를
흡수할 때마다 파워가
상승하여 모습을
변화시켜왔다….
그런데
지금은….
좀 이상한
생각
안 드니?


예…!?

만약 내 추측이 맞다면…, 저 베지트는 대단한 놈이야….

자…, 잘 모르겠어…. 내 생각이 틀릴지도 모르지만….

하하 하하 ~!

…….

응…?

이상한걸….

변화가 없네….

이유가 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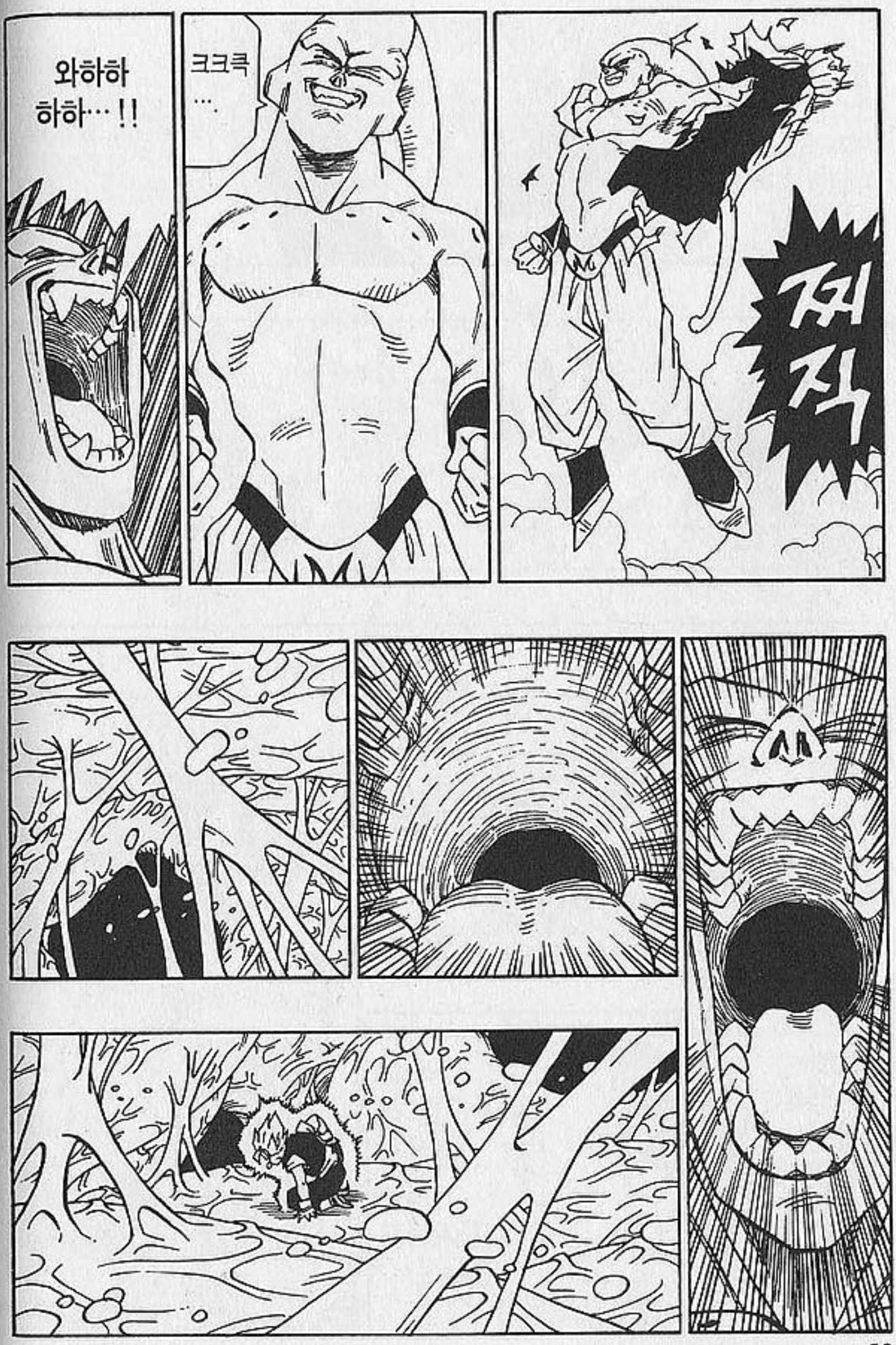
이젠 틀림없이 전 세계 최강, 최고의 마인이 된 거야….

흥…. 아무래도 좋아. 어쨌든 난 놈을 흡수했으니….

그걸로 충분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걸 마음껏 즐겨주마- !!

이제 누구도 날 방해할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



쩌직
크크큭 ….
와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으~,
시꺼…!

언제까지
멍청하게
웃을
거야.

저놈의 뱃속에
있으니
시끄러워도
참을 수밖에!

하지만,
역시
바리어
작전은
적중했어.

녀석에게
흡수
안 당하고
들어
왔잖아…!

좋아. 이제부터
바리어를 풀고
오반애들을 찾아보자….

부우의 속이
어떤지 전혀
모르는데,
찾을 수 있을까….

죽지
않았어야
하는데….


어!?
아니!?
푸슈슛
그, 그랬구나! 그래서 충분히 부우를 해치울 수 있었는데도, 부우가 열받도록 만든 거였어…!!
저 봐! 쟤는 흡수된 동료들을 구하려고 일부러 부우에게 흡수 당한 거야!
대단해! 정말 비상한 머리네!!
퍼버벙
앗… !!
윽!?

어…, 어라!? 왜, 왜 바리어를 풀자마자 합체가….

내가 어떻게 알아…!

이상한걸~! 귀걸이로 한 번 합체하면 다시는 원래의 둘로 갈라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 그런 소릴 했었지….

그럼 차라리 이렇게 된 게 더 잘 된 거야! 다시는 너와의 합체 따위는 하기 싫다.

흐윽

야, 왜 그래? 귀걸이를 떼면 안 돼!

부우의 몸에서 탈출하면 다시 합체할 수 있을 거라구!

아, 아마 이 안의 나쁜 공기가 합체를 풀어버린 걸 거야….

아니…! 무, 무슨 짓이야! 그럼 다시는 합체할 수 없잖아!!

게, 게다가 넌 죽은 목숨이라구! 합체한 상태가 아니면 다시 저승으로 돌아가야 해!!


그럼 빨리 애들을 찾아내서 구출이나 잘 해주시지.
아직은 장담할 수 없어! 흡수된 모두를 여기서 잘 구출해서 부우를 맨 처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보증은 아직 없다구…!!
흥…. 너랑 합체하는 것보단 차라리 그게 낫다….
게다가 더 이상 합체 따윈 필요없을 거고.
나도 몰라….
휙
쳇….
자, 빨리 해! 부우는 지구를 날려버릴 생각일지도 몰라.
아니!
음….
앗…!
귀… 귀걸이 들….
이봐, 카카로트!!
여기야! 여기 있다구!!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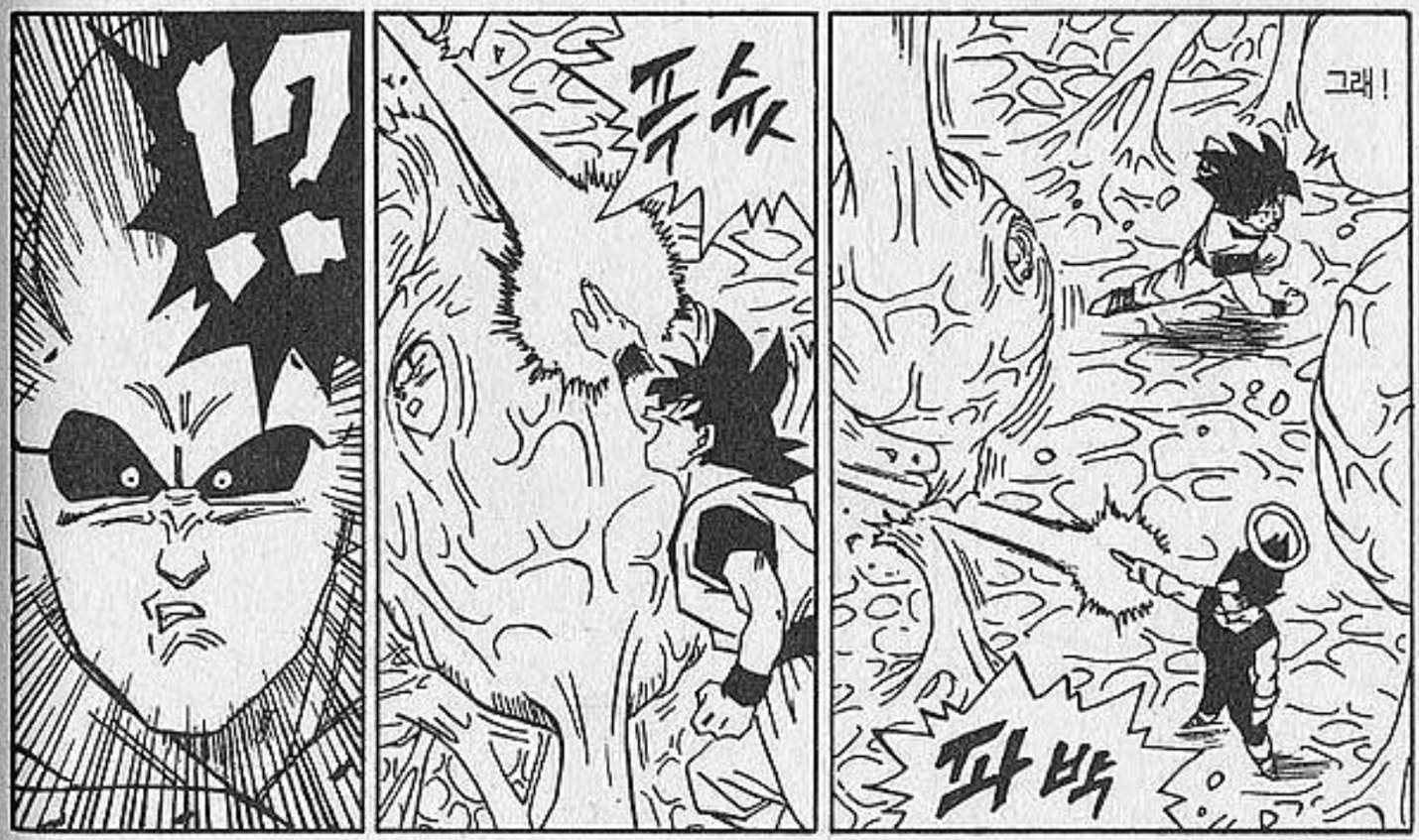

저쪽이다!
이 봐, 베지터!


됐다!
피콜로다 …!
죽지 않았어!




오반, 트랭크스, 오천… !!
모두 여기 있었군!


이 따위 별은….
천하무적이 된 기념으로 청소해주마.
꼬마들 합체도 우리처럼 풀려서 둘로 갈라졌네.
아니야, 이건 퓨전 상태가 30분이 지나서 둘로 나눠진 거야.
오천크스를 흡수했을 때의 부우는 분명 퓨전의 특징을 갖고 있었어….
그렇다면 이 속에서도 퓨전을 하면 30분은 견딜 수 있단 얘기네….
빨리 애들을 떼어내자.
방해 말고 저리 비켜!


그래!
퓨슈슈
파박


아앗!?

으헉!!

야호-!!

잘한다, 잘해!!

부우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

이… 이거 왜 이래 …!?

서…, 설마…!!

이 상태에서 밖으로 나간다면 놈에게 작살난다구…!

잠깐! 아무리 부우가 원래 모습으로 상당히 돌아갔다 해도, 우리 힘으로 상대하기엔 아직도 너무 강하다!

헤헤~! 이제 부우의 파워는 상당히 떨어졌을 거야! 조금만 더 하면 끝장이겠지!

자, 느껴봐! 아까와는 기의 크기가 전혀 달라!

좋아! 여길 박살내고 탈출하자!

이게 다 네가 귀걸이를 부숴버렸기 때문이야~!

엉!?

그럼 대체 어쩌란 얘기니!

웃기지 마셔! 그런 추한 포즈를 어떻게 잡냐…!!

난 저승에서 다 봤어…!

분명 합체 따윈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잖아!!

뭐? 벌써 아니?

퓨전을 말하는 거겠지! 그게 뭔지 나도 알아!

하지만…, 한 가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

이 봐….

이놈은 어떻게 된 거지…?

어…? 왜 그래?

……?

이놈도 자신에게 흡수 당했다는 건가…!? 야, 한 번 떼어보자!

와아~! 부우 속에 또 부우가…?

시르르르-

마… 마인 부우…!!

매…, 맨 처음 녀석이다!!



제507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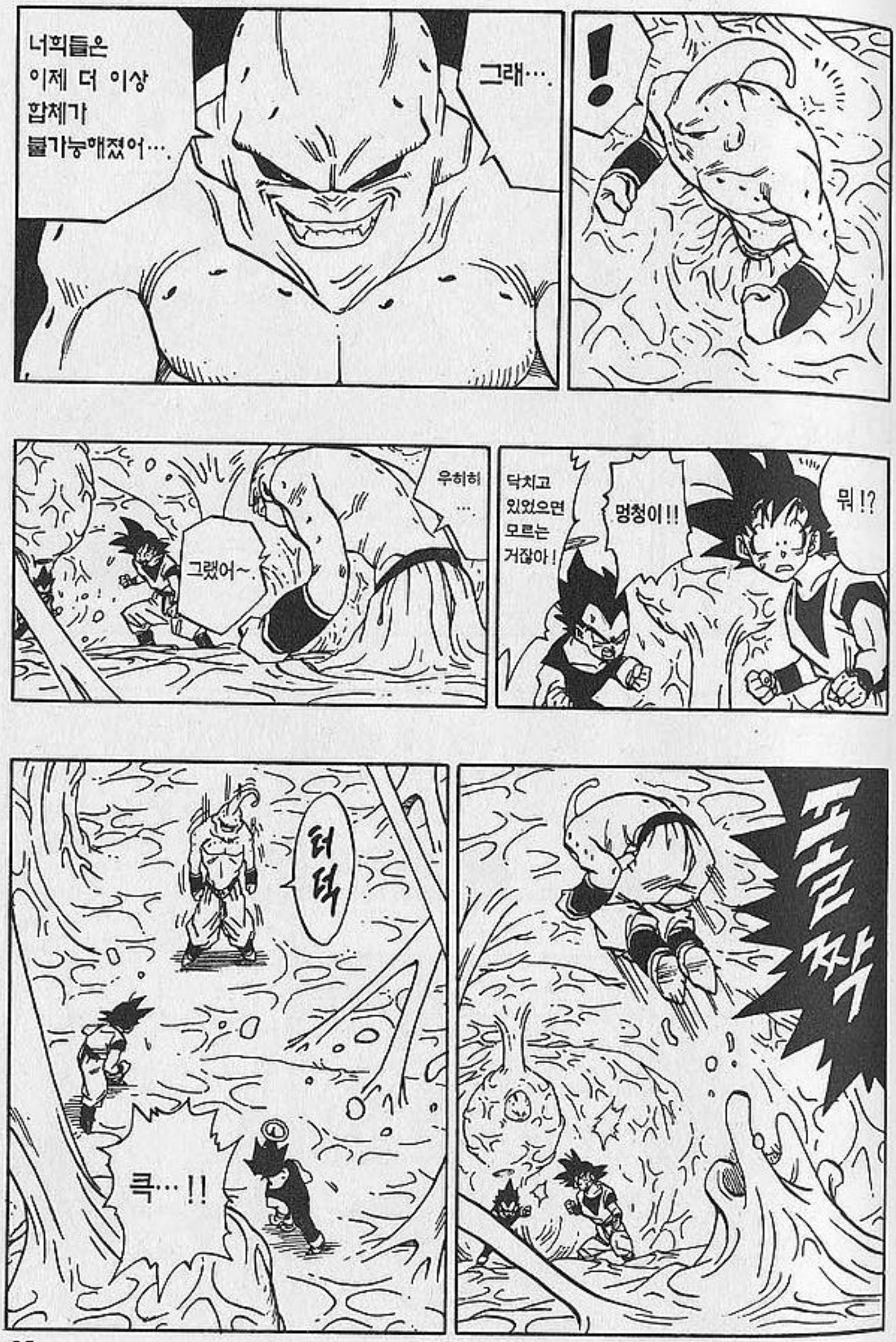
부우 속의 부우와 부우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네놈들 짓이었군….
이…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어, 어떻게 마인 부우가 자신의 몸속에…!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완전 흡수되지 않았군….
애써서 흡수한 놈들을!
잘도 떼어 냈겠다!!
이… 이런, 제길…!
이거 큰일 났네….
그, 그래서 내가 귀걸이를 하라고 했잖아!!
밖에 나가서 합체만 하면 이런 놈은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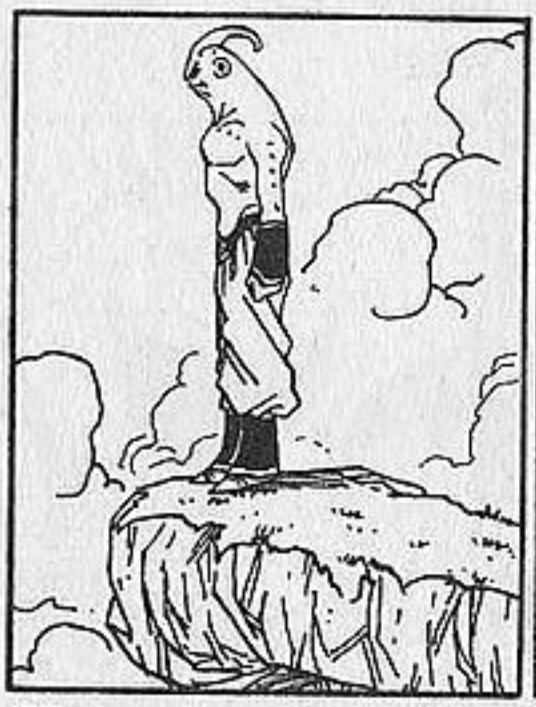

!
그래….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합체가 불가능해졌어….
뭐!?
멍청이!!
닥치고 있었으면 모르는 거잖아!
우히히 ….
그랬어~.
쿨쌕
터덕
큭…!!


이판사판이다! 덤빌 테면 덤벼!! 네 몸에 거대한 바람구멍을 뚫어버릴 테니까!!
파팟
팟
씨익 ….
뭘 멍청하게 웃는 거야….
내가 못할 줄 아냐?
무리야.
웃기지 마셔.


얏!!
퍼엉


마인 부우의 기로 알죠….
어… 어떻게 그걸 알지…?
거… 거의 근처까지 왔어요….
응!? 뭐라고!? 마인 부우의 기가 뭔데!?






저… 저기. 저 바위 위…!


저, 저기 있다!!
익!? 빠, 빨리 숨자!!


어… 어찌 된 거니…!? 움직이질 않잖아….
아…!
모, 모습이 원래대로 돌아왔네…! 대… 대체…!
요쯤이 악간 따끔할 정도야.
지금 너희들은 벼룩보다 훨씬 작은데 효과가 있겠나?
……
저…, 전혀 먹히질 않아….
……
널 해치우고 어딘가 출구를 찾아야만 하겠군….
능담 마, 지금 너희들은 날 못이겨….
깨지는 건 니들이야….
글쎄….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

아니면 그 지긋지긋한 놈으로 변신할 지도.

기대되는걸…, 혹시 이 뚱땡이로 돌아오는 거 아냐?

아무튼…, 지금보다 파워가 떨어지는 건 분명할 것 같은데.

이 너석을 떼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약간은 유리가 유리해질 지도 모르지….

아, 안 돼!!

그… 그놈은 만지지 마! 제발 손 좀 떼!!

생각보다 너무 당황하네…. 꽤 정신나간 표정이야….

크크큭….

내… 내가 내가 아니게 된단 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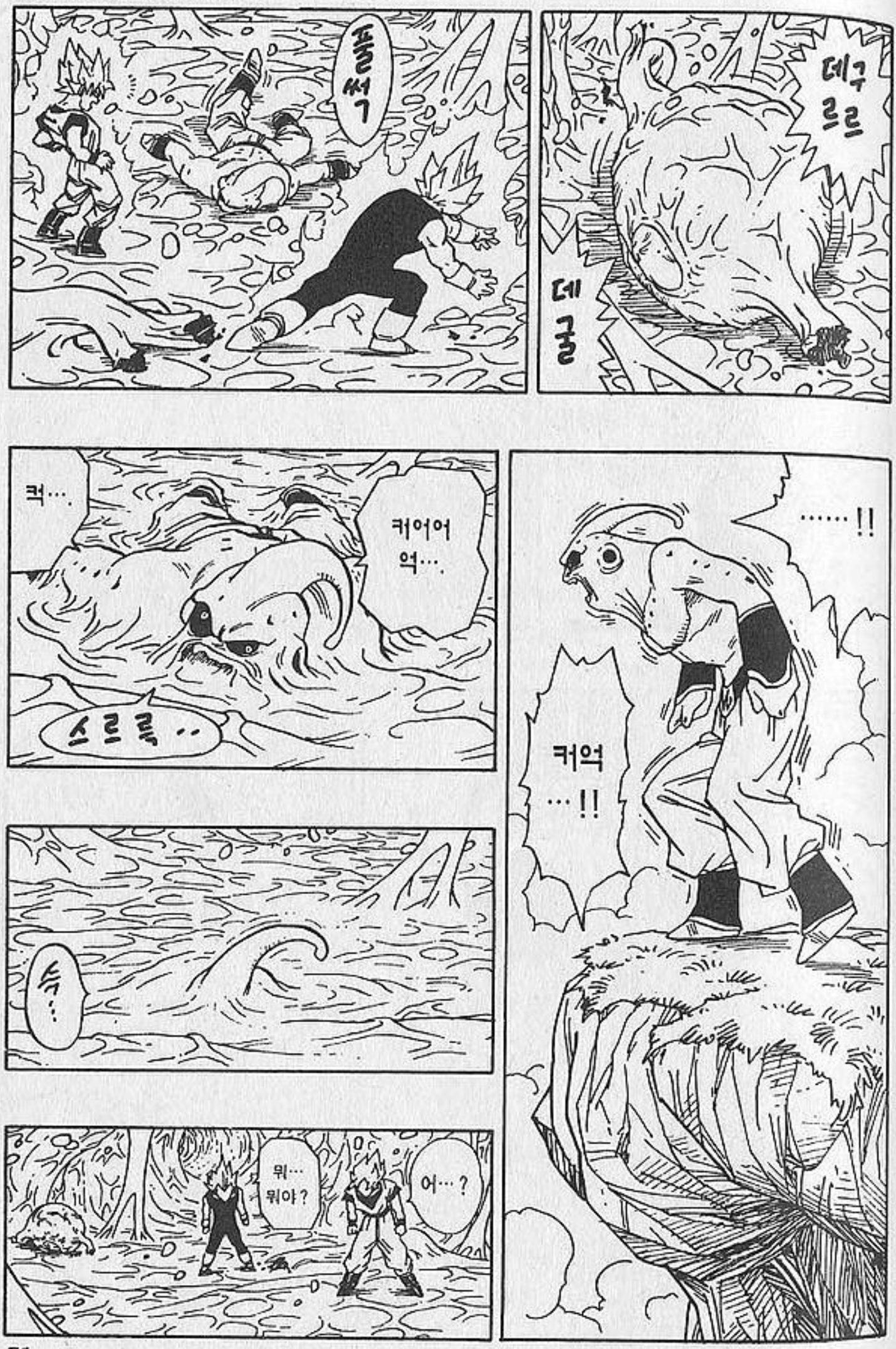
그, 그것만은 함부로 떼어내지 마!!

내가 지금 네 말을 암전히 들어줄 것 같니?

그럼 더 재밌겠군….

내가 내가 아니라고…?


이얍!!
뿌직


데구르르
데굴
풀썩
……!!
커억…!!
커어어억…
컥…
스르륵..
쓱…
어…?
뭐…뭐야?


…!?
사…, 상태가 요상한걸…
저… 저 봐…
우… 우오오 오오…!!
커어어 어억…!!
꺼… 꺼어어 어억…!!
어, 어디로 가야 되지!?
나도 몰라!!
커…, 커허허 허헉 …!!
지금이야! 빨리 모두를 데리고 밖으로 탈출하자!!
웰 꾸물대는 거야, 카카로트!!
그, 그래!


끄…어
어억…!!


변신하는
걸 거야!
뚱땡이나
그 흉악한
놈으로!!
이, 이 봐!
이 안이
물컹물컹
움직이기
시작했다!


외부의
빛
아닐까!
저봐!
저쪽이 좀
밝다!


베지터
!!
끼아


제길
…!!
출구가
어디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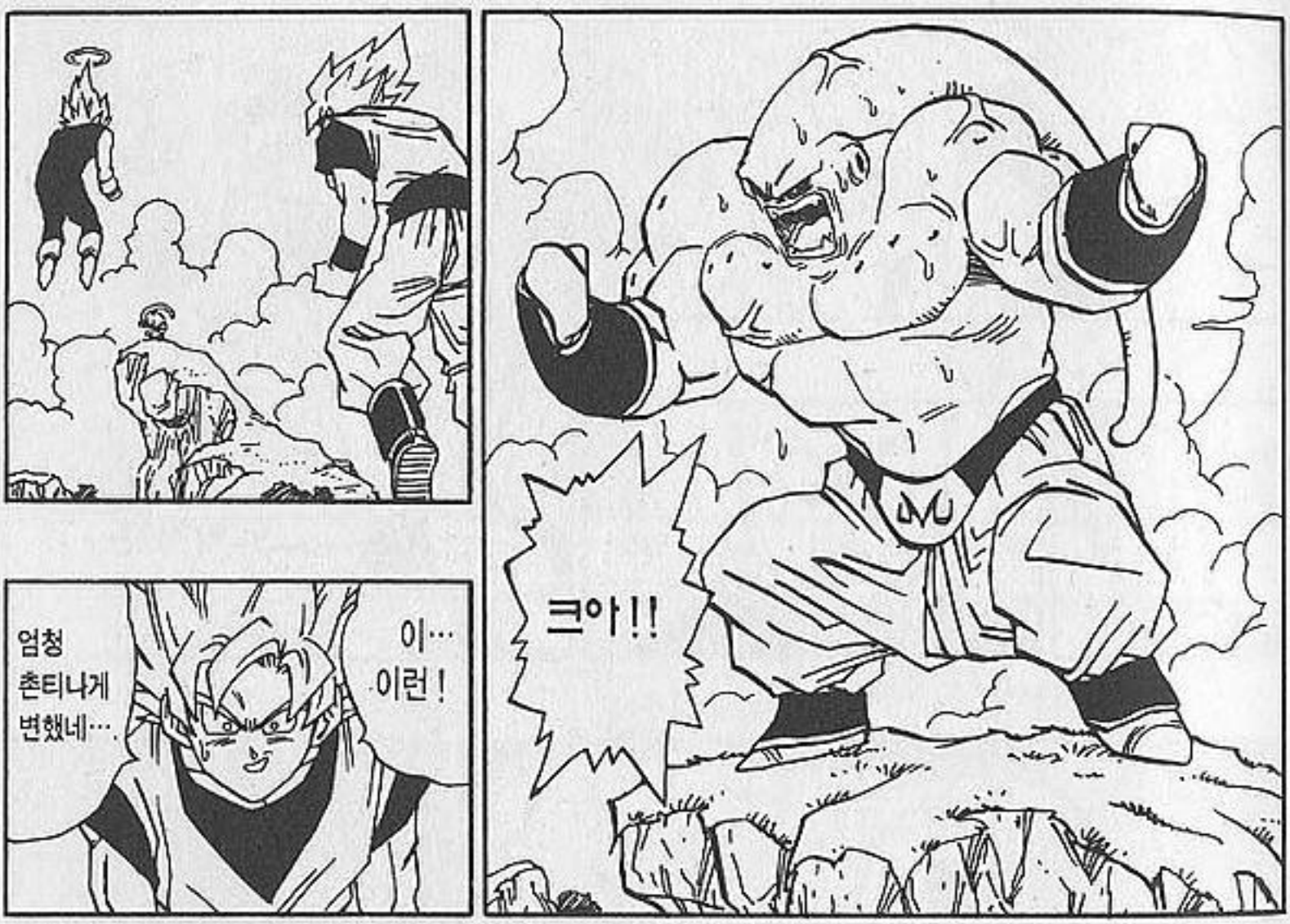
열렸다! 지금 가자!!
빌어 먹을!!
막혔네!!
제발 한 번 더 열려라!
성공!!
우선 얘네들을 숨기자!!
됐다! 모두 원래대로 돌아왔어!!
부우는 아직 모르고 있나봐!!
앗…!!
아니!?


으어…
어어…!!
부르르..
괴…,
굉장하다…!!
흡수됐던
모두를
구해냈어…!!
이건….
기가 증가하고
있잖아…!!
저…
저 봐…,
베지터….
번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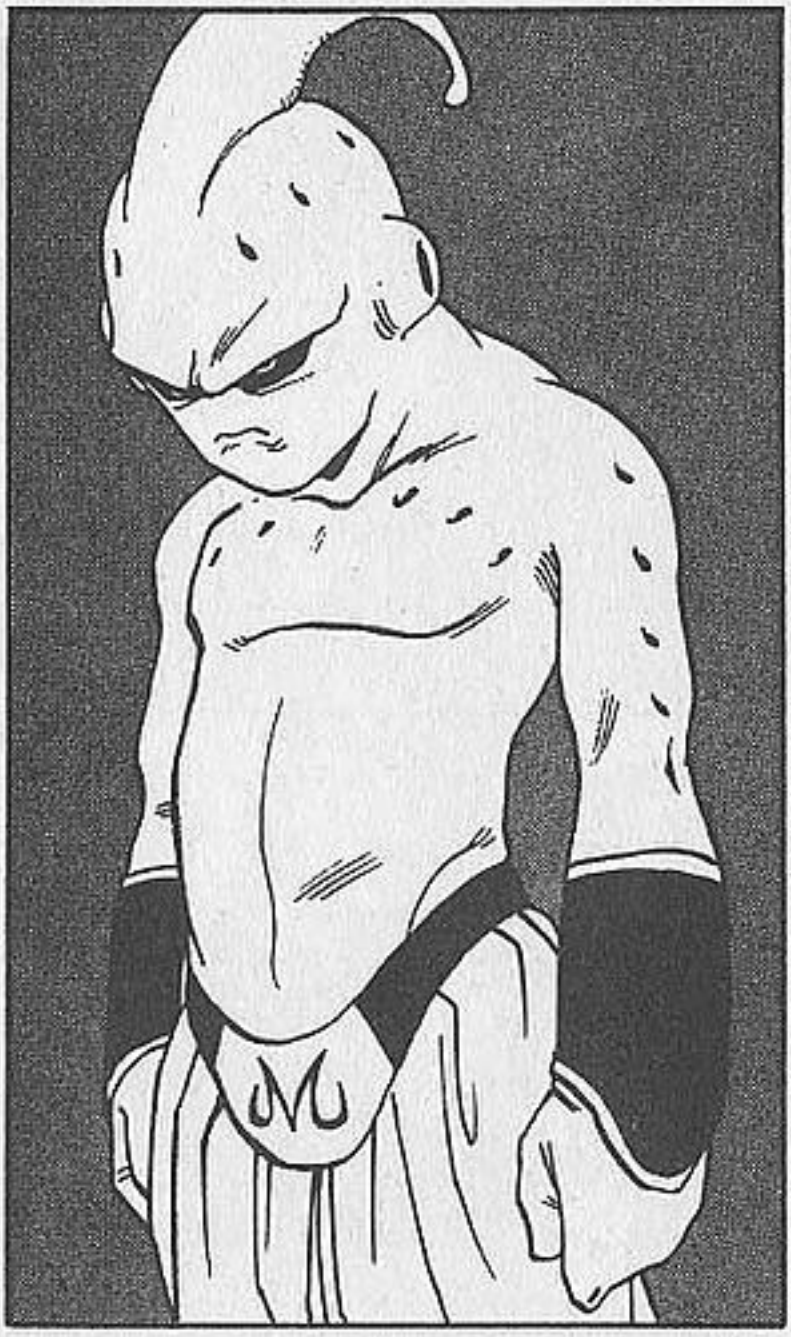


제508화

순수한 마인 부우




……
저 봐…, 아직 변화가 안 끝난 것 같아….
어억….
억….
으거거 거걱…!!
커헉…!!
그만 좀 하자…, 밥맛 떨어지네….
…
크…
크어억….
아아악…
아아아…!!
돌아 온다고 …?
도…, 돌아 오고 있어….
이… 런…. 서…, 설마!
헉…!
헉…!




으으…


헤…
헤헤…


잘 됐다!
저 정도면
어쨌든 충분히
상대할 수
있겠는데.
저 봐!
굉장히
작아졌는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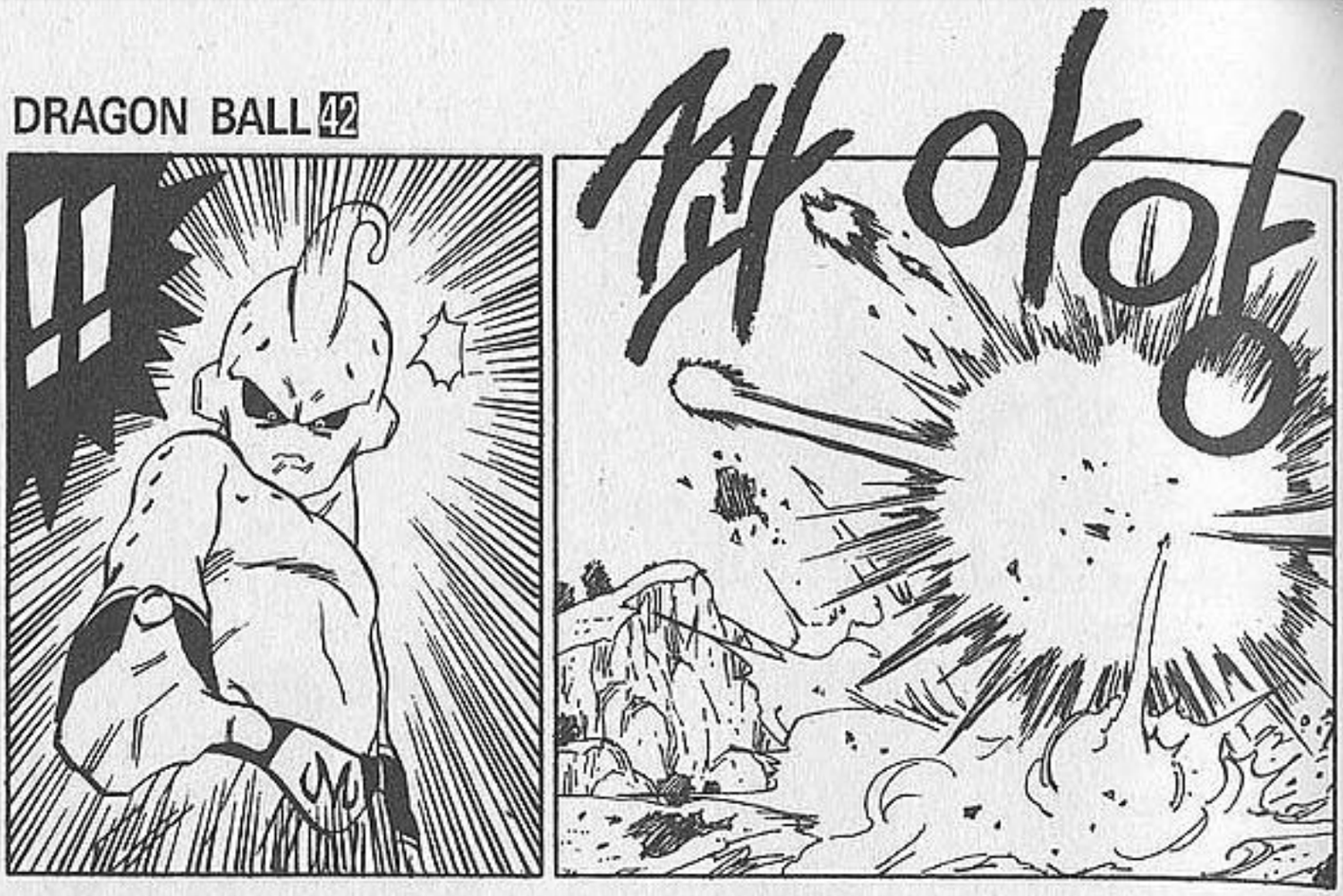

……
……


여….
역시…!


하지만 나머지 4명은 부우의 손에 걸려….
마도사 비비디가 만들어낸 마인 부우에게 당하기 전까지는…, 제 시대에는 5인의 계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젊고 힘도 없었는데, 큰 부상만 입고 겨우 목숨만 살아남았습니다….
대… 대체 무슨 일이야…?
……
방금 전의 큰 마인 부우가 됐다는 거야?
예….
부우에게 흡수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하고 거대했던 남쪽 계왕신은….
우선 2명이 살해 당했습니다…. 북쪽과 서쪽 계왕신이….
다음으로 흡수당한 것은, 뚱뚱하지만 상냥하고 온화한 대계왕신님이었어요…. 비비디가 만들어낸 마인 부우는 사악, 그 자체이기 때문에 비비디 자신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나쁜 실패작이었죠. 그런데 온화한 대계왕신님을 흡수하여 겨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 흡수를 통해 파워를 즐기면서까지 겨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었던 마음이…, 또다시 원래대로 돌아와버린 거죠….
자제심이 전혀 없는…. 순수한 악, 그 자체의 존재로….
그… 그렇다면…. 지금의 저 작은 마인 부우는…, 최초의 가장 악질적인 놈이란 얘기잖아….
겨우 완성시킨 작품이라는 얘기군….


우가가가가가!!!
스윽
움찔
뭐…
뭐야!?
저거….
…….


아니!!
무슨 짓을…!!
쳇!!
퍽!!


!!
쌰아앙


지 자신도 함께 자폭할 셈인가…?
놀구 있구만….


저, 저 자식~! 지구를 완전 박살내려는 속셈인가봐…!
크…, 큰일날 뻔했네…!!
쌔, 쌩큐. 베지터…!


하지만 우리와 싸운 다음에 하시지!!
야, 부우! 이 별을 박살내든 말든 그건 네 자유다!!


아… 아냐…. 놈은 먼지가 돼도 다시 부활할 수 있어.



그럼, 그래야 착한 어린애지 ….
헤헤헤 ….
꾸욱
스윽…
척…
저… 저걸 정말 발사할 생각인가!?
어…, 엄청나…! 이… 이럴 수가…!!
저건 막아낼 수 없겠어…!!
아니 …!?

그러다간 지구가…!! 우리랑 안 싸울 거야!?

차, 참아! 부우! 제발!!

아! 그, 그렇지!!

예!!

야! 네 귀걸이를 쟤네들한테 주고 와!!

!!

모… 모두를…


베지터!
여기!!
!!
모두와 함께
순간이동을
하자!!
큭!!
!!
아…,
안 되겠어!!
시간이 없다!!
꽉
잡아
—!!
큭…
!!

으으윽…
무리야…!!
시간이 너무 짧아서
순간이동을
할 수 없잖아…!!

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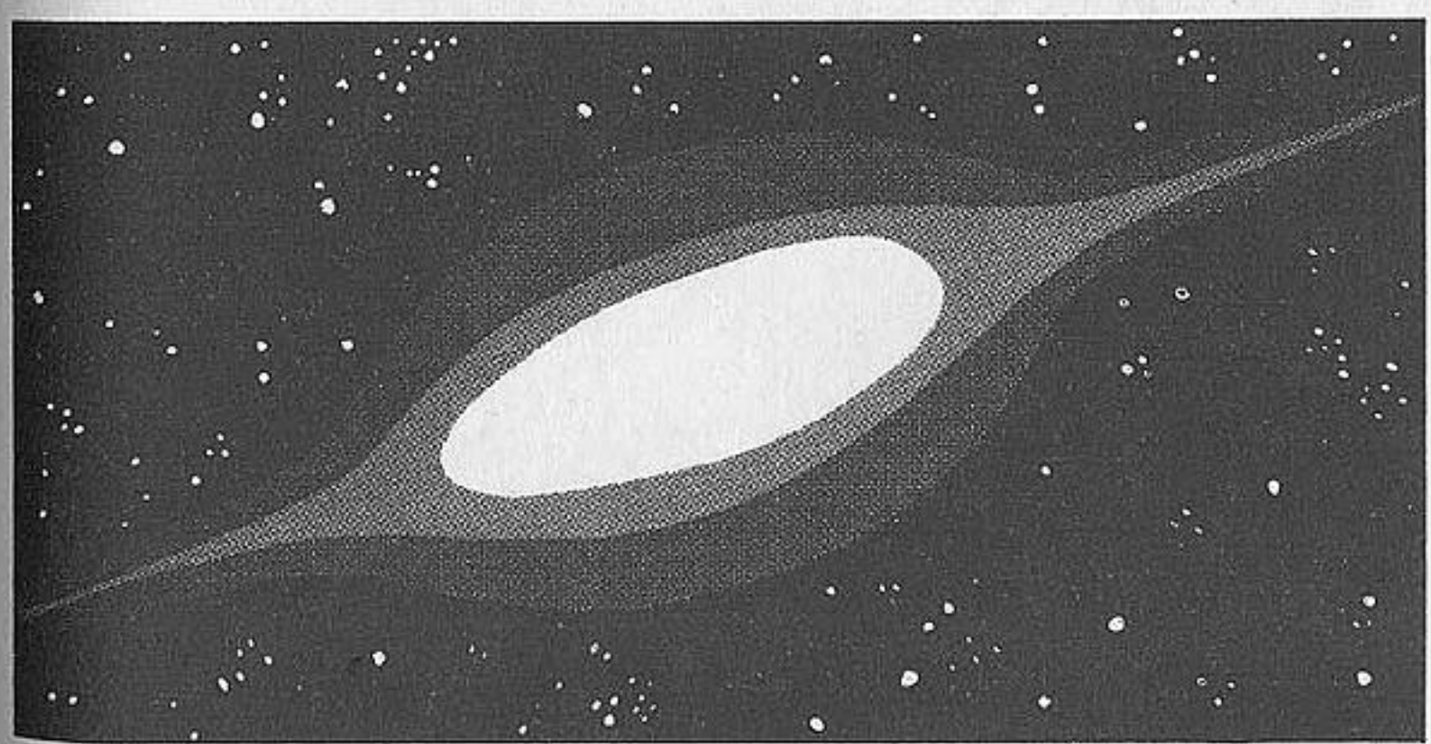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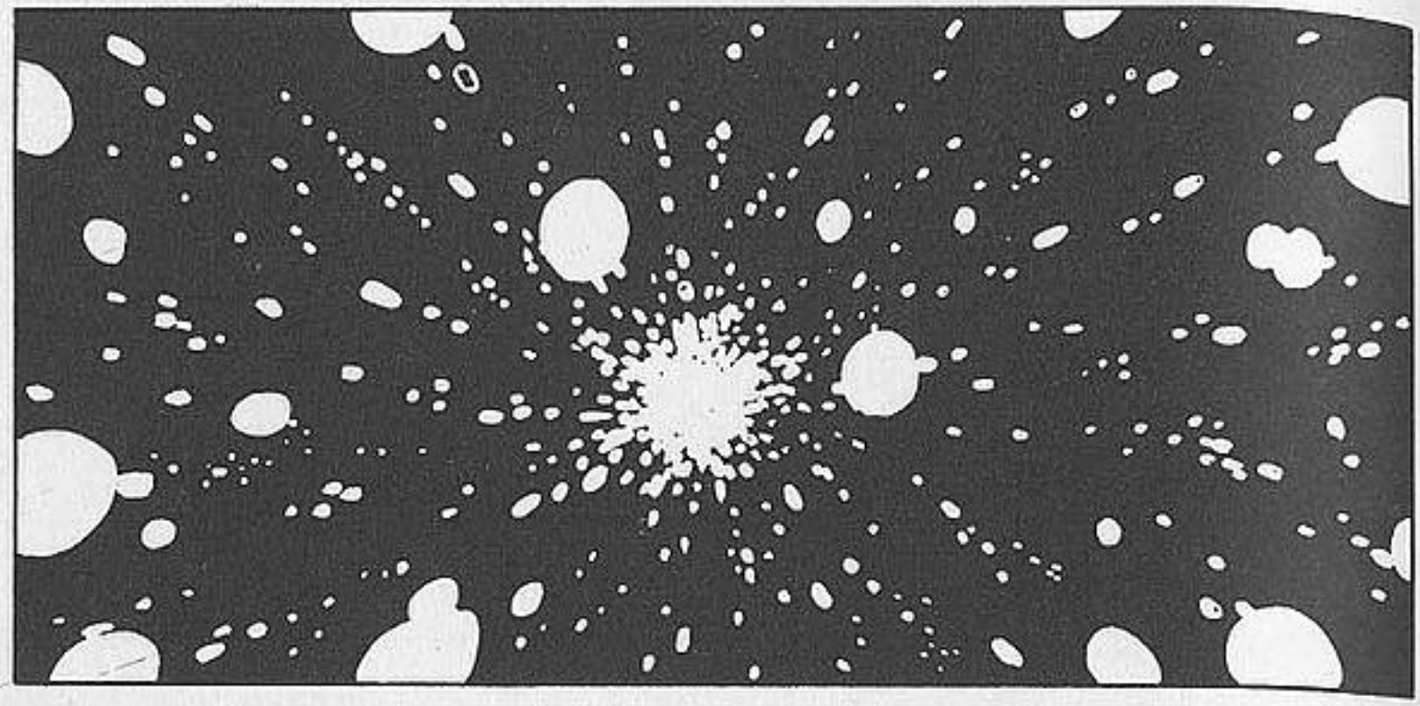
이…
이 봐!!

아…
!!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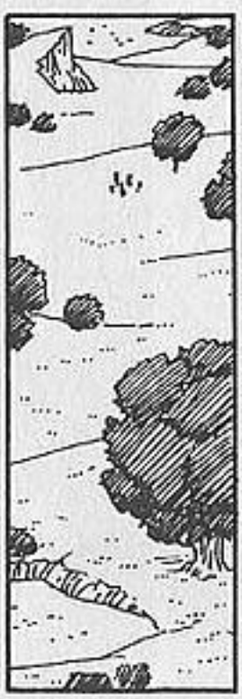



시간 맞춰 탈출했구나 …!!
다… 다행이야!!


!?
촤촤촤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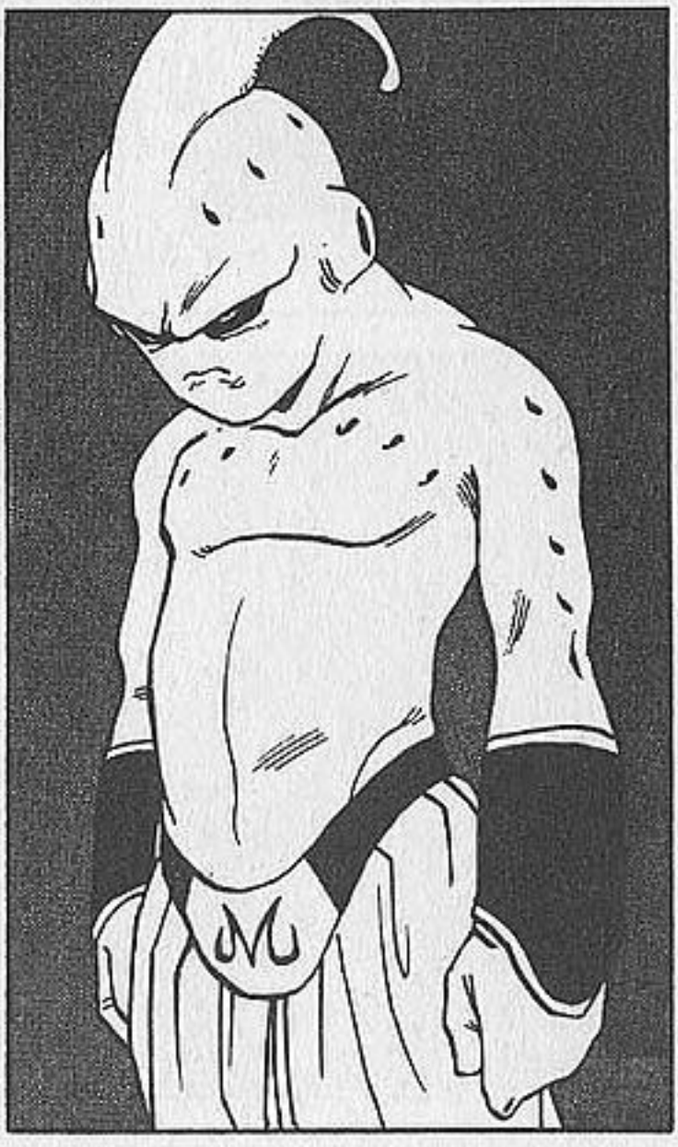

…


카… 카카로트…. 너, 임마….
왜 트랭크스 애들 놔두고 이런 놈과 강아지 따위를 먼저 구한 거야…!




여… 여기는….
쳐…, 천국!?


지… 지구와 오반들은…
우… 우린 살아 남았지만….



제509화

우주의 운명을 건 시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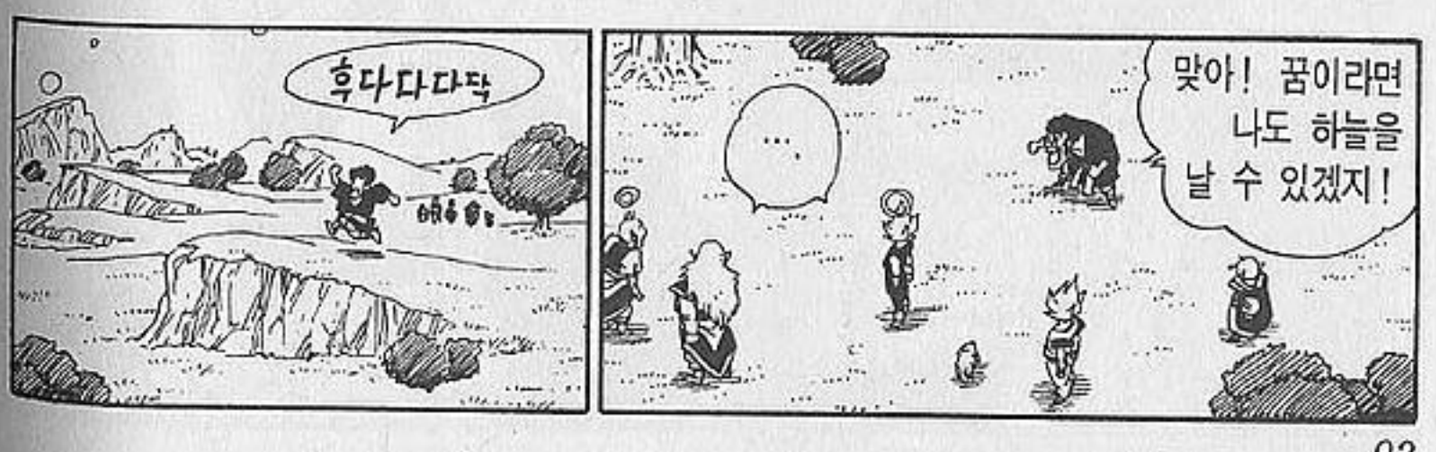





?????
그리고 여긴 지구가 아니라, 아마 성지인 계왕신계….
저… 저 분은 분명 계왕신님입니다…! 자, 잘 알아둬요. 신님의 위가 계왕님, 계왕님의 위가 대계왕님, 그리고 다시 그 위에 계신 분이 저 두 분…, 계왕신님입니다…!


그렇지!
아…!
……
저 자식…, 아픈 델 찌르네….
우선 네가 신이란 것도 이상하고….
하하…! 썰렁한 농담하고 있네! 그런 대단한 놈이라면 왜 부우 하나 처리하지 못할까?


마인 부우 따위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이 녀석들도 꿈속의 이상한 캐릭터다. 원래 천하제일 무술대회 시작 때부터 좀 이상했다니까….
그럼 그렇지! 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세계챔피언인 나보다 강한 녀석 따위가 존재한다는 건 용서가 안 되잖아~.
하하하! 맞아! 꿈이라고, 꿈!
이제 알겠다! 이건 꿈이야!!


휴다다다닥
…
맞아! 꿈이라면 나도 하늘을 날 수 있겠지!


이얍!!
파밧
이 미스터 사탄 님이 우주로 날아가서 박살을 내주마!!
야~이 바보 같은 마인 부우야! 꿈속이라곤 해도 잘도 내 딸 비델을 죽이고, 나의 지구를 날려버렸겠다!!


카카로트…. 넌 겨우 저런 띨띨이 대신, 모처럼 도움을 준 친구들을 죽게 내버려둔 거야….
……
꿈인데 왜 이리 아파!!
아이고, 허리야!
으… 으악!!
꼬당


그, 그건 성실한 나메크 성인에게만 내려진…, 말하자면 반칙 기술 같은 거야!!
어, 어떻게 지구에 드래곤 볼이 있었던 거지!?
맞아!!
아!
드래곤 볼!?
뭐, 뭐야!?
그래…, 마지막 희망이던 드래곤 볼도 지구와 함께 사라져 버렸잖아….
이젠 지구도, 죽어간 우리 애들도 다시 부활할 수 없다….


부활할 수 있어요! 지구도, 부우에게 살해 당한 많은 사람들도!
이제 생각났어요! 제 고향 나메크 성에 가면 새로운 최고 장로님이 분명 또 다른 드래곤 볼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아, 아냐…. 잠깐, 덴데. 나메크 성은 너무 멀어…. 나메크 성인의 기도 별로 크지 않아 느끼기 어렵고…. 무리야…, 거기까지의 순간이동은 불가능해.
이젠 우주선도 없고….


그, 그러냐?
?


자, 잠깐! 드래곤 볼 같은 거 쓰면 안 돼! 그건 대자연의 혼란을 일으키는 거야! 아주 옛날 나메크성 외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 적이 있지!!
나메크 성인들은 절대 다른 별의 일 때문에 그걸 쓴 적이 없을 거야!


자, 잘 됐다!!
만세!!


전 이 계왕신계와 하계의 별들 사이의 순간이동이라면 가능합니다.
저…, 그 드래곤 볼이란 것이 어떤 건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봤죠? 이건 키비토의 특기거든요.


음….
그러니까 드래곤 볼로 살려내자는 거 아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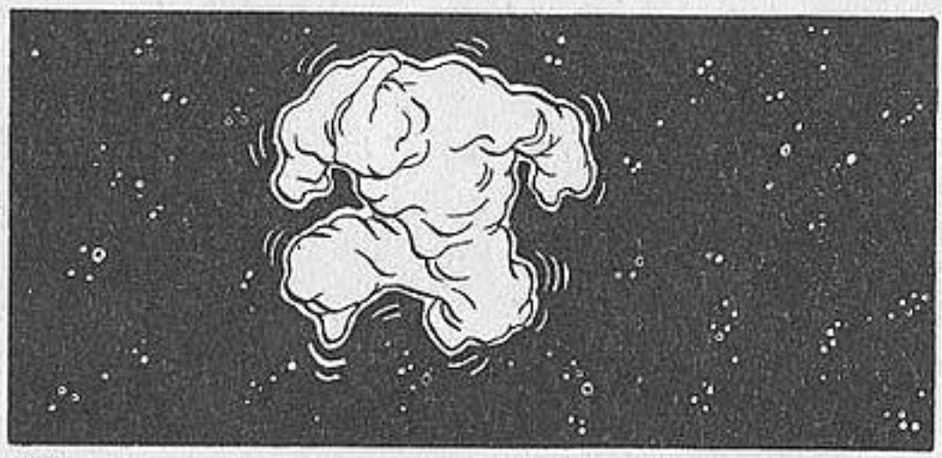

흐음~. 하지만 그 여자애는 지구와 함께 죽었을 텐데.
어때? 갖고 싶지? 약간 나이는 있어도 아직은 쭉쭉빵빵 하다구.
너무 치사하게 굴지 마셔~. 잘만 되면 내가 잘 아는 여자애의 화끈하고 야한 수영복 사진을 찍어서 필름까지 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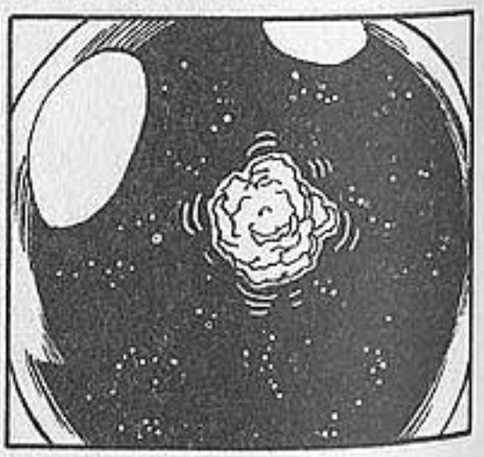

아, 안 돼! 갠 너무 늙었고, 그러단 맞아 죽어….
여, 역시 그렇잖아! 이 자식, 함부로 내 아내를! 그렇게 찍고 싶으면 네 아내 찌찌의 사진이나 찍어서 줘!!


음…. 탱탱한 중년 여인이라.
오잉!?
카카로트…, 그 여자가 설마 부르마는 아니겠지…?


뭐!?
이, 이걸 봐요! 산산조각이 난 마인 부우가 다시 부활하고 있어요!!
탱탱….


앗!!





예, 예!!

야…! 네 귀걸이를 얘들한테 줘라! 다시 한 번 합체하면 저런 건 한주먹 거리도 안 될 거야!

하앗 ~!!

터 터

다른 별까지 파괴하진 마!!

자!!

돌려 줄게!

아냐…! 이건 필요없어.

……

엑!?

이런 위급한 때에 미안하지만,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싸우고 싶다. 이미 부우도 합체를 풀고 있으니….

역시 이런 건 우리 취향이 아냐…. 성능은 좋지만….

사이어인이지!!

알 잘 했다, 카카로트!

빠바...

그런 마음이 진정한....

이 미친 자식! 무슨 헛소리야! 이런 위험한 상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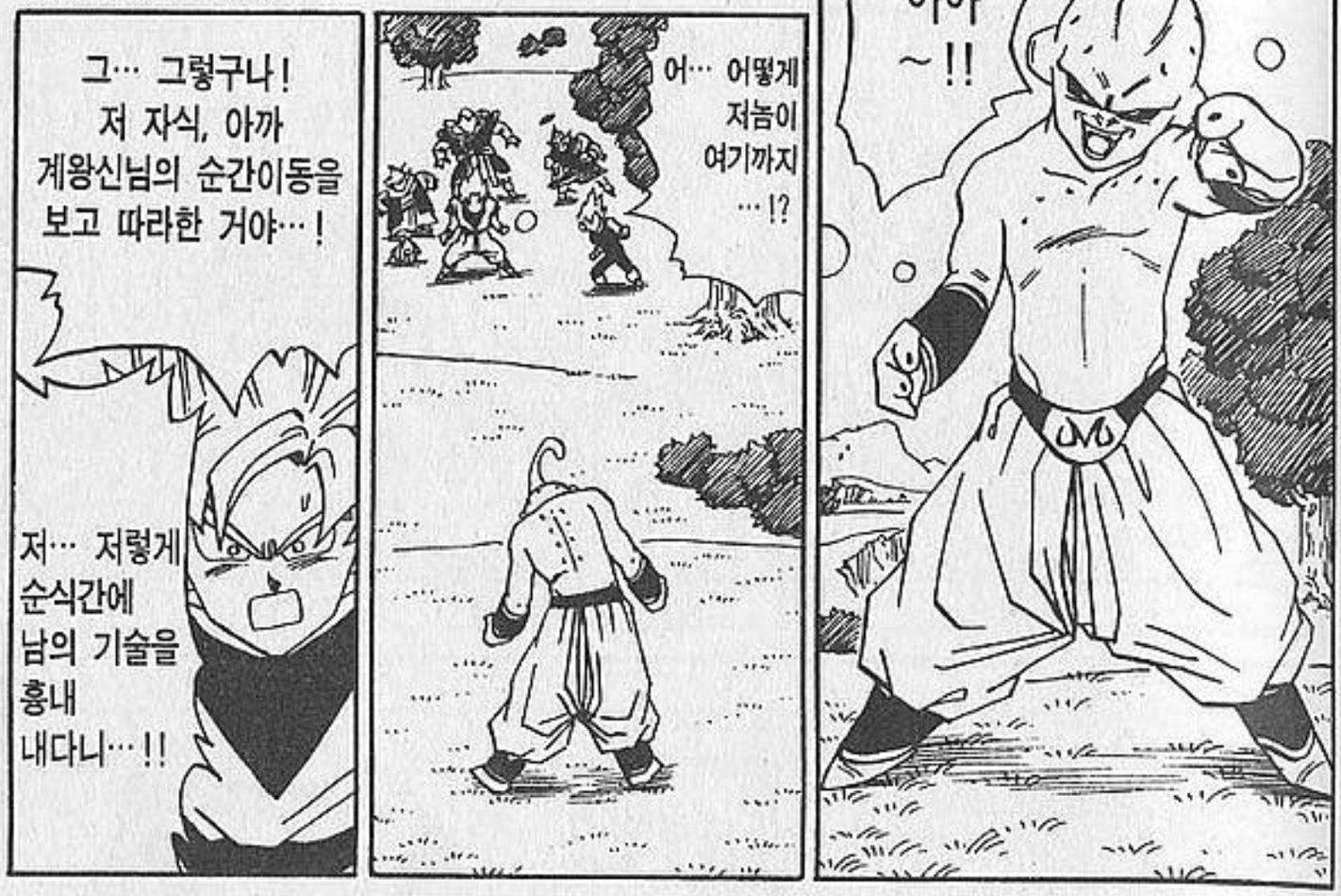
너희들은 지금 부우와 운동시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야!!

그 동안 희생될 우주인에게는 미안하지만, 나중에 드래곤 볼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저놈은 여기까진 침입하지 못할 테니까 그 동안 무슨 직전이라도 세우자.

..... !!


타닥
!?
부…
부우…!!
터억


하하 ~!!
어… 어떻게 저놈이 여기까지 …!?
그… 그렇구나! 저 자식, 아까 계왕신님의 순간이동을 보고 따라한 거야…!
저… 저렇게 순식간에 남의 기술을 흉내 내다니…!!


어찌됐든 잘 됐다. 어차피 한번은 붙게 될 거니까….
여기서 끝내 버리자….
부탁이니 모두를 데리고 어디 다른 별로 가줘!!
예!? 알았어요…!
이… 이런 빌어먹을! 정말 한심한 놈들이잖아! 이, 이 계왕신계는 보통 충격으론 파괴가 안 되니까 맘 놓고 싸워라!!
꼭…, 이겨요!!

꼬, 꼴을 보니까 저놈들은 퓨전을 할 기미도 안 보이네….

저, 저런 멍청이들…!! 사이어인은 귀찮기만 한 존재라니까…!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지만, 어쨌든 붙어보자!

됐다….

좋다!

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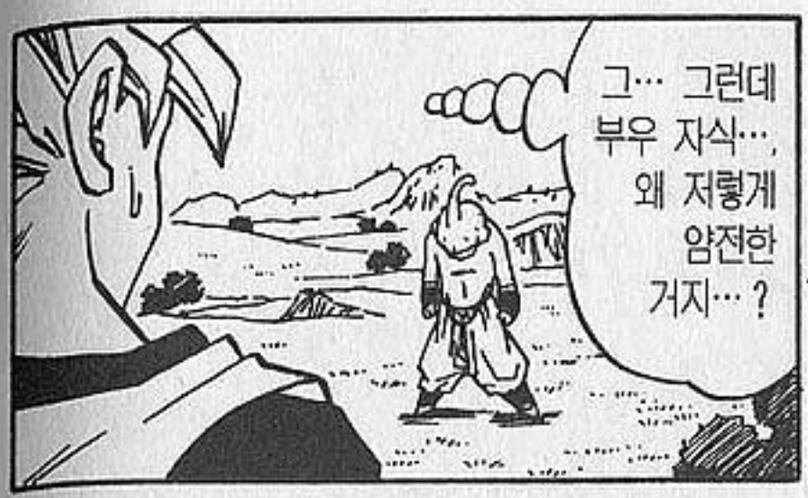
보…!!

가위 바위….

누가 먼저 하지?

정하자.


아뵤오!!
오예—!!
쳇….
저… 저런 멍청이들!!
호, 혼자서 싸울 속셈이잖아!!
둘 다 같이 덤벼!!
좋아~. 처음부터 전력을 다해 싸워야지…! 우리가 당하면 전 우주가 끝장이다….
어디 한 번 직접 보자, 초사이어인3란 것을….
사실 지금이니까 고백하는 건데, 뚱보 마인 부우라면 초사이어인3로 이길 수 있었다….
하지만 되도록 아이들의 힘을 믿고 싶었어…. 앞으로의 지구 운명을 위해서도….
괜찮겠니? 네가 나설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 그런데 부우 자식…, 왜 저렇게 얌전한 거지…?


앗…!
듣지를 않네…


빌어먹을 자식! 감히 날 우습게 보다니…!!
크르ー
크르ー
아니! 조…, 졸고 있잖아…!!


불끈

이…
이거구나
…!!

윽…
!!

빠직

빠직

오오옷—
!!

우호호
호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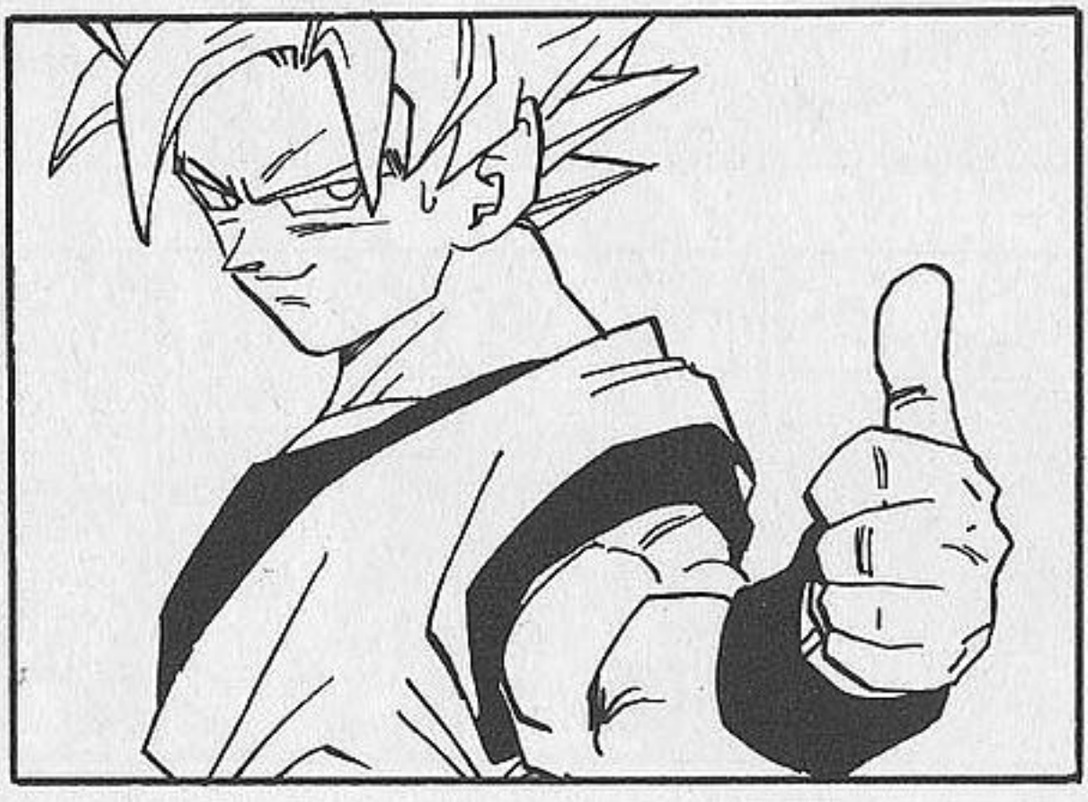
이…
이상한
놈이네….

앗!
큰일났다!
그, 그 사탄인가
하는 인간을
놔두고
왔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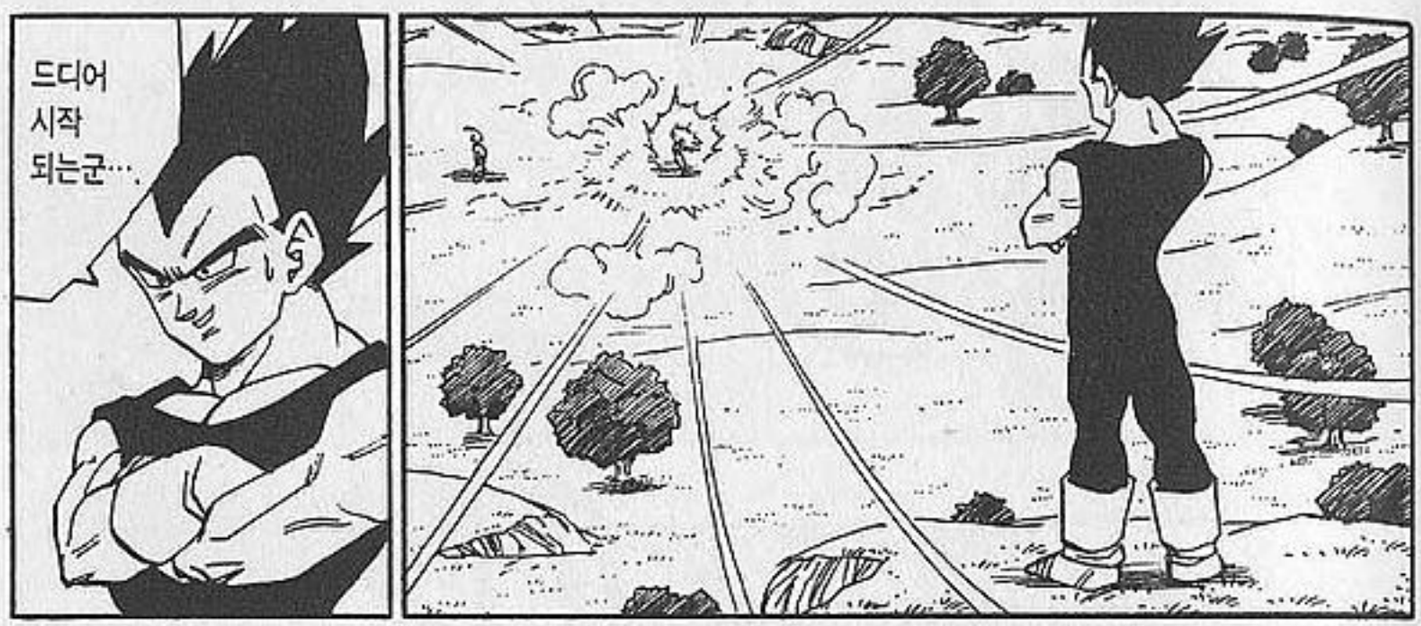
됐네,
그냥 냅둬….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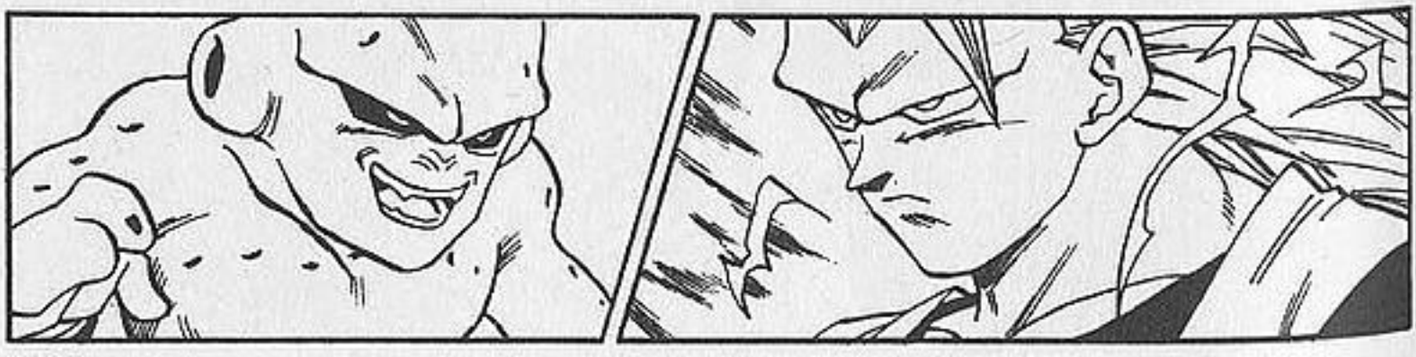


제510화

베지터와 카카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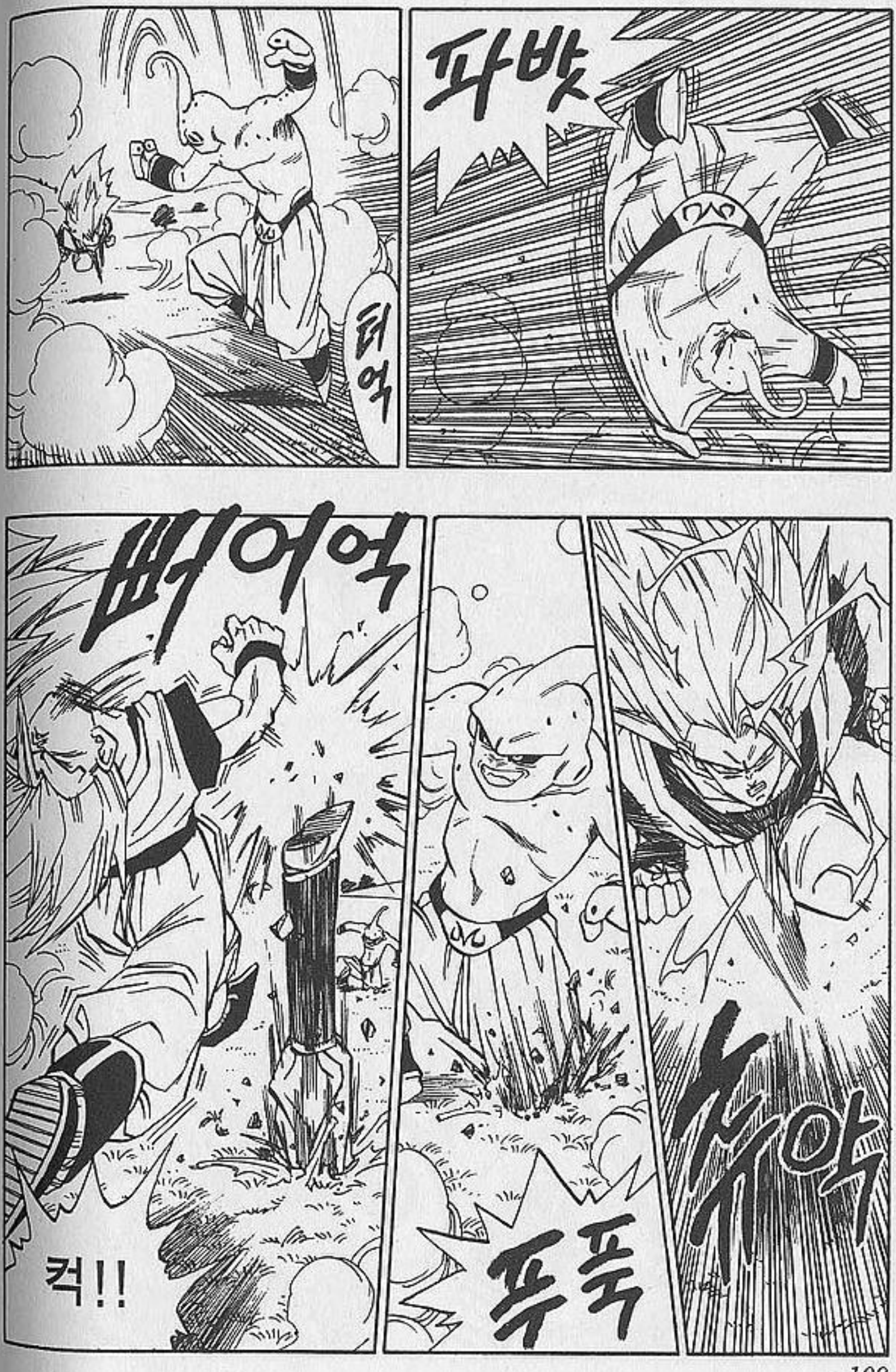







쿠콰콰쾅


콕…
촤아악
하압!!
!!


파밧
터억
쭈악
푸푹
뻐어억
컥!!


파파파파
쥐영
윽!!


휘악
쾅아앙
최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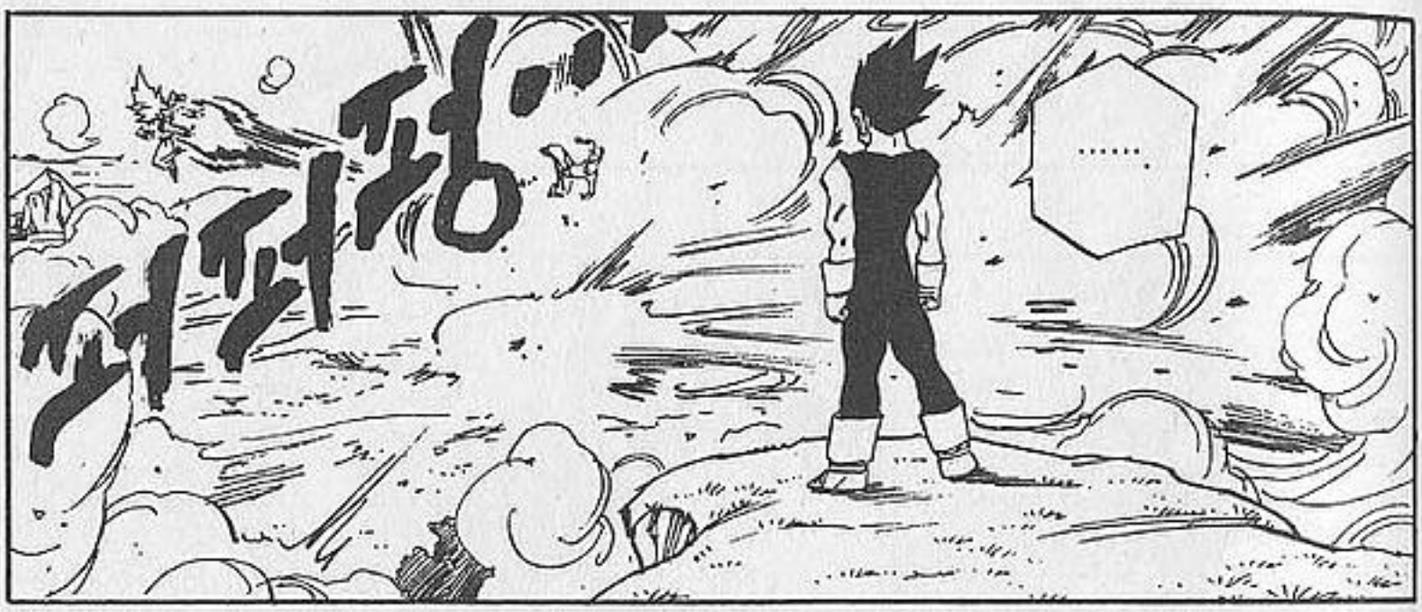

파밧
쿠콰쾅
파파팍
뻐억
타타닥
빠지직 퍼억


이제야 겨우 알 것 같아….
천재적 파이터인 내가 왜 너에게 쭉도 못쓰는지를….
저 마인 부우는 나로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대였다….
저놈과 싸울 수 있는 건 너뿐이야….
카카로트…, 넌 정말 대단한 놈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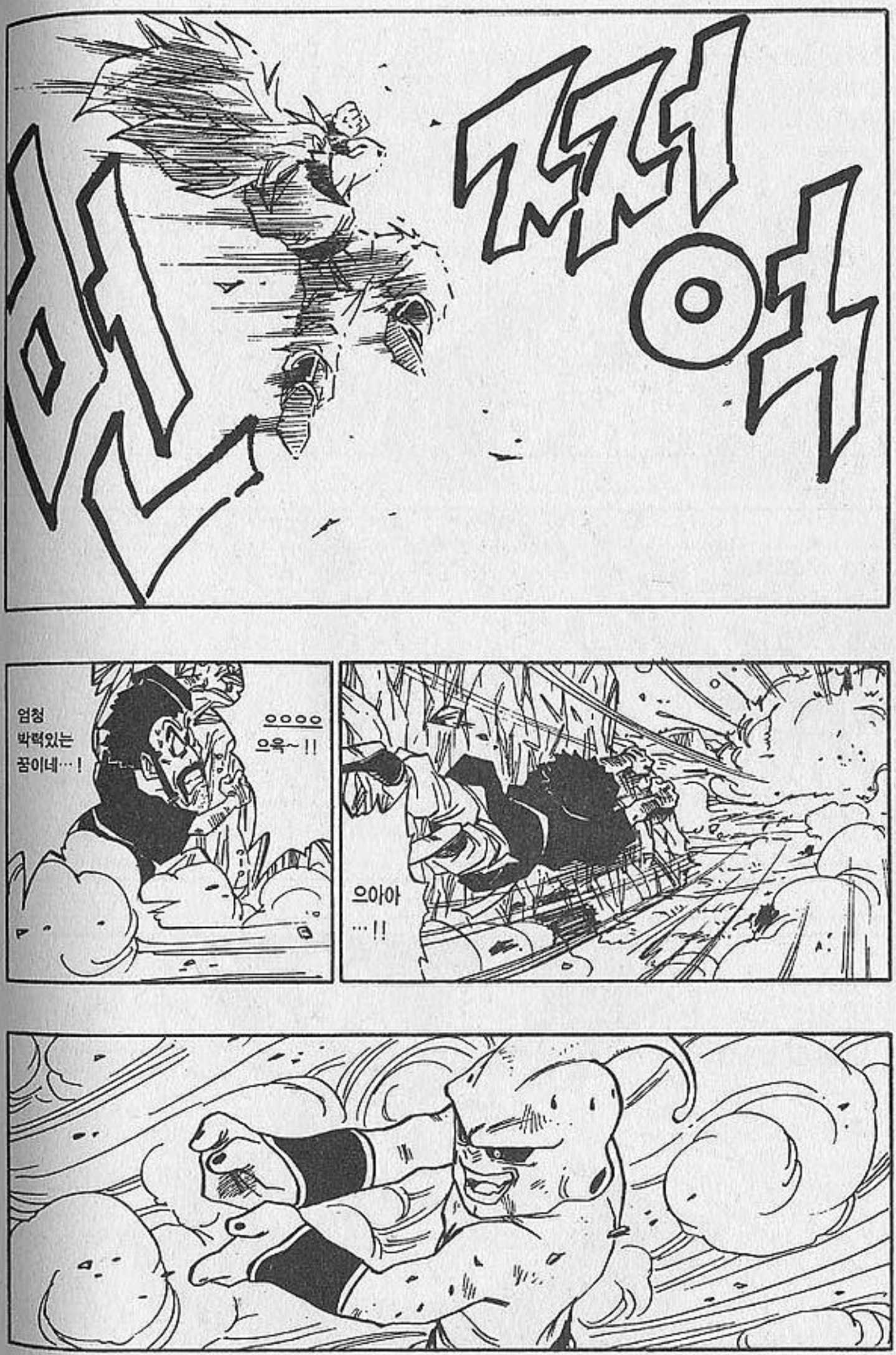

지키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정체불명의 힘을 탄생시키고 있다고….
분명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건 나도 지금 상황에선 마찬가지다….
옛날엔 네게 뭔가 지키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저 녀석은 달라….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지 않기 위해 한계를 계속 깨면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상대의 목숨을 끊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기 위해…, 즐거움을 위해…, 적을 죽이기 위해…, 그리고 자존심을 위해 싸워왔다…!


전투를 아주 좋아하는 인정 많은 사이어인 이라니…!
정말 열받아…!
마치 지금의 내가, 아주 약간이지만 인간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저 녀석은 끝내 날 죽이지 않았다.


……


네가 넘버원이다!!
힘내라, 카카로트….



쩌억
으아아 …!!
ㅇㅇㅇㅇ 으윽~!!
엄청 박력있는 꿈이네…!


!!
쾌여영
삐지작
멍청한 놈-!!
이게 바로 본고장 에네르기 파다!!
휘이이이ㅇ
쿰쿰
쿰쿰
후우 …!


제길…!!
역시 같은 식으론 아무리 공격해도 저놈은 체력이 안 떨어지는군…!
곧바로 다시 새 걸로 돌아와 버리니….
카카로트.
베, 베지터!!


이거 왜 이래? 벌써 교대냐?
조, 좀만 더 할게!
헹…. 처음부터 교대 따윈 생각도 안 했으면서 속보이는 소리하지 마라….
넌 이미 알고 있었어….


뭐!? 아… 아냐…. 그런….
내가 덤볐다간 금방 저승으로 직행할 거란 사실을….
흥…. 쓸데없이 신경쓰지 마….
분명 네 예상이 맞아…. 부우는 상상 이상으로 강했다.
카카로트…, 너 역시도….


그… 그래…. 나도 좀 전부터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좀처럼 그 기회를 잡지 못했어.
그 초사이어인3라면 모든 기를 모아서 완전히 부우를 먼지로 날려버릴 수 있을 거잖아…!
내 생각 말고 놈을 끝장내 버려!!
첫…! 내가 너무 잘난 척했나~.
좀더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벌어먹을~. 귀걸이가 있었다면 한 방에 보낼 수 있었는데.
1분!?
저놈을 먼지로 만들려면 1분 정도 기를 모아야 한다구~!
뭐?
1분 동안 내가 어떻게든 놈을 막겠다….
그 동안 넌 빨리 기를 모아…!!
뭐!?
씨르륵
씨르륵
날 생각해 준 게 아니라….
나….
저 자식…! 재빨리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으면서도 일부러 시간 끌며 즐기고 있는 거야….



제511화

죽음을 무릅쓴 베지터




죽지 마라!
베지터!!
흥…!
니나 잘해!
좋아!!
간다!!
피융
HOA


워라
이놈
-!!


!!
켁!!
파팟
파과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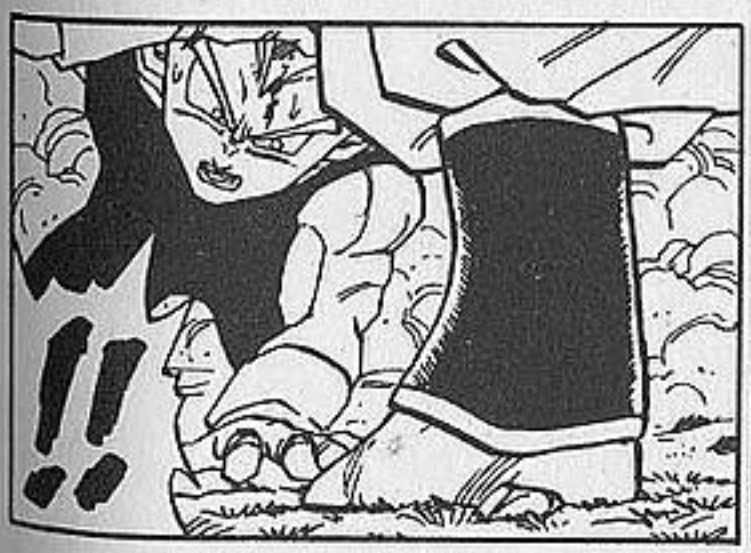
으아아아
아아… !!

조, 좋았어… !!
잘만 하면
이대로
1분 정도는
견딜 수 있겠다!






큭!!








쌔뱃
쩌억
쩌억
쩌앙

가…
가공할 정도로
빠르고 강한
공격이다… !!

카… 카카로트는
이런 녀석과
싸웠단 말인가… !!

빠앙

아… 아직
멀었냐… ?
빨리해… !!

주…,
죽을
지경이다… !

콰광 퍼억 타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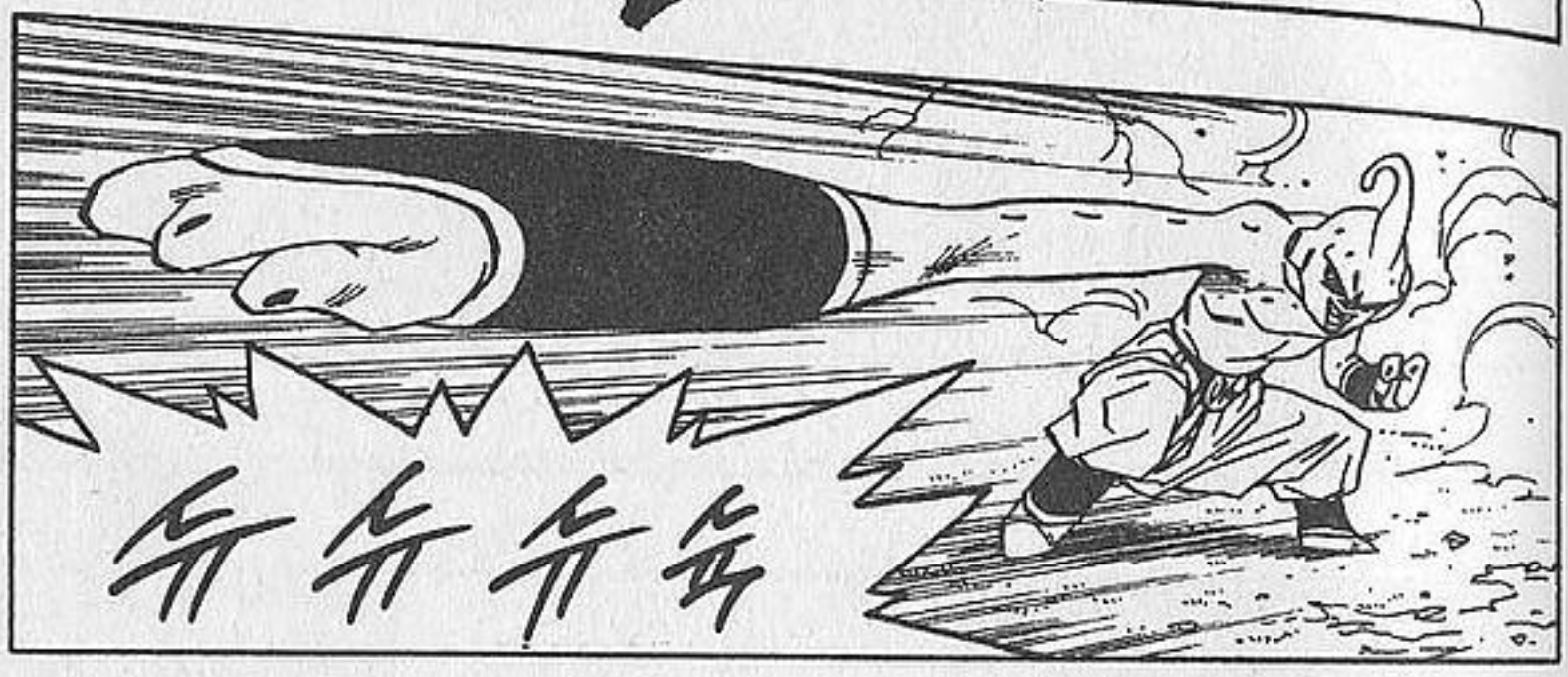
이,
이제
조금만… !

조금만 더
참아줘,
베지터… !!

아직…,
아직이야!
이 정도론
부우를
못죽여… !!

제… 제길!
벌써 1분은
지났을
텐데… !


슈슈슈슈


슈슈슈슈


휘리릭
!!


슈슈슈슈



쭈욱
으… 으억 …!!
사샥
사샥
억…!!
오공 …!!
이… 이런 제길…!!
조금도 기가 모이질 않네!! 대체 어찌 된 일이지…!?
베… 베지터가 죽겠다!!
부우 —!!


전 세계 격투기 챔피언인 나, 미스터 사탄님이 네 깡패 같은 짓을 그냥 두고 볼 줄 알았느냐?
야~이 건방진 자식아! 잠자코 보자니까 너무 꼴사납게 노는데!
묵사발을 만들어줄 테니 각오해라! 너도 상대를 잘못 만났다고 곧 후회할 거다!
엉…?


꿈인 게 아까울 정도로 너무 멋진 대사였어!!
나이스!!
털썩
슈웃
퍽…!
크억…


데, 뎀빌래!?
윽!!
슈슈
!!!
여, 역시 꿈이라도 무섭다!!
으아아!!
사, 살려 주세요!!
휘잉
자, 잘했다! 멋진데, 사탄!!
……!!







다음은, 제512화 초사이어인3(스리) 소멸하다


왜…
왜지…!?
왜 미스터
사탄이
등장한 후부터
부우가….
호, 흑시…,
정말 사탄의
기합 때문에….
와하하—!!
으어어억
…
꼴좋다!
나의 기합파워로
더욱 괴롭혀주마!
어?
우물우물
카…
카카로트!
언제까지
그럴 거야?
아직 멀었니…?
아…,
알아!
나도
아는데…,
이상해….
거, 거의
풀파워에
가깝게
기가
모였는데….
모…
모였던
기가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어!
음


뭐, 뭐야…!?
피웅
풀썩
부우!!
익!?
!!
!!
하아~



그… 그 착했던 시절의 부우가 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거부반응이 나타나 사탄을 공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저, 저 뚱뚱한 마인 부우는 미스터 사탄과 사이가 좋았죠….

이…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엉!?

맞아요.

뭐…. 하지만…, 사탄이란 놈은 당해도 특별히 상관 없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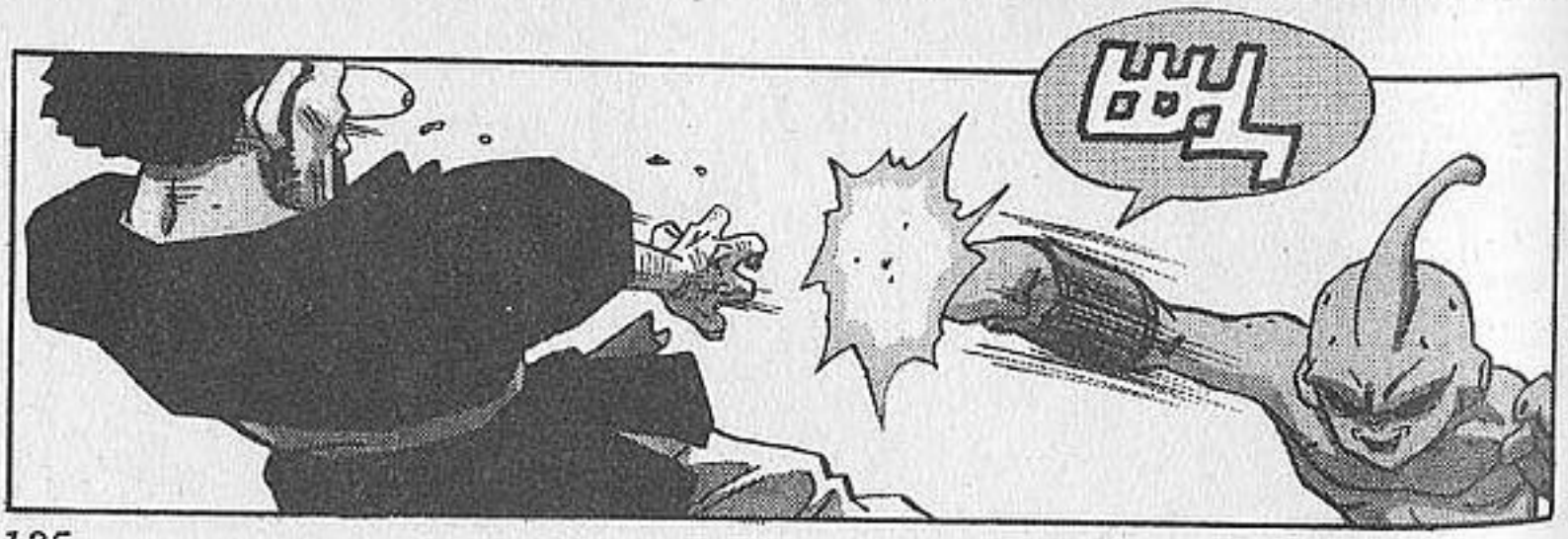
그래서 저놈을 몸밖으로 뱀어낸 거구나….

조…, 좋다! 그렇게 혼나고 싶다면 아주 작살을 내주마! 이놈!!

흠…! 이건 원래 꿈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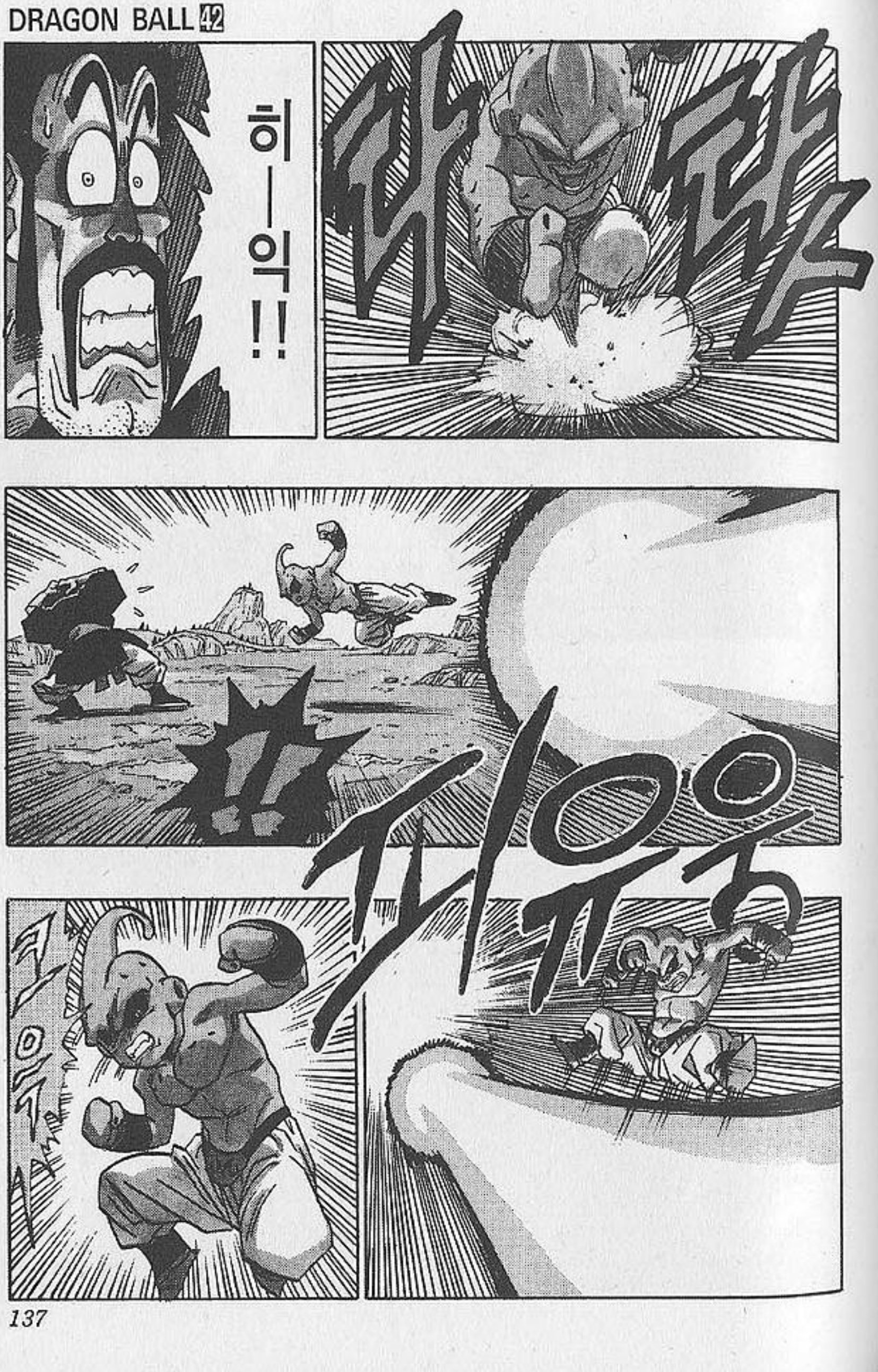
뭐… 뭐야!? 이 자식! 진짜 뎀빌래!?

충고한다! 그,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난 너무 강해!!





스윽
후다다닥…
이럴 수가!? 여, 역시 꿈이라도 아프네!!
윽, 으어억!!
데굴데굴…
히익-!!
크하하하…!!
그렇게 맞고 싶냐구! 사, 사과할 테면 지금 해!
내가 진짜 화내는 거 보고 싶냐?
이, 이놈! 그만 좀 까불어!
……
흑시 내가 실수한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하….
그래…, 알았다! 용서해 줄까나….
쾅쾅쾅
와하하하하…


히—익!!
기이이
기이이
기이이

앗…!

아니…!?

!!

엥!?

부,
부우!!

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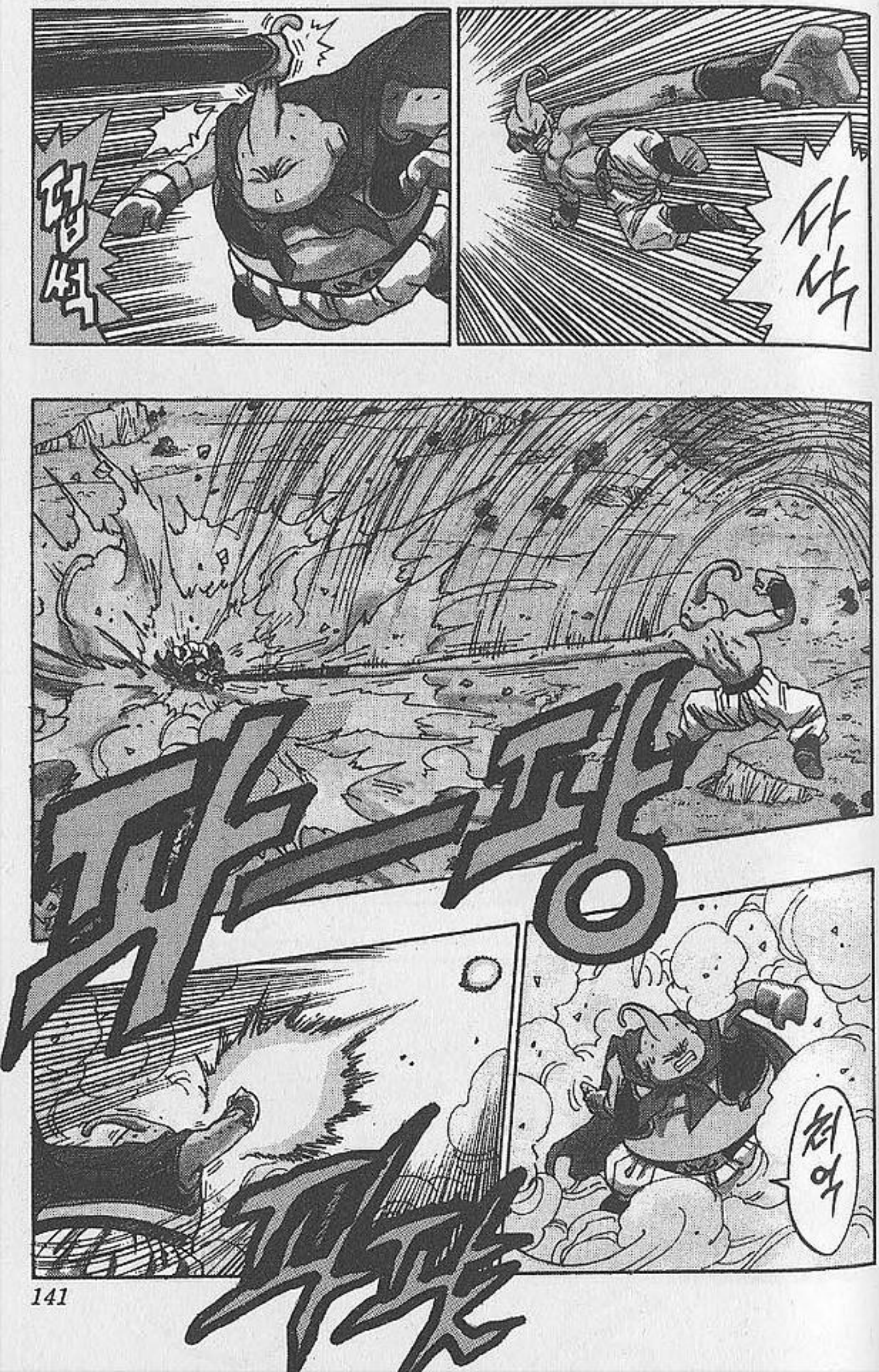
사탄
괴롭히지
마!

너
싫어!!


크아아아
부우…!!
파팟
!!!
어



꽈당탕탕
터억


다닥
덥썩
쳐억


퍽
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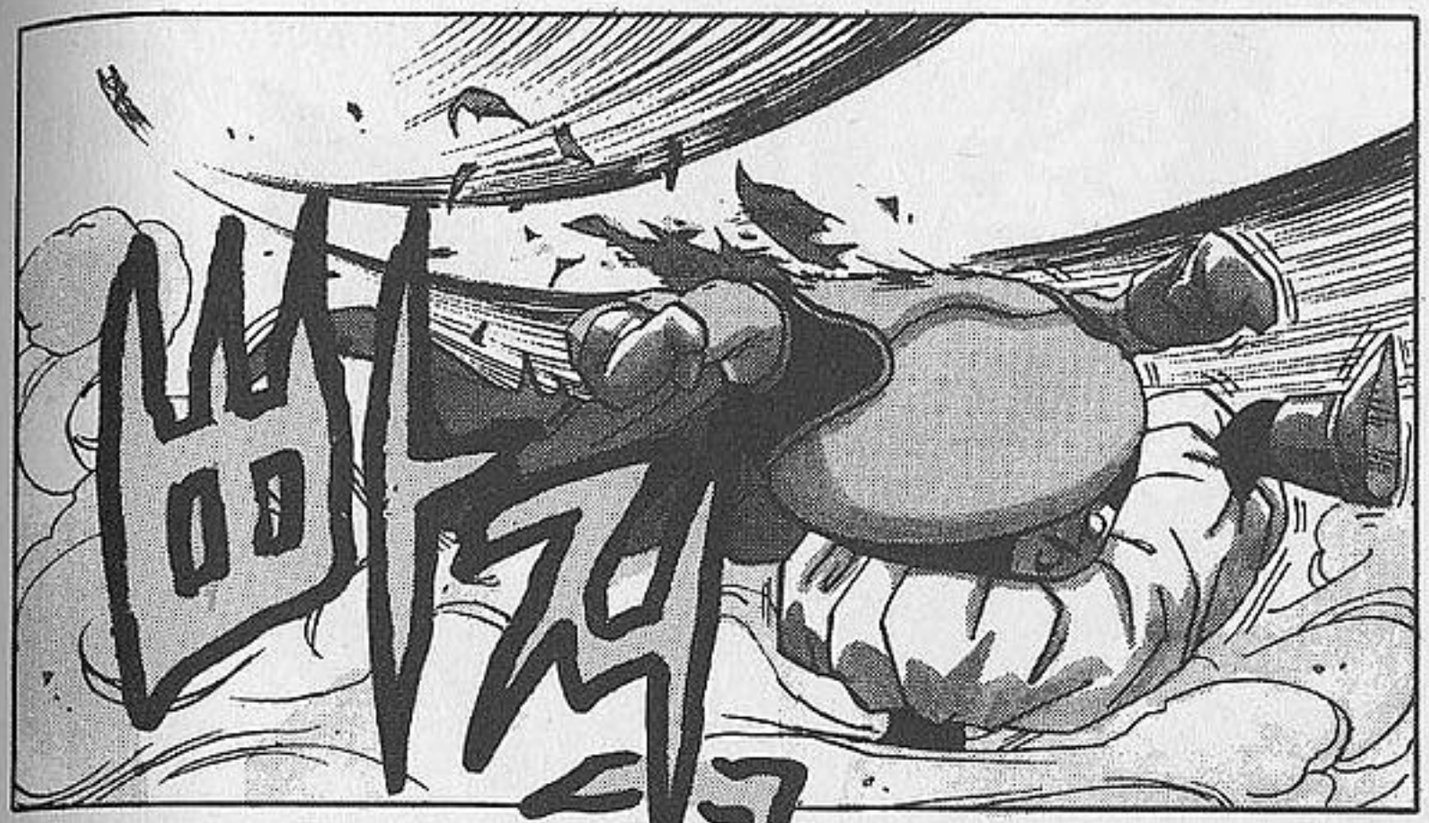

카…
카카로트…!
시간 좀
그만 끌어…!
대체 얼마나 더
있어야 해!?
지금 빨리
공격해야
된다…!
아…
아직이니?
아직
기가
모자라…?


이…
이런
빌어먹을!
제기랄…!!
이럴 리가!
이럴 수가
없는데…!!


히…,
힘이…!!
힘이…
빠…
빠져
나간다!!



앗…!!
!!
!!
윽!!
헉
헉
이…
이런…!!
!!


멈춰라!


주물럭주물럭


아앗!
부, 부우…!!


아무래도 최악의 게임이 된 것 같군….
첫…!


이길 수가 없는걸….
안 되겠어….


하하! 다, 다행이다…!!
과, 과연 부우야…! 힘내라! 저런 놈은 한방에 날려버려!!

제513화

베지터의 생각






ふふ
ふふ
ふふ


콰악
꺄욱
콰앙
퍼억
파박
타탁
떨어져! 떨어지란 말야!! 나쁜 자식!!
에잇! 이놈!!
으… 으억…!!
꽈아아아악…
부, 부우!!
콰악


!!
파바밧
으악!!
쭈욱
스르륵
꽈당
빠직
초콜릿이 돼라!!
!!
팟


쓰쓰쓰...


……
저…, 정말 큰일났다…. 저러다 당하는 건 시간문제야….
허억…, 허억….
내 목소리 들리냐…!? 들리면 대답 좀 해…!!
계왕신들, 덴데! 그 구슬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겠지…!?
그럼 지금 즉시 부활한 나메크 성으로 가서 드래곤 볼을 모아 와라!
좋아…!
그… 그래. 들리긴 하지만….
응!?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해! 시간이 없단 말야!!
저… 저기…, 도대체 왜…?

올바른 일에 쓰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따위 케케묵은 규정에 얽매일 때가 아녜요!!

드래곤 볼이라…, 그건 말야….

끄응~.

부, 분명 베지터 씨한테 뭔가 계획이 있는 겁니다!!

드… 드래곤 볼이라…!

가, 가요! 절 데려가 주세요!!

드래곤 볼을 사용하는 건 아직 일러…!

베… 베지터! 어쩔 셈이니?

가자, 나메크 성으로!

아, 알았다! 알았다구…!

그…, 글쎄…. 몇번 이었지…!?

뭐…, 뭔 소리야!? 갑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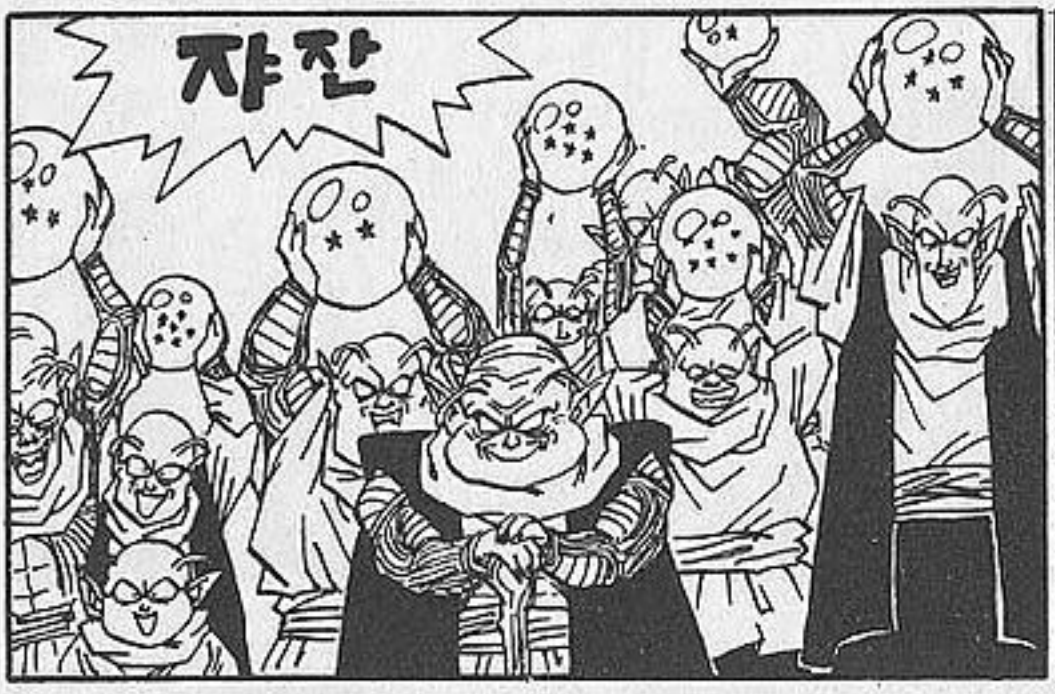
뭐?

카카로트…, 넌 지금까지 몇번이나 지구를 구했니…?

지구 놈들 스스로도 책임을 지게 하란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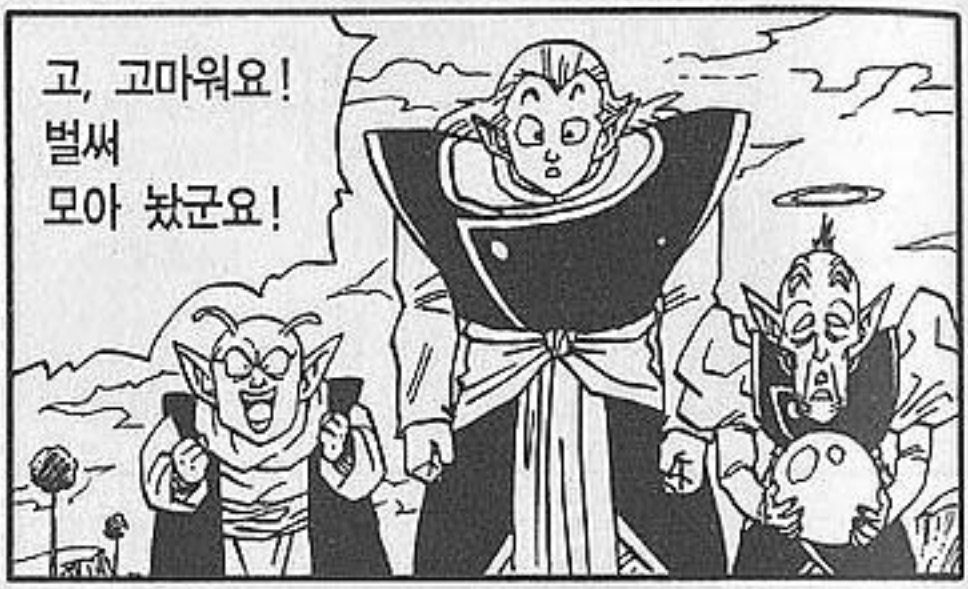
가끔은….


퓨슈
뭐야!?
에!?
기다리고 있었어.
어떠냐, 덴데? 이 별도 원래대로 부활했다….
계왕신님도 잘 오셨어요!
이런, 이런!
모, 모두들…!!


쟈잔


자,
서두르죠!
사정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베… 베지터!
드래곤 볼
7개가 이미
모두 모였어요!
그,
그래?


고, 고마워요!
벌써
모아 놨군요!


부탁할 소원은 두 가지!
우선 파괴된 지구를
원래대로 부활시키는 것!
다음엔 그 천하제일
무술대회가 있던 날부터
죽은 모두를, 극악무도한
악당만 빼고
되살리는 것!
이 두 가지다!!
빨리
나메크
성의
용신을
불러내!!


덴데! 베지터에게 우슨 생각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줘.
하… 하지만 그건….
에… 에…!


지… 지금 바로요? 그, 그 소원을 …?
예…!?
그래! 빨리!!


베지터…, 두 번째 소원은 말야…. 부우에게 살해 당한 사람들만 살려달라고 하는 게….
이해하기 쉽지 않겠니?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아무 거나 상관 없다!
그리고 저, 저기…, 세 번째 소원은…?
맘대로 해!


맞아…!
너…, 보기보다 머리 잘 돌아가네….


또한 그런 소원으론 무술대회장에서 내가 죽인 사람들은 살리지 못해….
멍청한 놈…! 그럼 바비디나 데브라까지 살리게 된단 말야….


베지터! 그, 그러고 보니 이 용신이 소원을 듣고 살릴 수 있는 건 단 한 명 뿐이었어요!!
아앗! 아, 안 돼!!


하하하…. 걱정은 접어두게! 프리더의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는 용신의 소원을 파워업 해두었다.
예!?
그, 그럼 모든 사람을!?


!!
뭐, 뭐야!?
그, 그러고 보니 그러네…!!


거, 걱정 없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자, 시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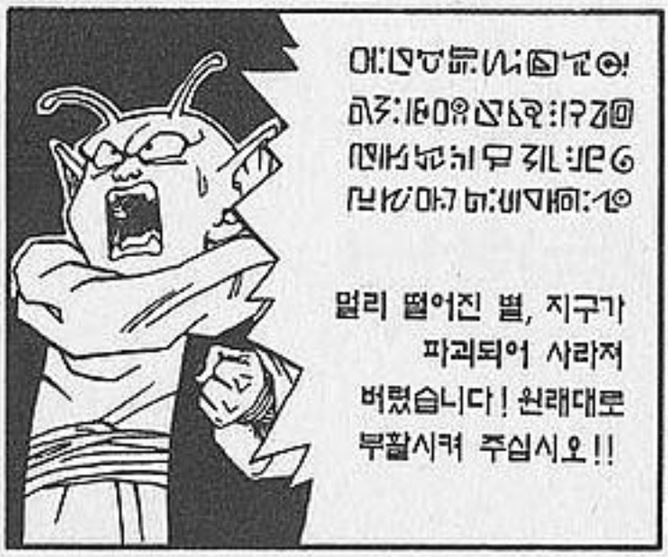

빌어먹을! 이 나쁜 자식들…!!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X으로 알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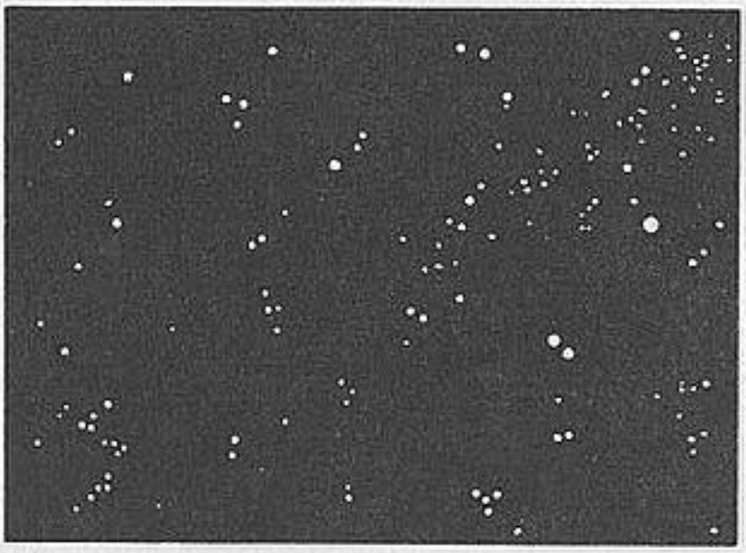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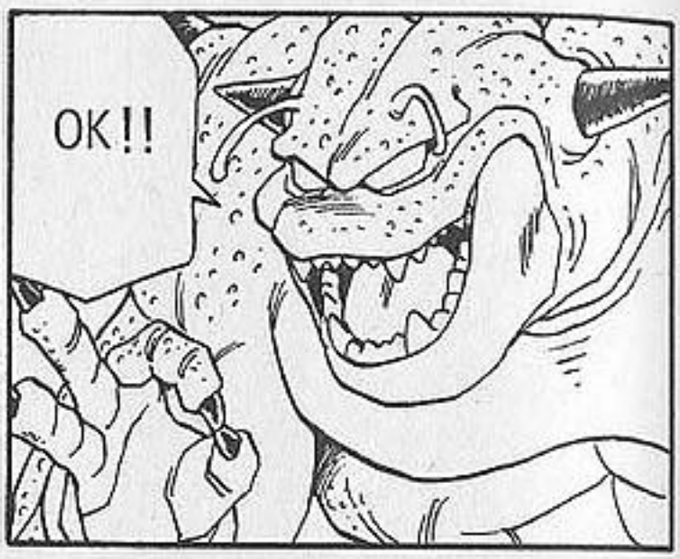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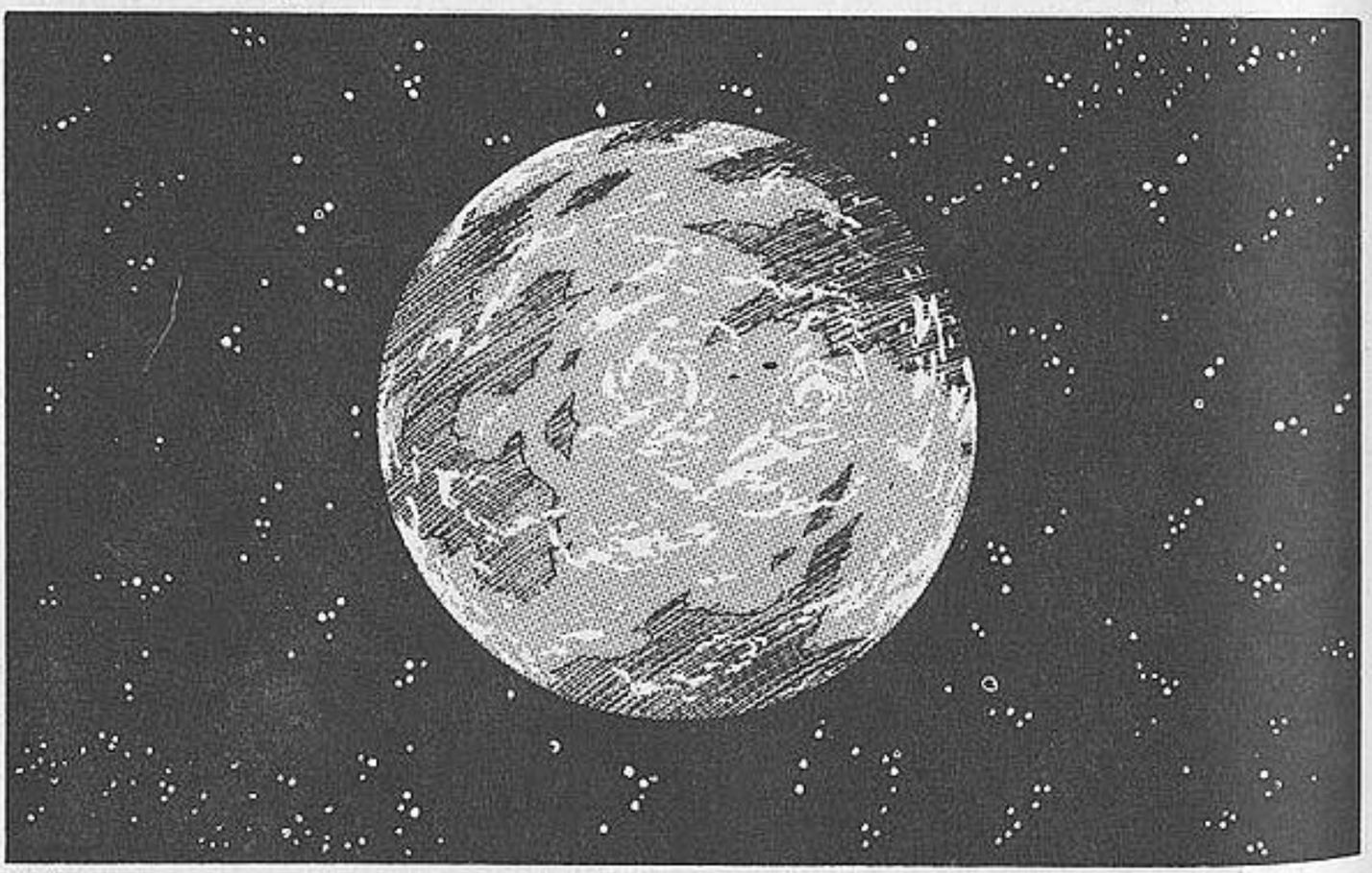

자, 소원을 말해라!
어떤 소원이든
세 가지만
들어주겠다!
우아아… !!
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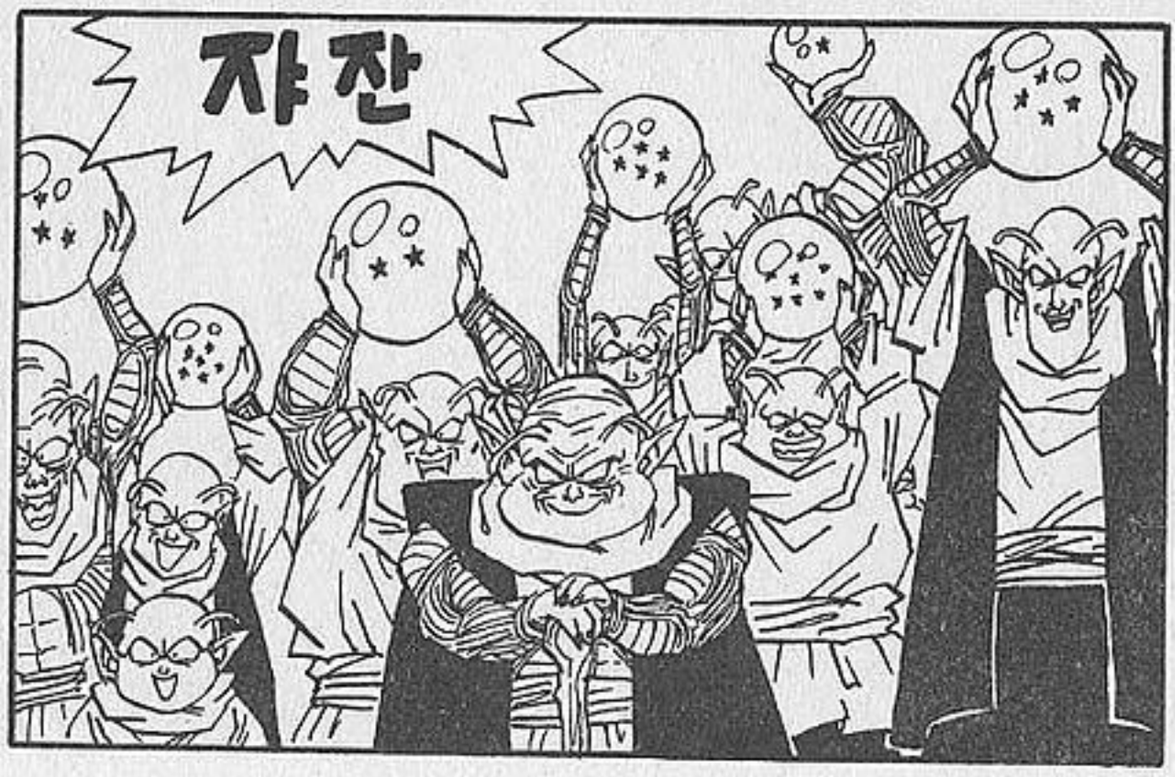

멀리 떨어진 별, 지구가
파괴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원래대로
부활시켜 주십시오!!


나메크어는
아직 기억하고
있지?
자, 덴데!
소원을
말해라.
예,
물론!!




OK!!




자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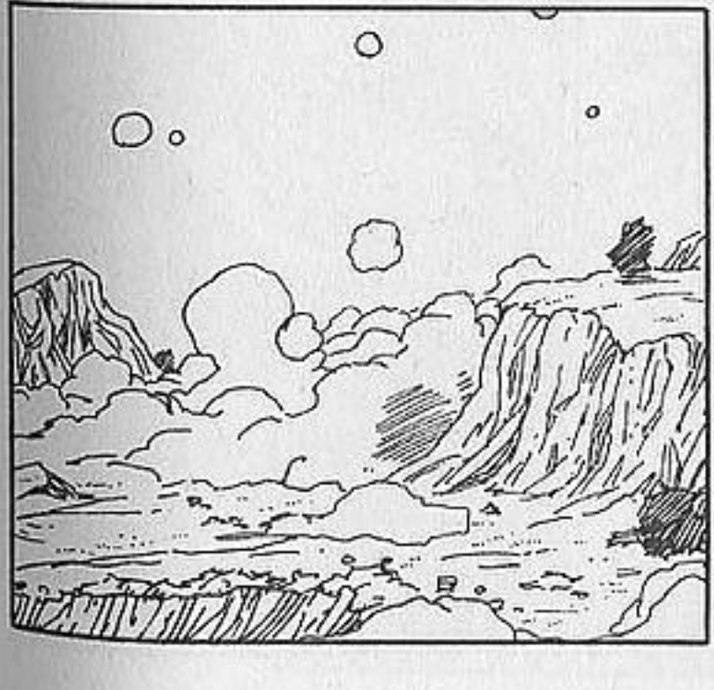
제514화

부활한 지구인들을 향한 메시지




알았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줘…. 숫자가 많아서 힘이 좀 들거든….


예….
이… 이런….
그… 그런 것도 가능한가…!?




에…, 그러니까…. 뭐라 얘기하면 좋을까…?
저…, 마도사 바비디가 지구에 온 날부터 죽어버린 사람들을 되살려 주세요! 너무 나쁜 악당놈들은 빼고….


쾌악
쾌악
콰다다당


사삭
빙글
뚜둑
히얏
헉
헉
헉


쾅쾅
뚱땡이의 파워가 줄고 있다…. 같은 부우끼리 싸우니까 충격이 큰 것 같아….
그래….
큰일났다…! 눈치챘니, 카카로트…?
파악
파악
퍼어억
빠악
아, 아직 멀었니? 덴데!
아직 소원은 이뤄지지 않았어?
귀청 떨어지겠네. 너무 보채지 마.
용신도 젖먹던 힘까지 쓰고 있단 말야.


두 번째 소원이 이루어졌다.
오래 기다렸지.
오잉!?
짜앗
모두 되살아 났어요!!
베지터—!!
그러고 보니 넌 아주 극악무도한 녀석은 아닌가보다!!
앗! 베지터 머리 위의 동그라미도 사라졌네! 다시 살아난 거야!
……
나…, 난 분명 부우한테 죽었는데….
내… 내가…!
와글
와글
어… 어라…!?

아…
아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지…?

엉!?

FIGHT

시작한다,
준비해라….

아냐!

네 속셈을
알겠다!
오반과 오천크스를
부활시켜 싸움을
붙이려는
거였구나.


원기옥
이라니!?
원기옥!?
원기옥을
준비해!!


조금씩이
아니라,
가능한 한
최대한의
파워를
뽑아내는
거야!
말했잖아?
때론
지구놈들한테도
책임을 지게
하라고…!


무, 무리야!
부우를 상대로
그건 안 먹혀!
아무리 지구인
모두에게서 파워를
조금씩 모은다
해도….
야! 네가
생각한 게
원기옥이니!?


바, 바비디처럼요!?
그… 그건 좀
무린데요….
뭐,
뭐야!?
뭐?


베지터!
용신이
세 번째 소원을
말하라는데….
그건 아무 거나
좋아! 야, 계왕신!
듣고 있니?
지구 전체의
인류에게 얘길
하고 싶다.
좀 연결시켜줘!


누,
누구!?
그건 나한테
맡겨!
내 특기잖아!

베지터 녀석,
마지막 카드로
내 원기옥을 택한 건
나이스다!
자, 얘기해봐!
지구만이 아니라
전 우주에까지
들리도록
말할 수 있으니까!

당연하지!

계왕신
님이다!!

이, 이
목소린!

자,
잘 됐다….

들리느냐,
세계의
인간들아…!


난 어떤 곳에서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알고 있겠지만 너희들 대부분은 마인 부우에게 죽었던 목숨이야.
하지만…, 어떤 불가사의한 힘에 의해 되살아났다.


지구인 전체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쉿!
저, 저게 무슨 헛소리냐?
뭐!? 꾸, 꿈이 아니라고!?


이, 이봐! 너희들!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지껄일 시간 있으면 내 친구 부우나 구해줘…!!
여…, 역시 꿈이야…!


지금 어떤 곳에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마인 부우와 싸우고 있는 전사가 있다!


거리나 집들도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왔을 거다.
하지만…, 이건 결코 꿈은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의 힘을
빌리고
싶다…!!

베지터다!
베지터
목소리야!
대체 어떻게!?

쉿!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전세는 불리하다!
마인 부우의 파워는
옛날 셀의 파워조차
훨씬 능가하고
있단 말이다!!

저…
저런 엉터리!
너무 건방진
말투잖아….

……

손을
하늘을
향해
올려라!!

너희들의
힘을 모아
부우를
박살내는 거야!!

상당히
피곤할 테지만,
걱정 마라!
힘껏 달리고 난 후의
피곤과 비슷한
정도니까!

자, 해봐!
손을 올려!

응!!

됐다,
카카로트!
시작해!!

정말
다시
봤어!

찌지직

잘하는데,
베지터!


파밧
파밧
모두들!!
나에게 가능한 한 모든 파워를 나눠줘!
부탁해!!
팟
파밧

이, 이렇게?

엥!?

엥!?

자, 빨리 따라해!

그래, 원기옥이다!

홈! 베지터 녀석…. 생각보다 머리 좋네…!

알았어, 아빠!

하, 하지만 아직 불완전해….

왜, 왜일까…?

야호! 됐다, 됐어!!

엄청 크다!

이건 오반 애들의 기구나!!

이상한 목소리야!

야, 손을 들라는대!

난 못해!

그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해!?

속지 마!

대체 어떤 놈이?

이런 제길…!

이건…, 꿈이야.



제515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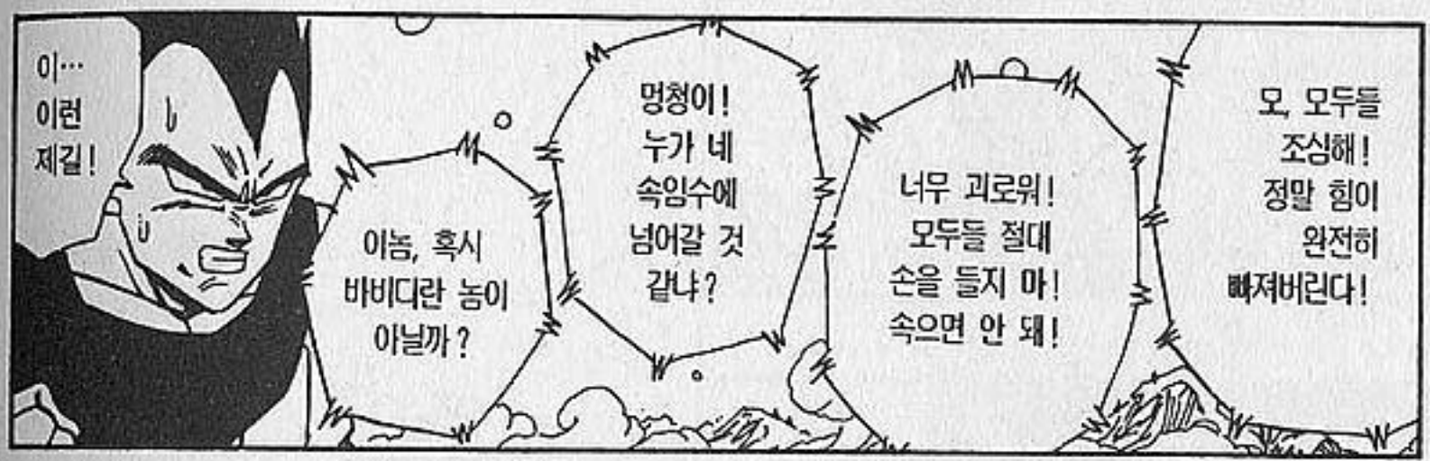
모이지 않는 원기옥의 파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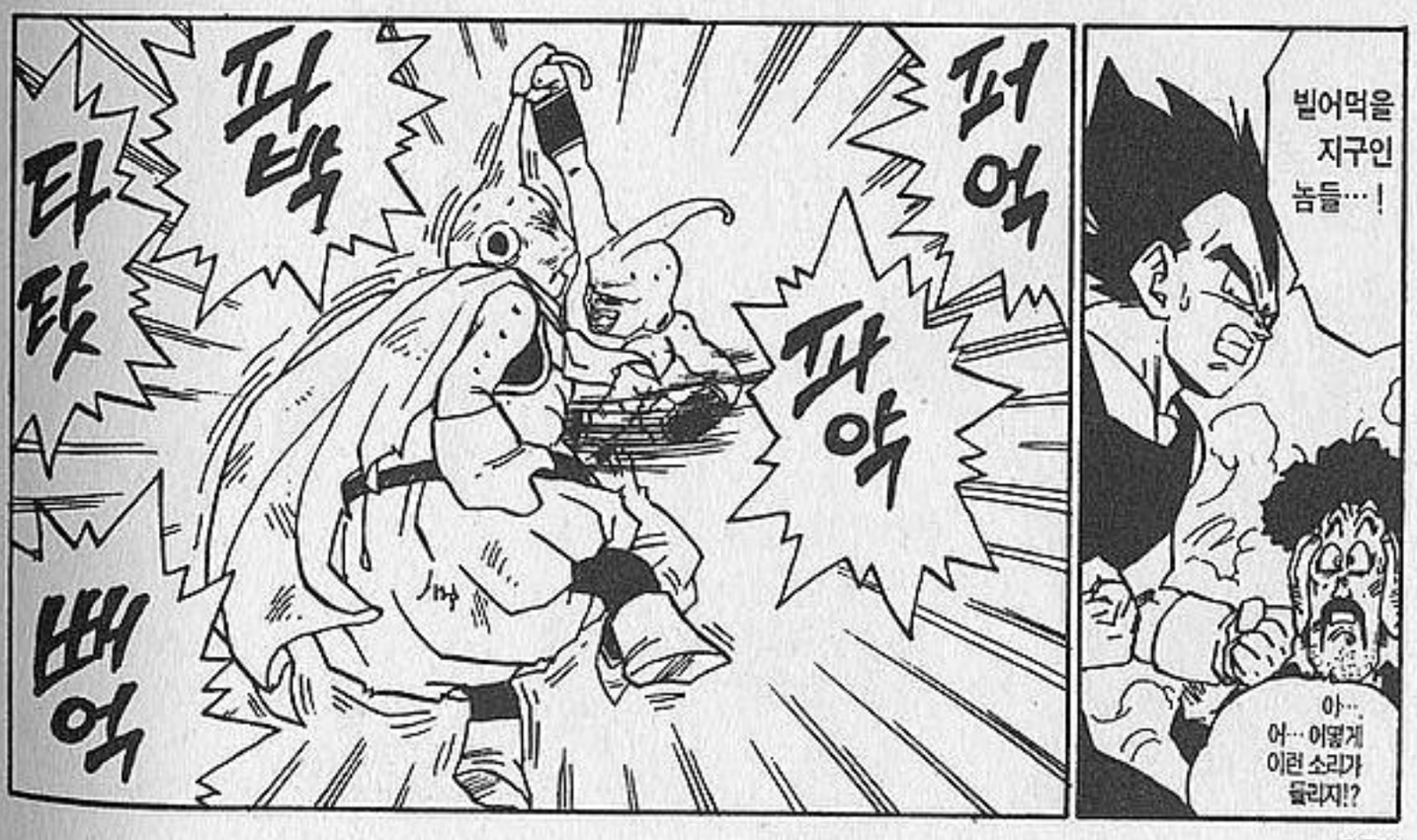







나… 나…, 손을 좀 들어볼까…?
이, 이 봐…! 그만둬. 위험하다구!!
뉴 욱
앗…!!
허억! 허억!
이… 이런! 저…, 정말 힘이…! 헉! 헉!
거, 거 봐! 이건 악마의 함정이야…!


모, 모두들 조심해! 정말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다!
너무 괴로워! 모두들 절대 손을 들지 마! 속으면 안 돼!
멍청이! 누가 네 속임수에 넘어갈 것 같냐?
이놈, 혹시 바비디란 놈이 아닐까?
이… 이런 제길!


빌어먹을 지구인 놈들…!
아… 어…어떻게 이런 소리가 들리지!?
퍼억
파악
타닷
뻐억


파바바박..
제길 …!!
이… 이거 큰일이네! 뚱땡이가 죽어가는데…!
파앗
콰닥닥
슥…
씨익…
앗! 부, 부우!!
……
이, 이런 나쁜 자식! 감히 누굴!!
멈춰! 이 자식!!
슈슈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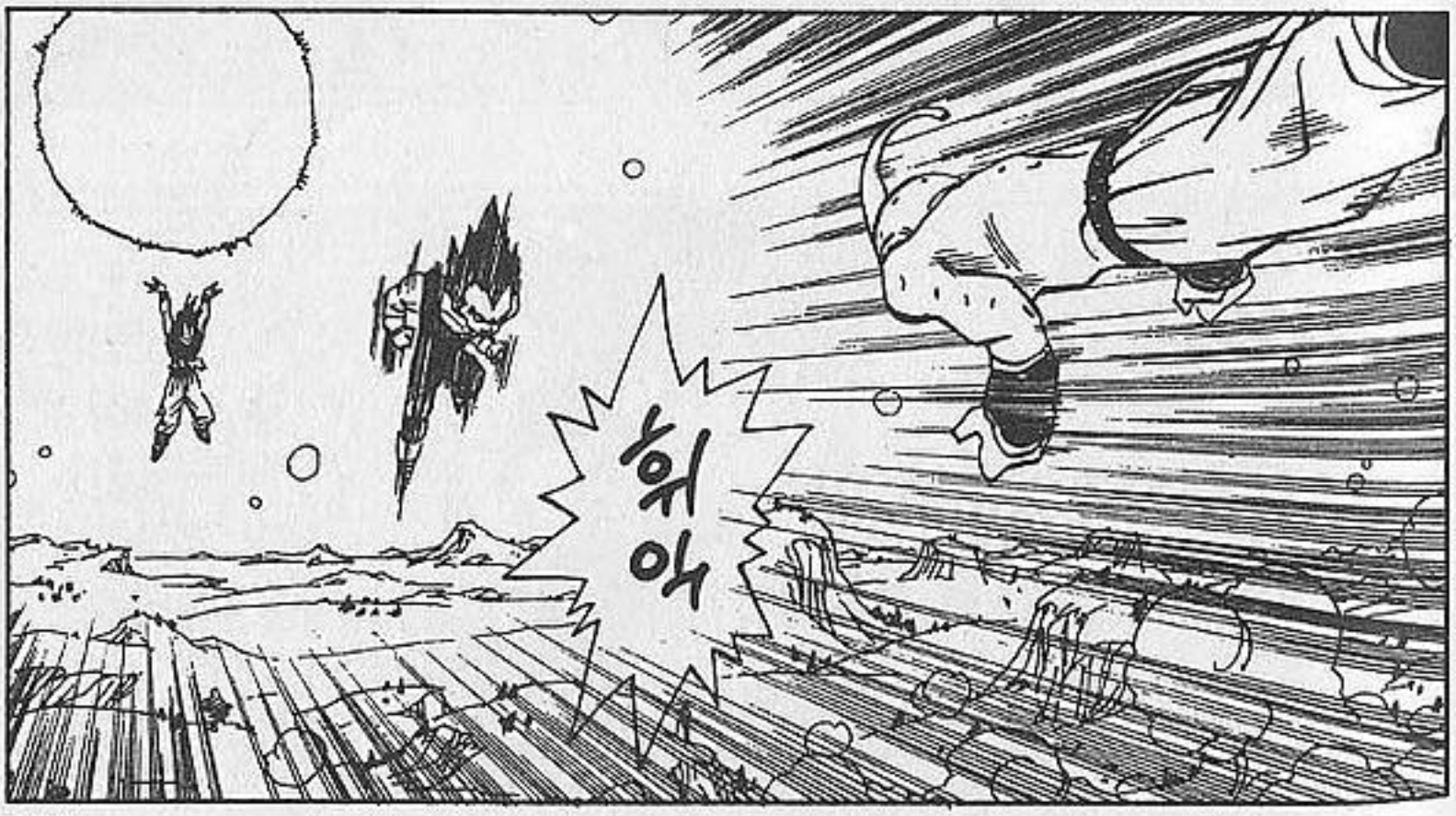
아…!
맞았네….
!?
빌어먹을…!!
눈치 챘어…!
하압~!!
윽…!

다음엔 네가 바보 같은 지구놈들을 설득해!!

카카로트! 내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겠다!

너, 넌 살아난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기가 불충분해!!

시, 시간을 번다 해도….




히죽
히죽
빙글빙글
사삭
커헉…!!
컥…!
!!
슈슈슉
뻐억
접썩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늘로 손을 올려줘! 빨리…!!
모, 모든 지구인들아! 부탁한다!! 제발 부탁이니 파워를 나눠줘!!

손오공들이야! 그들이 지금 마인 부우와 싸우고 있는 거라구!

흐음…, 이제야 겨우 목소리의 주인공 정체를 알았다.

?

지, 지금 목소린…!

아… 아버지!!

과연…, 그렇군….

흠…! 저 목소리도 오랜만에 듣네….

자, 우파! 손을 위로 올려!

손오공! 우리들 힘도 사용해 주세요!!

그래, 분명 맞아!!

손오공이야!!

손오공이다!

맞아! 그, 그때.


퍼퍼퍽
목소리에 속지 마! 분명 부우 똘마니들이니까.
이, 이 봐…. 이번엔 착한 사람들 목소리 같았어….
그래, 이상해. 아까부터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있잖아!
부우우
사삭
……
왜지? 대체 왜 모두들 이해하지 못하는 거냐구!?
아, 안 돼! 약간 늘어났을 뿐이다!!
타타탁
퍼억
파박
빠악
……
퍼억

혹시 마인 부우란 것도 전부 사기 아냐!?

자식! 부탁하는 태도가 너무 건방져!

뭐야? 바보라고!?

맞아! 집단 최면술에 걸렸던 걸지도….

저런 건 무시해 버리자!!

지구와 우주가 어떻게 되든 상관 없단 말이냐!? 이 바보들아!!

빨리 도와줘! 모두들-!!

이,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지…?

이, 이봐! 이건 분명 미스터 사탄 목소린데…!!

엥!? 사, 사탄!?

이, 이놈들! 그만 좀 해라!!

빨리 협력 못하겠나!?

나, 미스터 사탄의 부탁도 안 듣겠단 말이냐!!

왈왈 왈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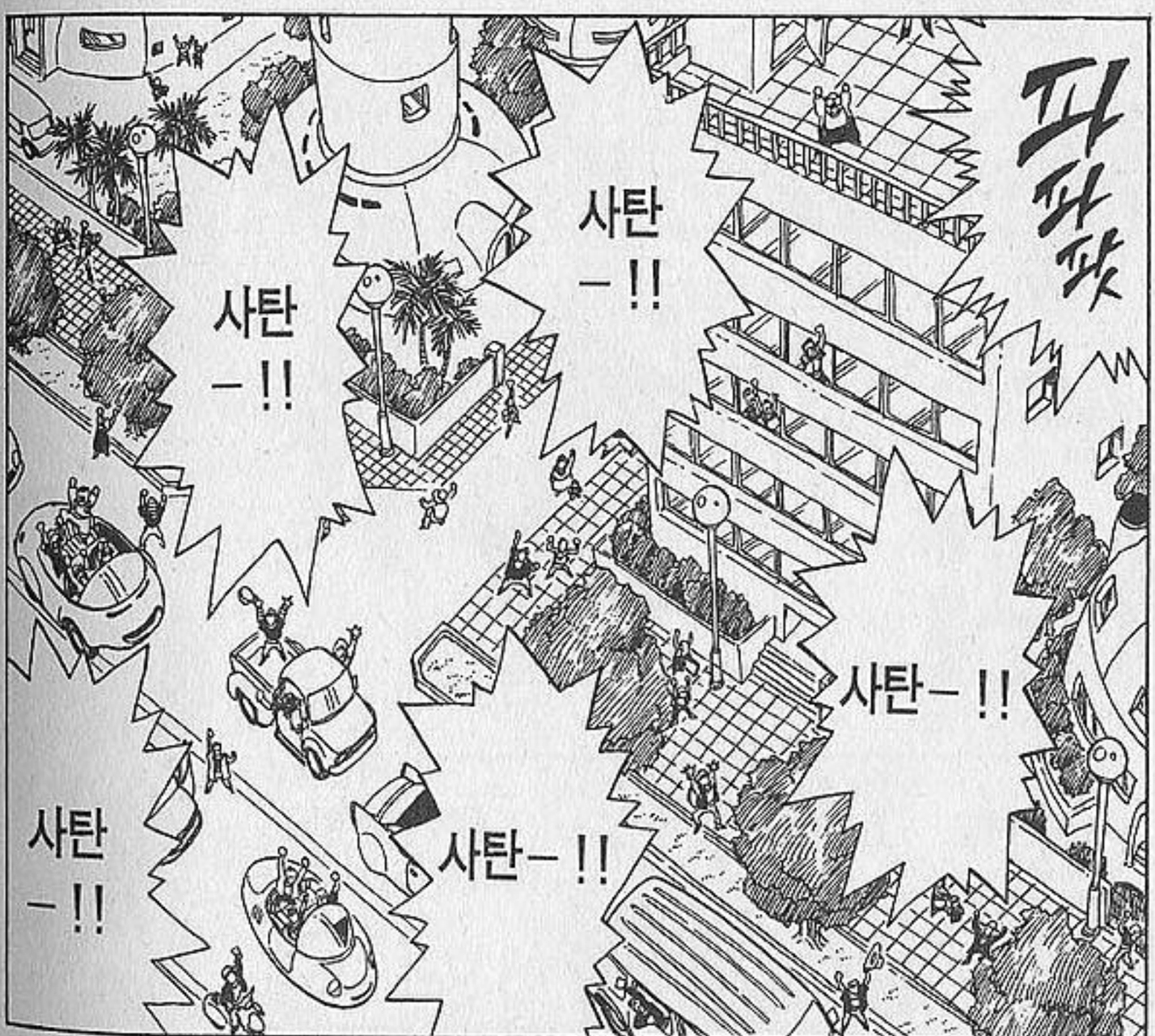
이… 이거 혹시 부우와 싸우고 있는 사람이 미스터 사탄이었단 말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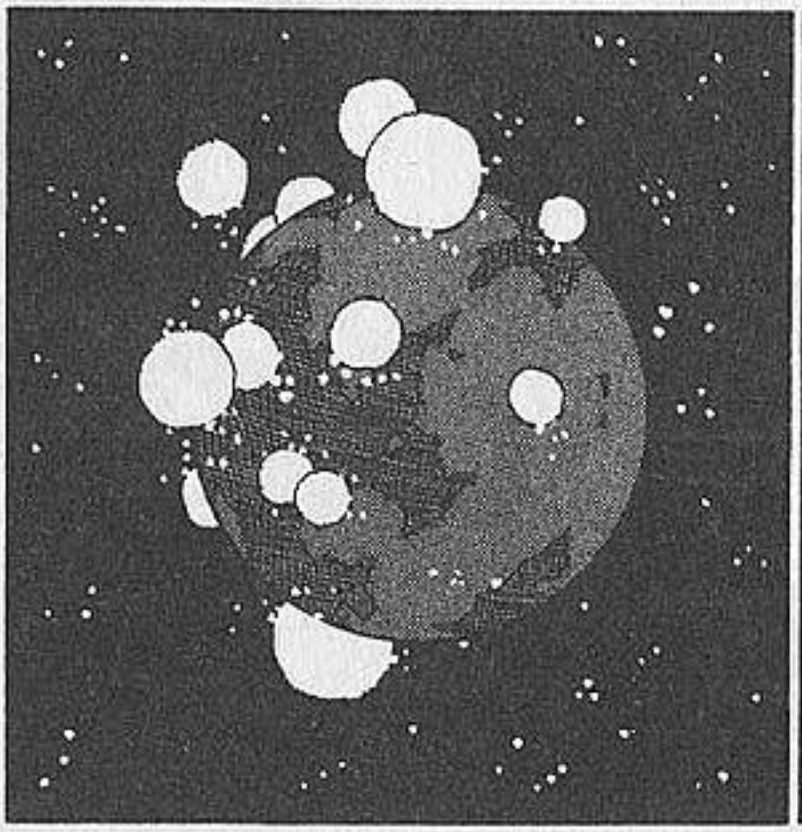
사탄이야…. 미스터 사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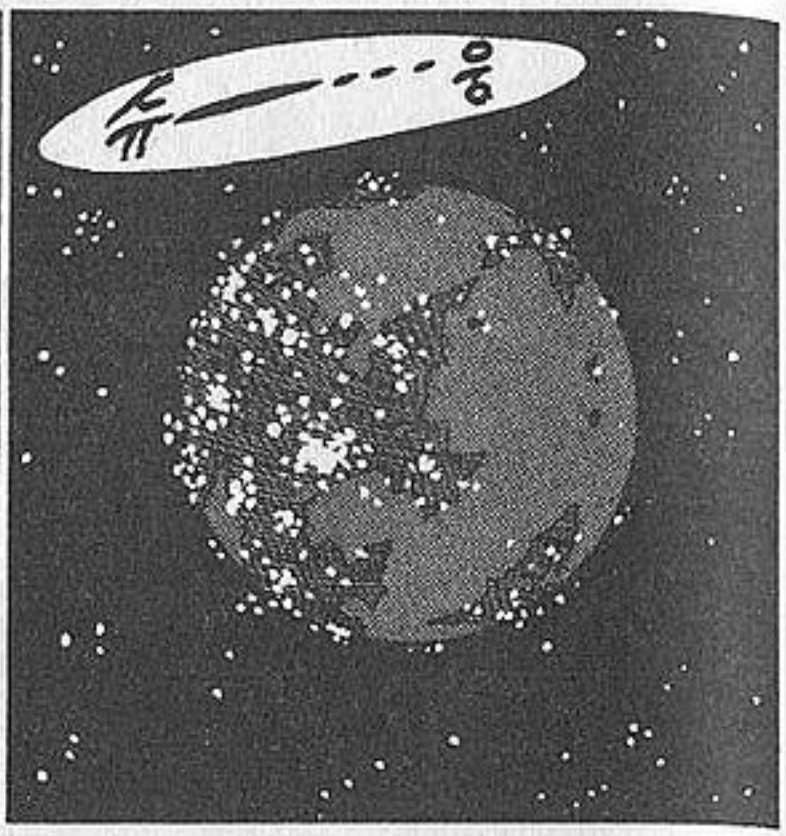
그…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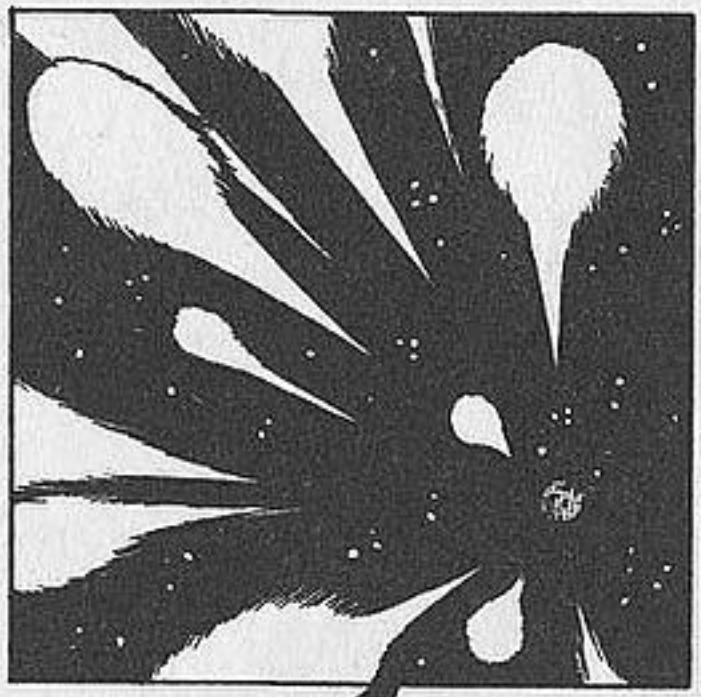
내가 마인 부우를 박살낼 테니 너희들도 빨리 힘을 빌려줘!!


……
이… 이건 어쩔 수 없잖아….
이, 이렇게라도 얘기 안 하면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우, 우선 저 부우놈을 없애는 게 먼저라구…!
파팟
파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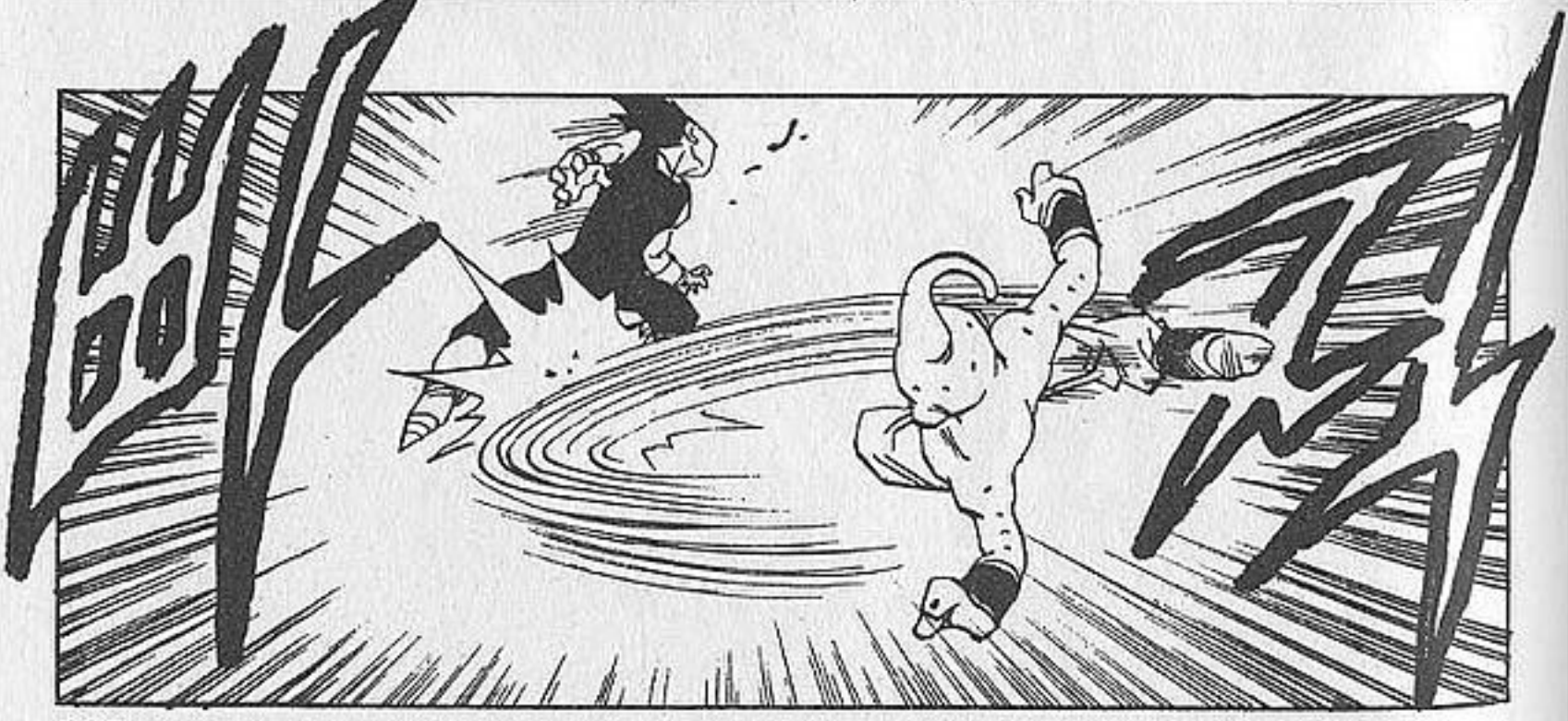

파팟팟
사탄 – !!
사탄 – !!
사탄 – !!
사탄 – !!
사탄 – !!




슈---응




조,
좋아!
잘 나가고
있어!!




조, 좀 더 버텨!
좀 더, 베지터!!
아…!
어억…!!
크헉!
이… 이젠…, 틀렸어!
아직 안 돼!?
아, 아직이야!?
……


성공!!
됐다!!


우와왓—!!


간다—!!
떨어져! 베지터—!!



제516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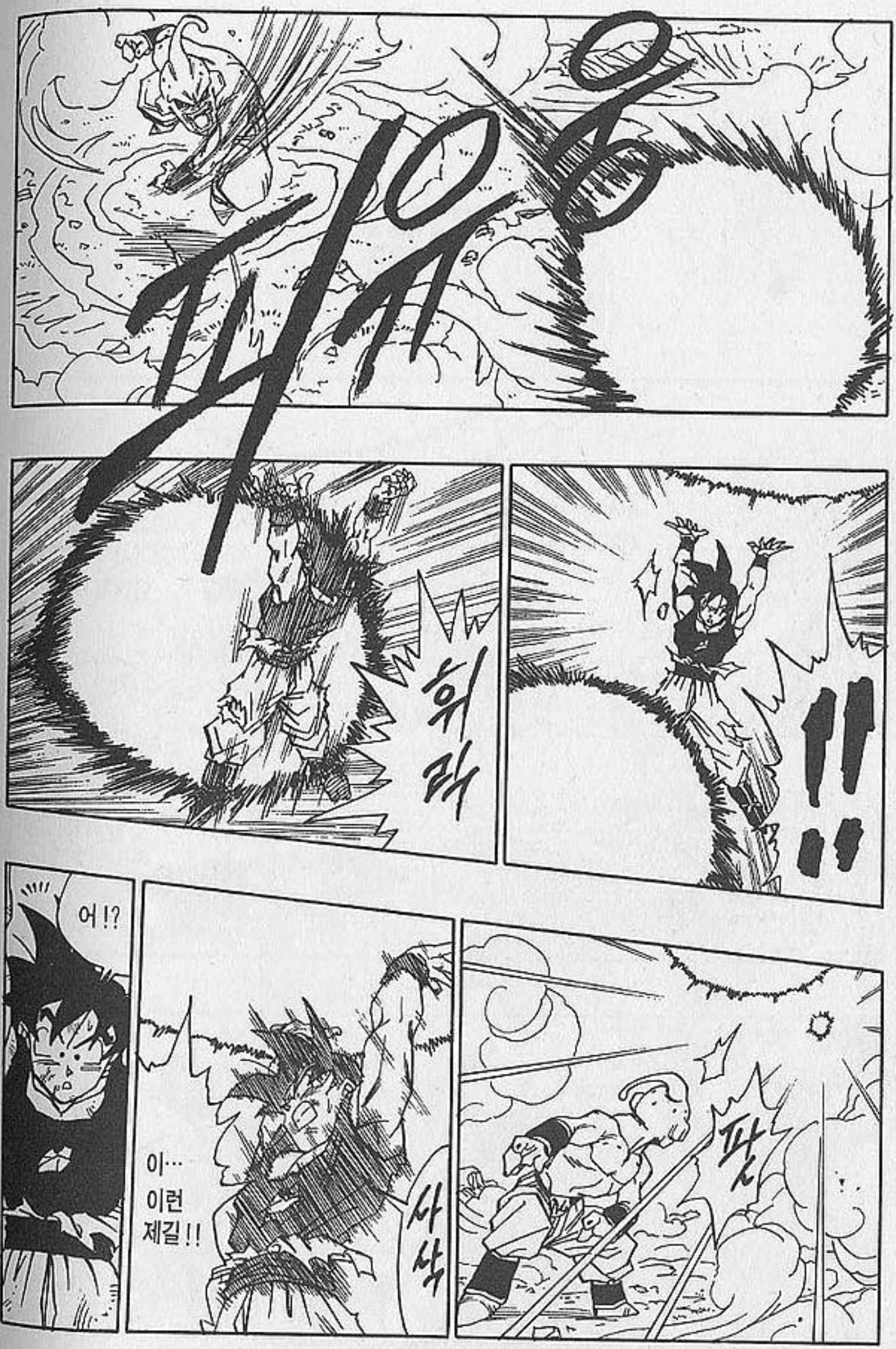
결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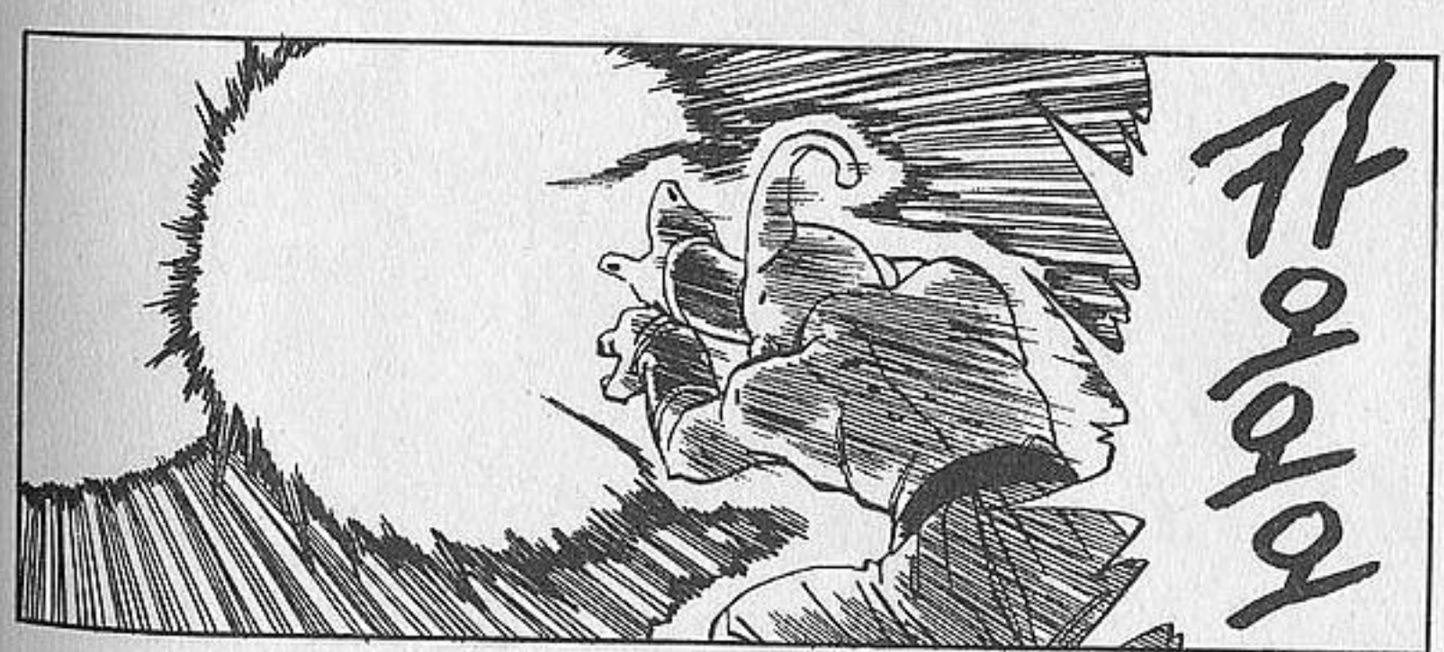





어!?
이…
이런
제길!!


빨리 쏴!!
빨리 놈을 없애란 말야!!
베… 베지터가 없어졌네…!?
크아악
잘했다! 사탄!!
네가 정말 세계의….
구세주다!!


먹고
꺼져
버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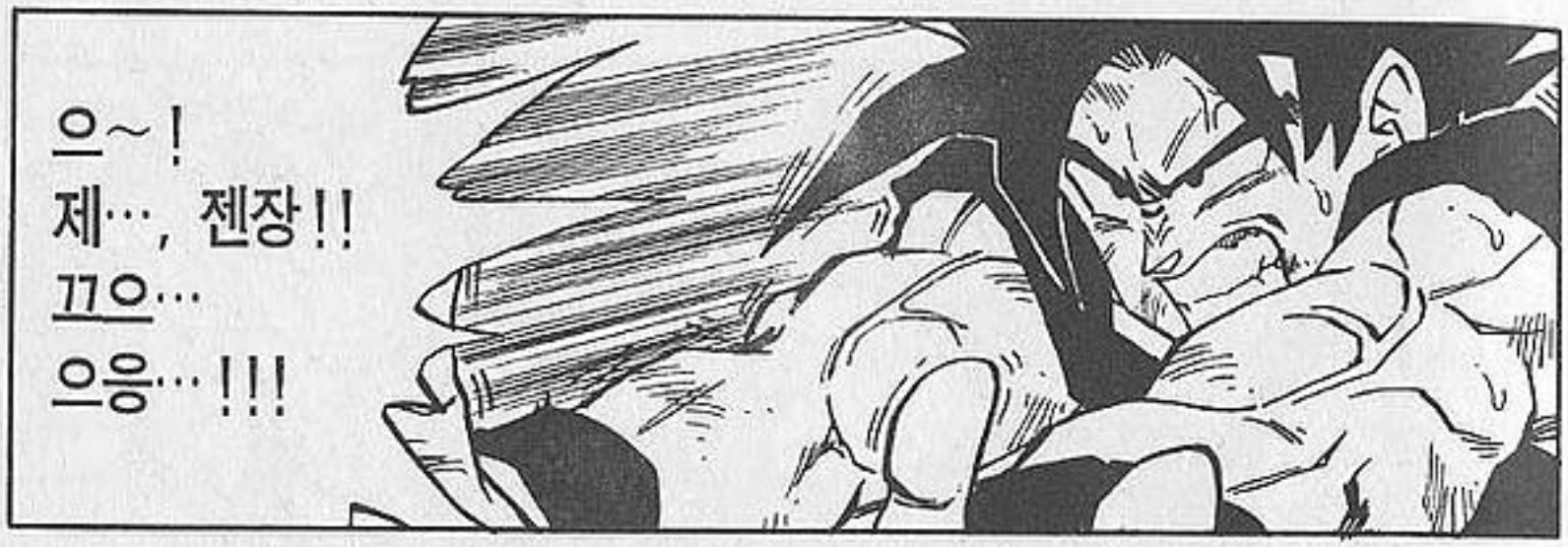

캬오오

!!

가라—!!


비…, 빌어 먹을!!
가… 가라! 어서…!!


카카
카…!!


으~!
제…, 젠장!!
끄으…
으응…!!!


조…
조금
더…!
이… 이런
빌어먹을…!!
조금만 더
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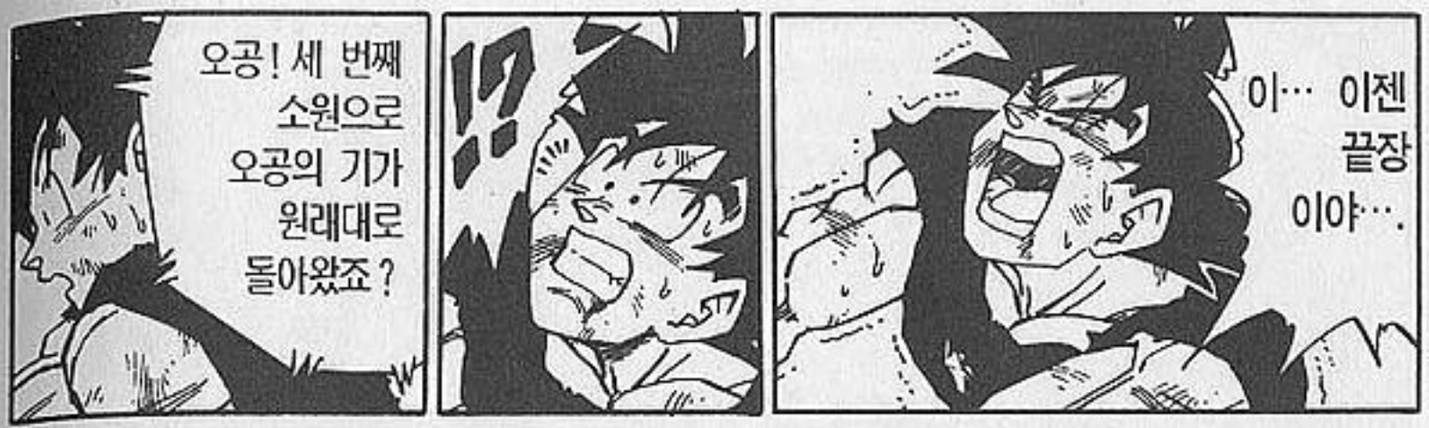



계… 계산이 틀렸다…!
저 중요한 원기옥을 쏘는 카카로트에게…, 체력이…. 체력이 부족해…!
뭐…!?




크…, 큰일났다! 호, 혹시 저 원기옥이란 것에 아직 파워가 부족한 건지도 몰라….
그… 그럴 리가! 이미 우리 기도 다 써 버렸는데….
히…, 힘내라! 손오공…!
헉
헉
헉
헉
그… 그 원기옥에는 우리들 저승세계의 파워도 담겨있다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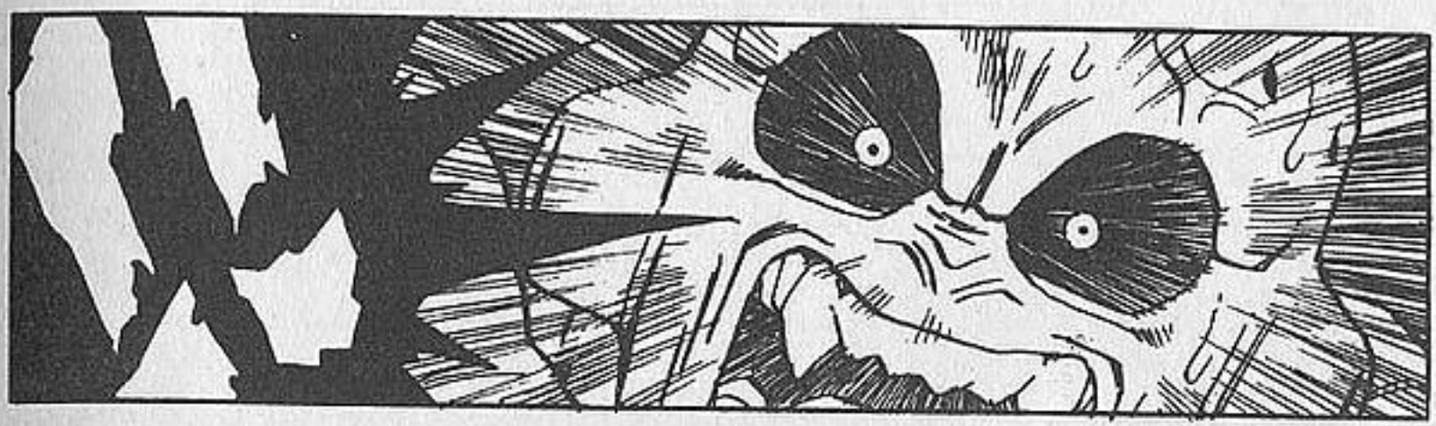

미… 미안해…! 지금은 체력이 완전 소모돼버려서…. 회복할 때까지 순간이동은 무리야….
계… 계왕신님! 저, 저를 오공이 있는 곳까지 데려가주세요! 조금이라도 체력을 회복시켜 주면….
그래, 그거야! 용신님! 지, 지금 계왕신계에서 마인 부우와 싸우고 있는 손오공이란 사람의 체력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나요!?
야-! 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니?
마지막 소원은 아직 멀었냐? 아니면, 나 그냥 간다~!?
잘 됐다! 빠, 빨리 부탁해요!!
그자의 체력을 평소대로 회복시키는 건 가능하다.
!!


이… 이젠 끝장이야….
!?
오공! 세 번째 소원으로 오공의 기가 원래대로 돌아왔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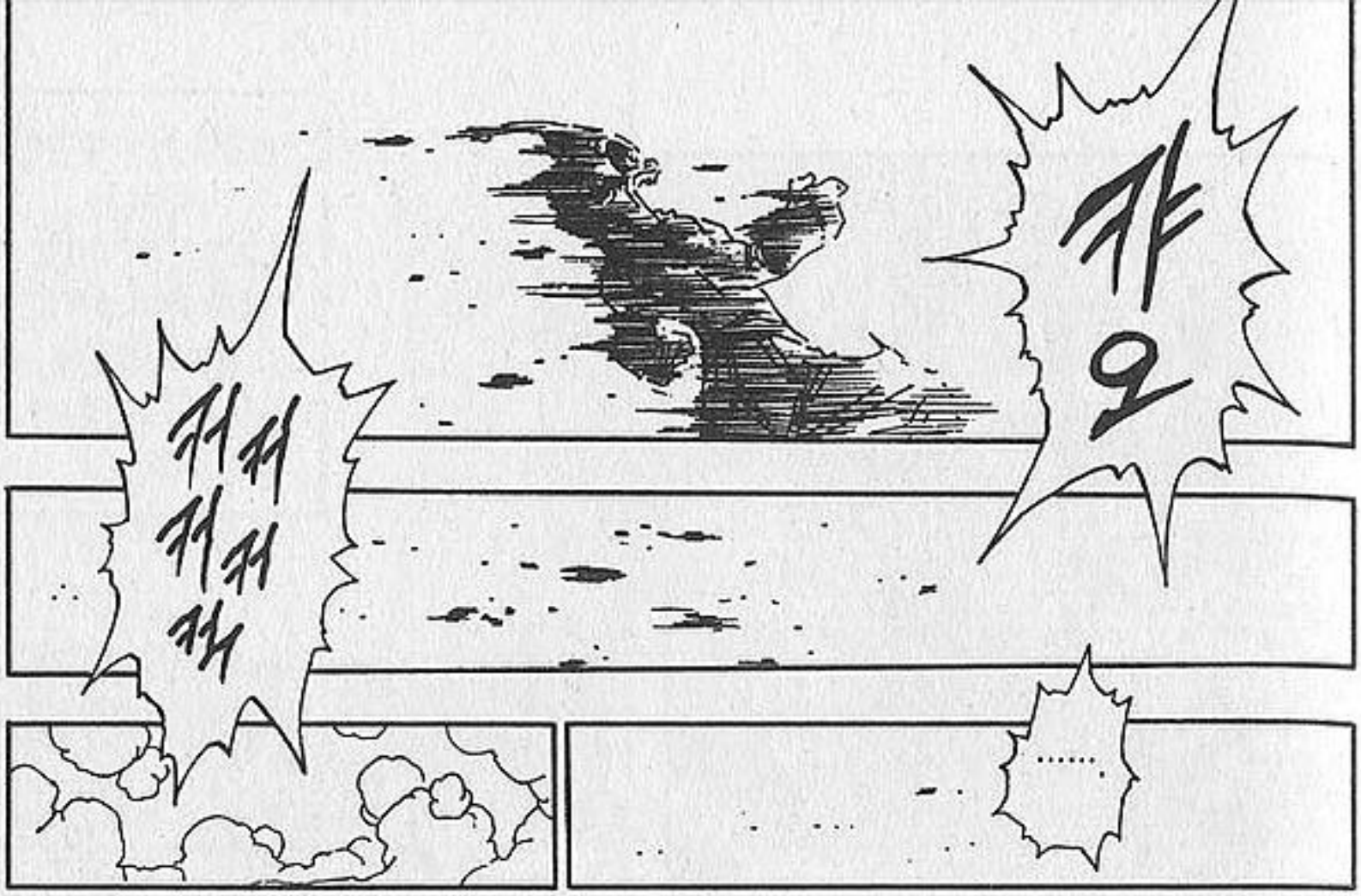

그, 그래! 돌아왔어-!!
고맙다! 드래곤 볼!!


!?
쿵
그럼, 안녕!
넌 정말 대단한 놈이야…. 그 동안 혼자서 수고 많았다….
다음번엔 착하게 환생해라…. 그럼 1대1의 승부를 해주마…. 기다리겠다…, 나도 더욱 실력을 키우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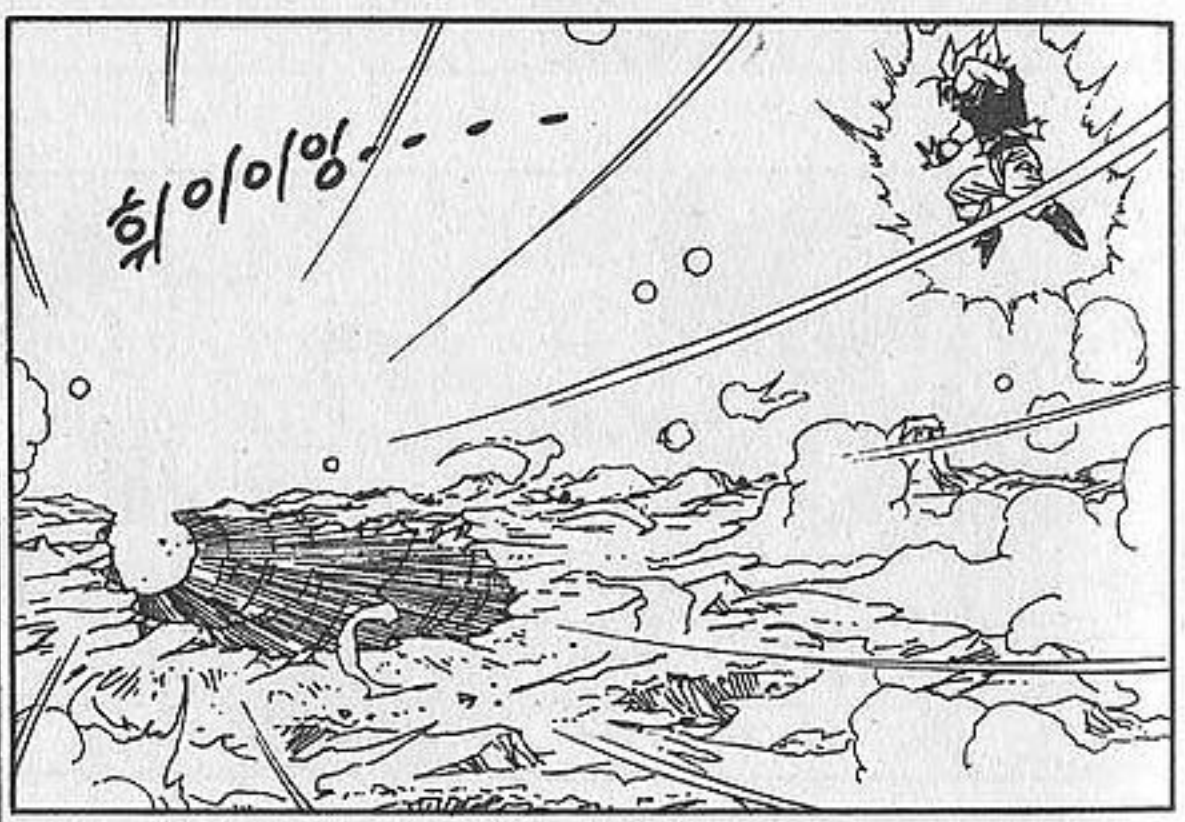

하앗!!















다음은, 제517화 대단원, 그리고…

마침내 마인 부우는
사라졌다….
그건 문자 그대로
세포 하나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사라진 것이다…!

성공이야!!

해냈다!
해냈어!!

어…
어때요?

음…,
그럭저럭
해치운 것
같군….

마인
부우의
기는
완전히
소멸했어….

만세!!

정말 이긴
거야…?

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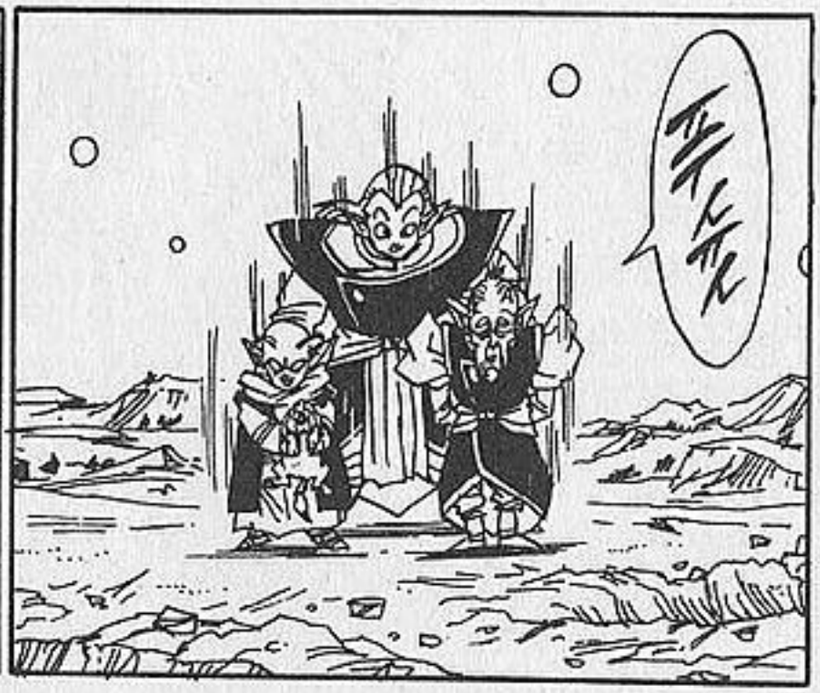
끄…,
끝낸 거니?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공포의
마인 부우는
방금 죽었다!
이젠 안심해라!
드디어
공포로부터
해방되었단다!!
지구인들아!
난 격투기
세계챔피언
미스터
사탄이다!


사탄!
사탄!!
사탄!
사탄!!
사탄!
사탄!!
우와아!!


역시
오공과
베지터야!
어쨌든
이겼다!!
아빤 정말
못말려….
FIGHT


오공!!
멍멍
와~! 이제 괜찮니!?


쓱쓱


베지터의 상처를 먼저 치료해줘. 저 녀석, 많이 지쳤거든.
아, 예!


휴우~! 이 소중한 계왕신계를 이렇게 쑥밭으로 만들어 버리다니….


응!?
끼이이


이, 이봐!
어디 가니, 멍멍아?
멍멍멍


후우…!

뭐,
뭐야!?

부,
부우!!!

앗!!

비켜!!
내가 녀석의
숨통을
끊어주겠다…!!

농담하지
마!
말도
안 돼!!

그, 그 이상한
파워로
고칠 수
있지…?

아, 아직
살아있어…!
부, 부탁이야!
제발
치료해줘!!

너…, 아직 모르겠나!?
이놈이 다시 그 악질적인
부우놈을 탄생시키면
어쩔 건데!?

지금
죽이는 게
최고야!
알겠니,
이 멍청아?

다음번엔 진짜
지구가 끝장날지
모른다구!

얘, 얘는 그리
나쁜 놈이
아니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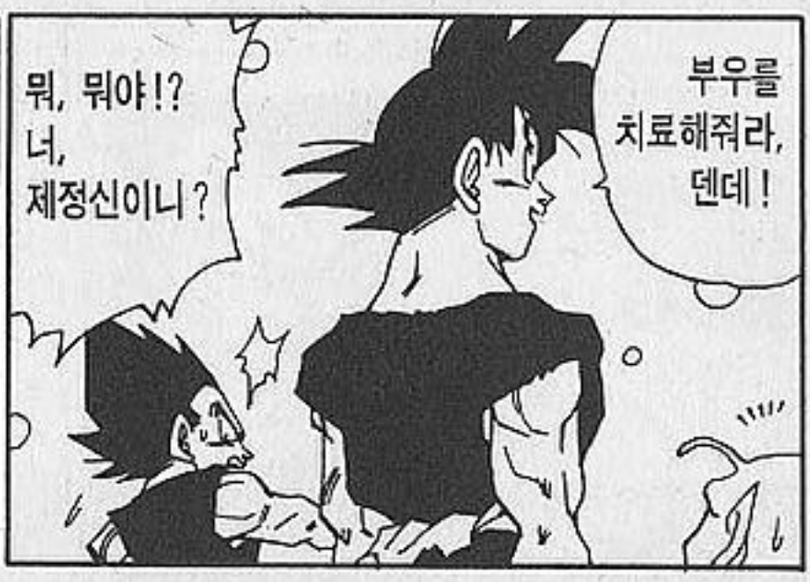
아,
안 돼!
그만둬!

나, 나쁜 놈
명령에
조종 당해
그런 짓을
한 거라구…!!


웃기지 마.
네 힘으로
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보호
라고…!?
얼른 비키지
못해! 너도
함께 죽고 싶냐?


나, 나쁜 놈이 된 건
어떤 바보 같은
자식이 이 강아지를
죽여서 그런
거야!!
부, 부탁해!
이렇게 빌게!!
내가 책임지고
우리집에서
보호할
테니까…!!


그게 좋겠어,
베지터!
이 부우도,
미스터 사탄도
잘 싸워줬잖아.
이 두 사람이
없었으면 우린
모두 죽었을 거야.
그치?


부우를
치료해줘라,
덴데!
뭐, 뭐야!?
너,
제정신이니?


지구인들은 모두
부우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는데….
하… 하지만
지구에서 함께
사는 것은 좀
곤란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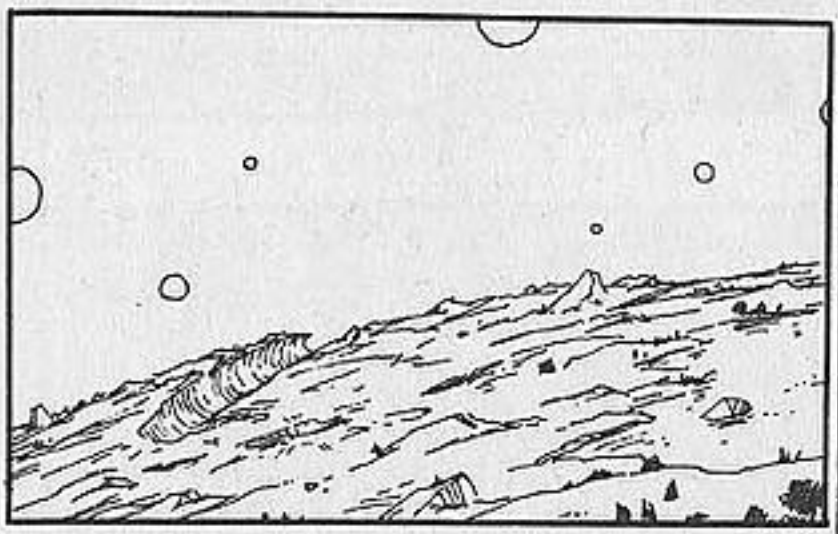

그리고…, 만일 그런
일이 생기면
또 싸우지 뭐.
다음엔 1대1로 싸워도
지지 않게
수행하지구.
……


드래곤 볼이
부활할 테니까
용신한테 부탁해서
지구인들의 기억
속에서 부우를
지우면 되잖아!
그거야…,
부우가
앞으로
반 년 정도
밖에만
안 나오면….


정말
고맙다!!
고,
고마워…!


맘대로
해…!
어떻게 되든
난 몰라.
쳇…!


또 드래곤
볼이야…!
이런,
이런!
휴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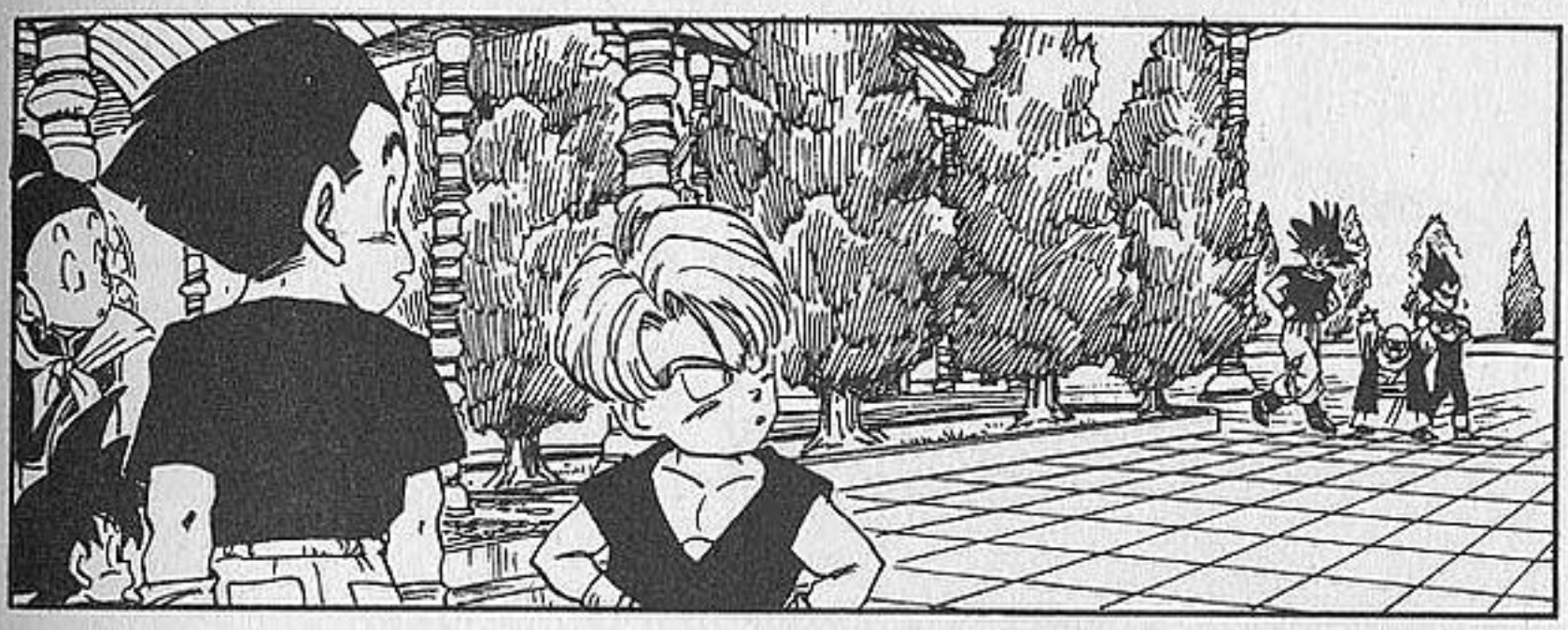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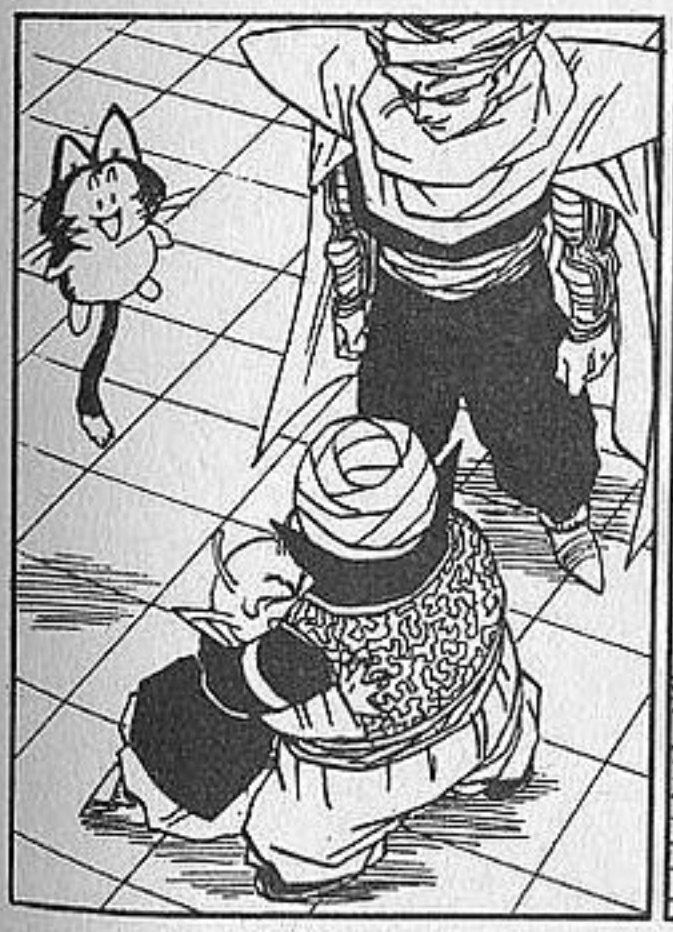

자, 부우가
정신을 차리면
함께 지구로
돌아가자!!
맘껏 먹고
실컷 잠이나
자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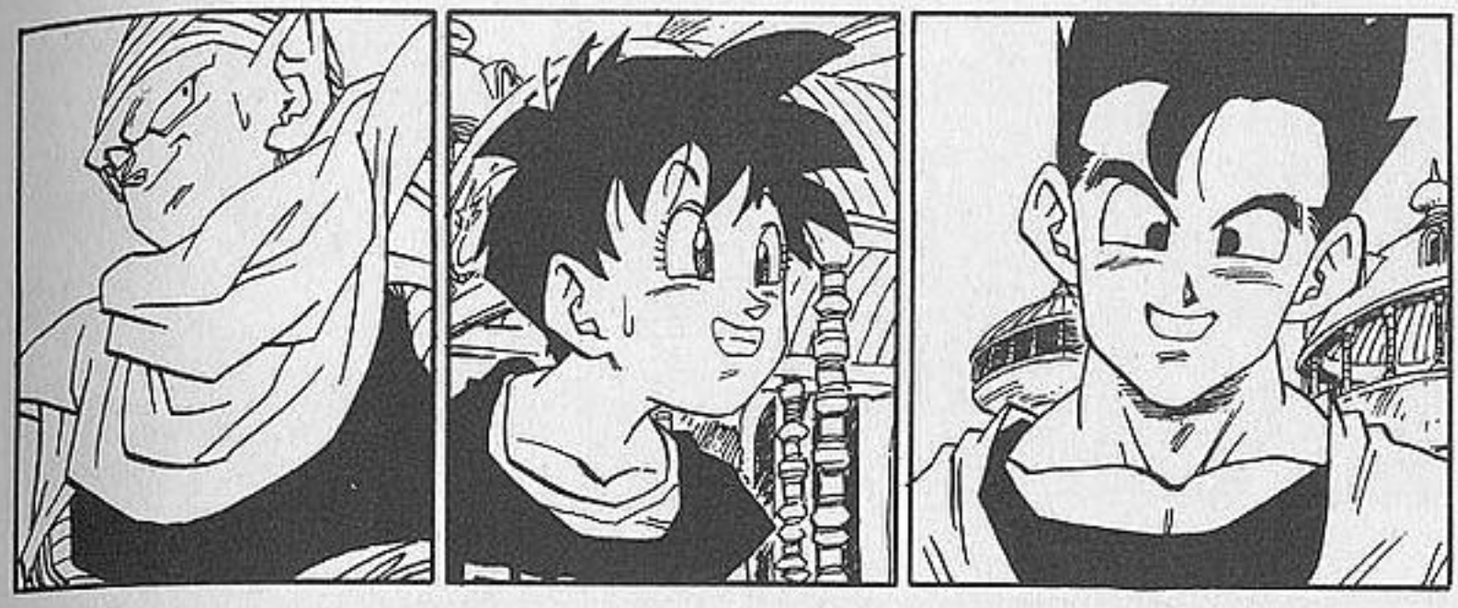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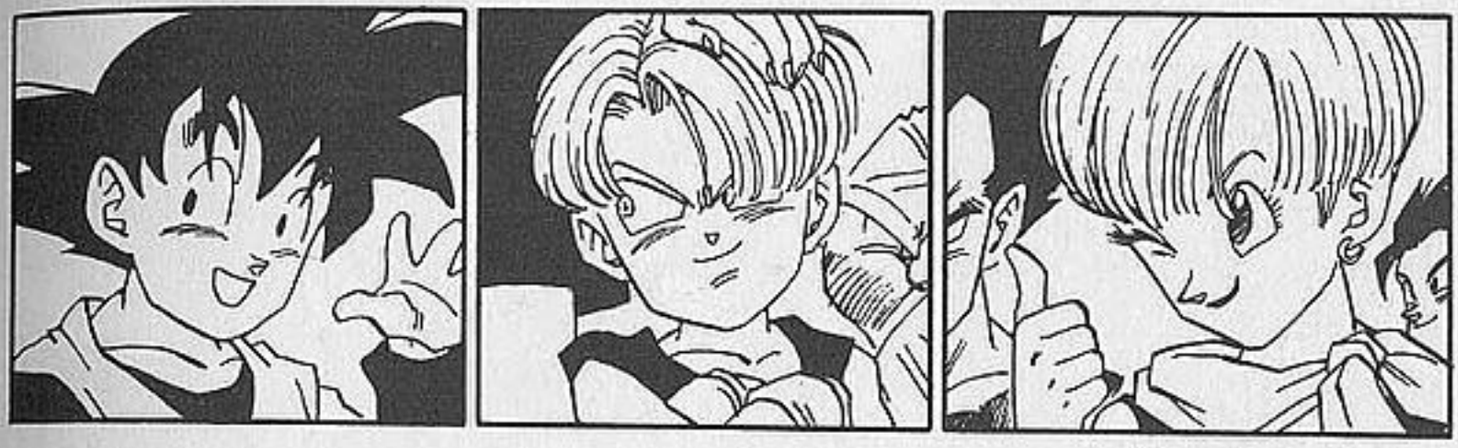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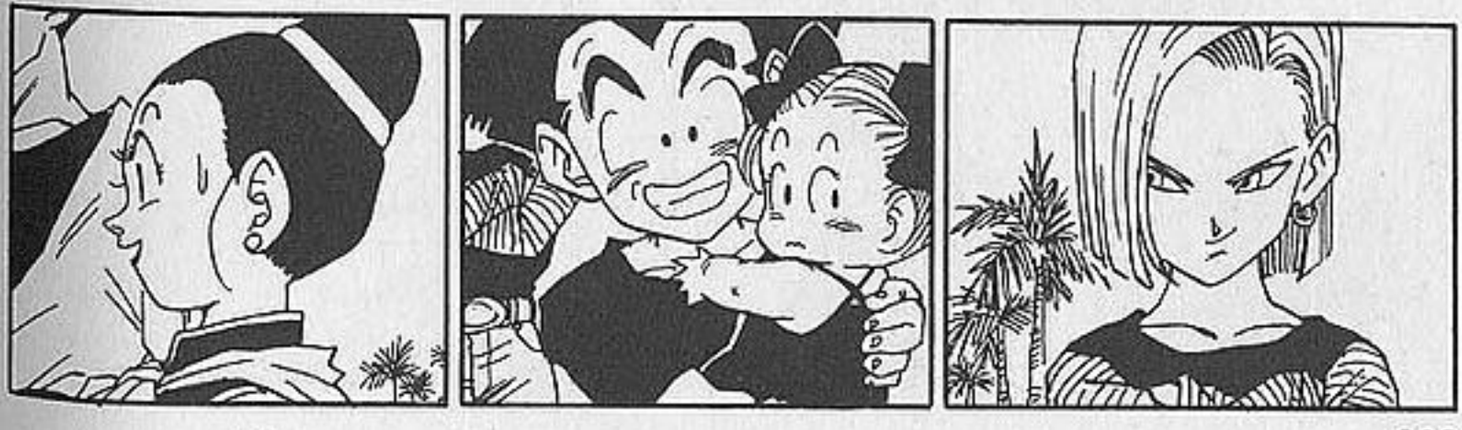

FIG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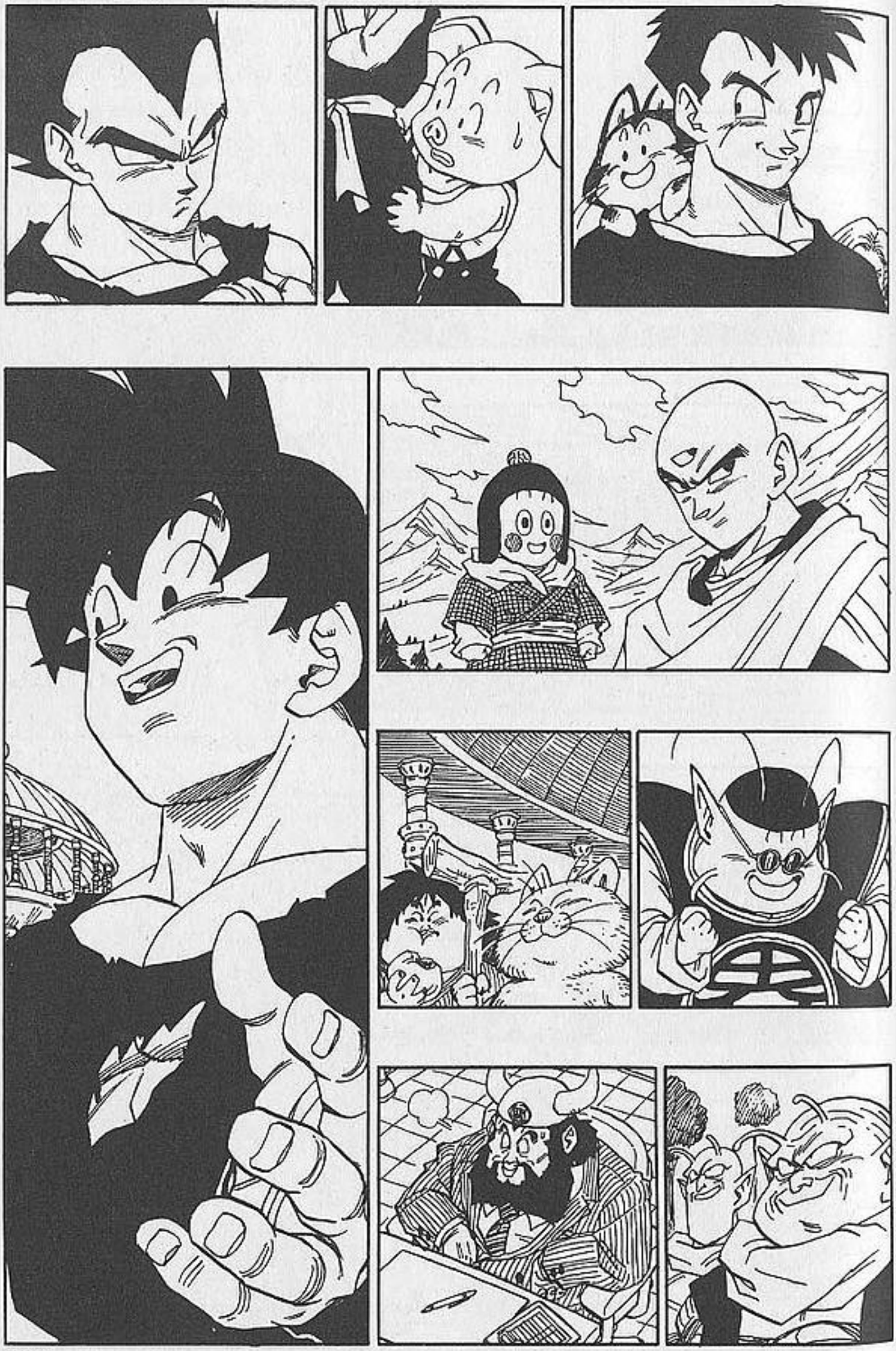












그리고…,
그로부터 또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위이이이잉‥

예상대로 미스터 사탄은
또 다시 지구를 구한 울트라 슈퍼
히어로가 되어버렸다….
반 년 후, 약속대로 관련자 이외의
사람들이 가졌던 부우에 대한 기억은
지워졌지만, 사탄이 뭔가로부터
세상을 구했다는 기억만은 모두의
가슴 속에 남아 그를 진정한 영웅으로
생각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

안 되겠어.
역시 이런 건
너무 따분
하다니까.

쳇…!

위이이‥잉


파앙
파밧
뉴우우웅
터억
톡톡
아, 고마워. 오반!
어서 와!
오천 있어?
뒷산에서 아버지와 수행 중이야.
베지터 아저씨와 부르마 아줌마도 함께 있어.
엥!? 아빠, 엄마도 와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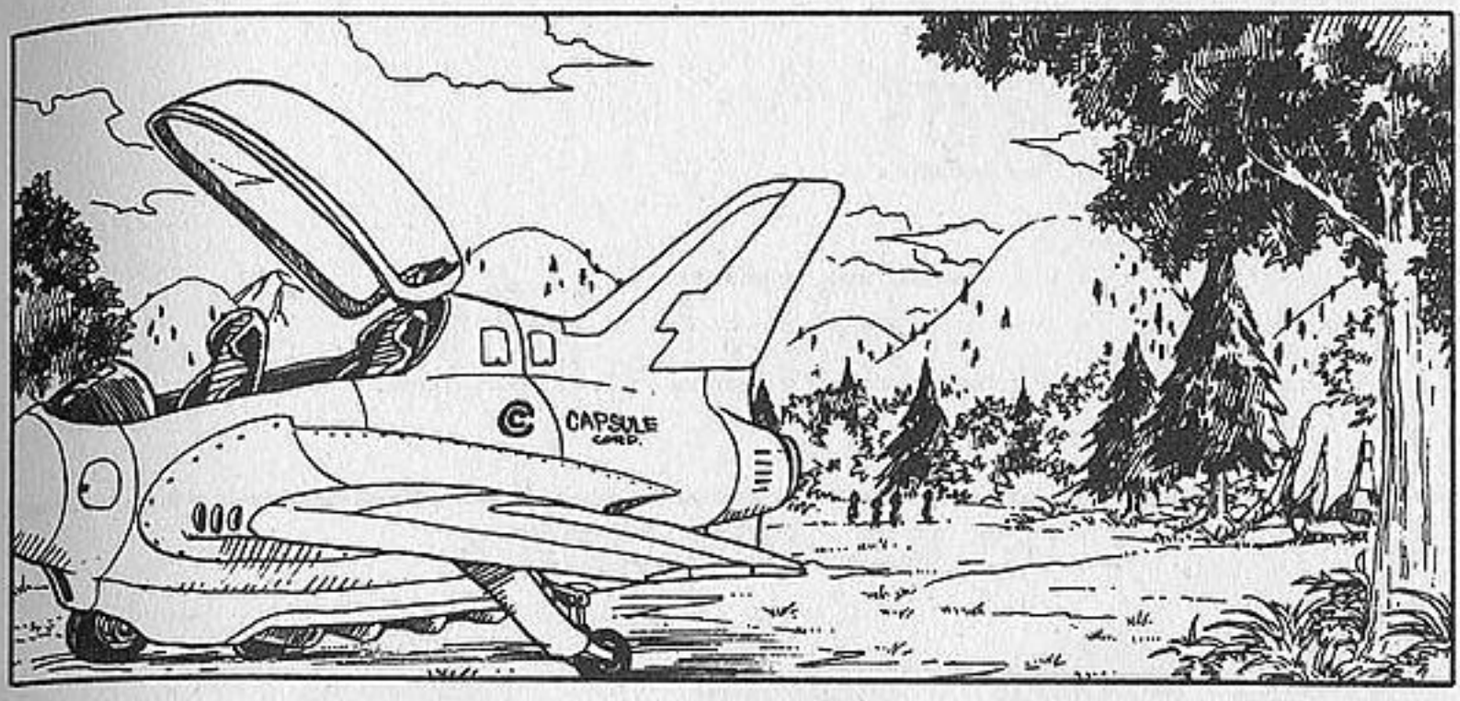


제518화

그리고 10년 후

★10년 후의 캐릭터 대조표★




CAPSULE CORP.


오래간만
좋아하시네!
증말 징그러.
넌 그냥 두면
우리 만나러
영원히 안 올
사람이라니까!
옛날부터
그런
사람이었으니.
야,
오래간
만이야!
헉!
헉!
허억!
허억!
허억!
TEN SHIN HAN


이래봬도
어딜 가나 항상
젊은 언니로
통한다구!
너희들
사이어인들은
괴물이야, 괴물!
시끄러!
하하!
그건 그렇고,
넌 완전히
아줌만데!


무슨 소리야.
5년 정도 전에도
만났었잖아.
5년이야, 5년!
모두가 모일 때도
너만 수행이란
핑계를 대고
빠졌잖아!


다음에
용신한테
점게
해달라고
부탁이나
할까.
흥!
우리 사이어인은
전투민족이다.
싸우기 위해서
젊은 시절이
길다구.

왜 이번엔 갑자기 나갈 생각을 한 거지…?

왜…?

그래, 나가! 오늘 결심했어.

베지터, 너도 나가라!

카카로트! 너, 내일 열리는 천하제일 무술대회에 출전한다는 게 사실이나?

그 정도로 강한 기는 못느꼈는데….

뭐야!?

계속 마음에 걸렸었는데, 그 녀석이 드디어 오늘 아침 무술대회장에 나타났어.

굉장한 놈이 나오니까!

그건 지금은 기를 완전히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어쩐지 알 수 있어. 그놈은 굉장히 강하단 말야….

홍. 농담이겠지? 그런 놈이 있을 리 없어….

혹시…, 우주인인가!?

아니…, 지구인이야.

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

아! 트랭크스!

퍽

아버지가 나가라고 해서…. 싫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뭐야, 오천! 수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도 출전할 거야?

응!

어라? 너까지 왔나!

우리 서로 나약한 아이들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흥!

하하. 맞는 얘기야. 평화의 시대니까.

데이트 따윈 언제라도 할 수 있잖아.

야, 불평 그만 해!

내일은 데이트 약속이 있는데.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왔어!

할아버지!

탁

아! 팡!

피—융

GOTEN SON

분명 지금의 무술대회는 아동 부문이 없어졌을 텐데!? 어른들이랑 같이 시합하려고!?

뭐!?

으, 그래!

GOTEN 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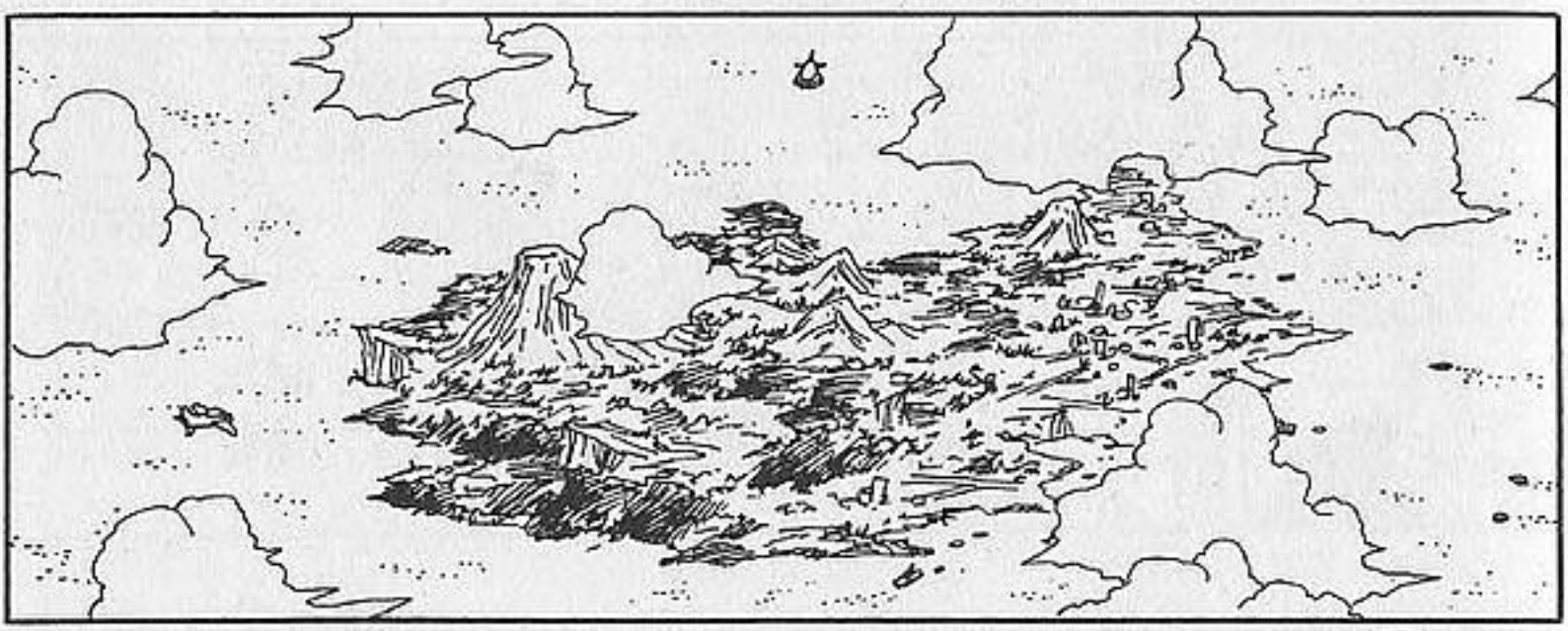
설마…, 팡도 무술대회에 참가할 셈이냐?

잘했다! 굉장히 빠른데.

좋아.


엑— !?
트랭크스, 너도 나가라.
명령이다!
아님 용돈을 반으로
줄여버릴 거야….
재밌을 것
같네….
나도 나갈까…?
하하!
잘한다,
잘해.


지금
우리들 중
가장
끈기있는
애는
얘라구!
우승은
무리겠지만,
분명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맞아!!




응성
응성
시끌
시끌
天下一武道会
SATAN
SATAN
SATAN

부우 씨가 도전자 중에서 챔피언이 된 다음, 슈퍼 챔피언인 저랑 싸워 져버리는 식으로….

이번에도 똑같은 작전으로 갑시다.

으!

으?

똑똑

그래, 알았어.

꼬~깍

꼬~깍

평소처럼 다른 도전자랑 싸울 때는 최대한 힘을 빼요. 너무 강하면 다음부턴 도전자가 없을 테니까요!

할아버지 응원하러 일부러 왔니!?

이런, 이런! 내 귀여운 팡까지 왔구나!

오공!!

오! 어서 와!

안녕!


!!
당연한 얘기지만, 모두 예선 통과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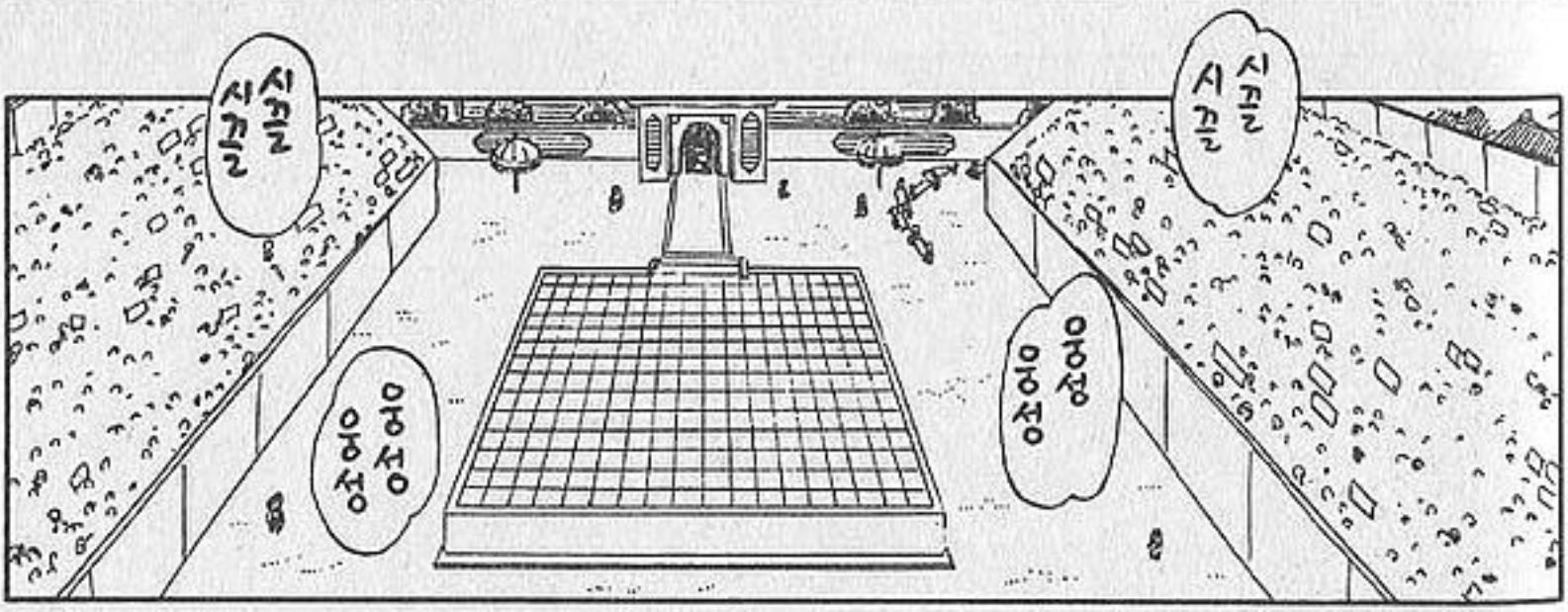

뭐!?
나도 시합 나갈 거야!
오공 할아버지도, 오천도, 트랭크스도, 베지터 할아버지도 나가!


저, 정말!? 진짜지!?
걱정마! 우리 중 누가 남더라도 너한테 우승을 시켜줄 테니.




오~! 그, 그래!? 하하! 진작 말하지 그랬어!
저, 사탄! 모두 대회장에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그러니 자리 좀 마련해 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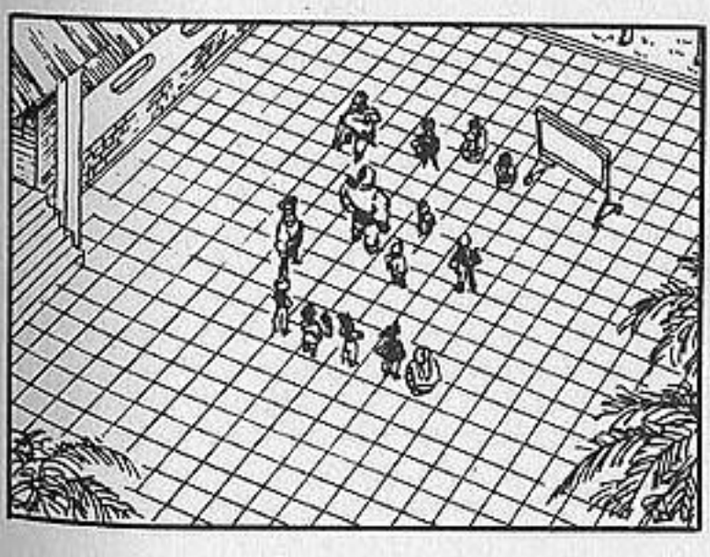

하하하! 또, 또~. 설마 그럴리가 있을까~!
하지만…, 우리들이나 부우 이외의 누군가가 이길지도 모르지.


시끌시끌
웅성웅성
시끌시끌
웅성웅성


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출전할걸….
아빤 못말려….
확실히 여긴 잘 보이긴 한데….


살았다!
좋은 자리가 있었잖아!
됐다!


예선을 통과한 선수는 모두 모여주세요.
자, 그러면 제비뽑기로 대전순서를 정할 테니….




시끌 시끌
웅성 웅성
쪽팔려…!
빌어먹을! 바꿔달라고 하자…!
우리가 동물원 원숭인가…!!

에-,
본선 진출 선수는
12명입니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시합을
실시하겠습니다.

최후까지 남은
선수가 슈퍼
챔피언인 미스터
사탄과 싸워 우승을
결정합니다.

글쎄…,
이상하게 생긴
놈은
많아도….

야,
이 중에서
정말 굉장한 놈이
있는 거야?

부우,
제비의 번호를
바꿔치기해라!
마법으로
할 수 있지?

뭐?

미스터 사탄도
제비를 뽑던 시절에는
네가 바꿔치기
했잖아!
부탁한다.

그래,
알았어.

어떤 놈이지,
카카로트…?
가르쳐줘.

헤헤….
너도
궁금하구나.

그럼…, 이름이
불린 선수부터
제비를
뽑아주세요!

《본선 진출 선수명단》



베지터



손오공



미스터 부우 (마인 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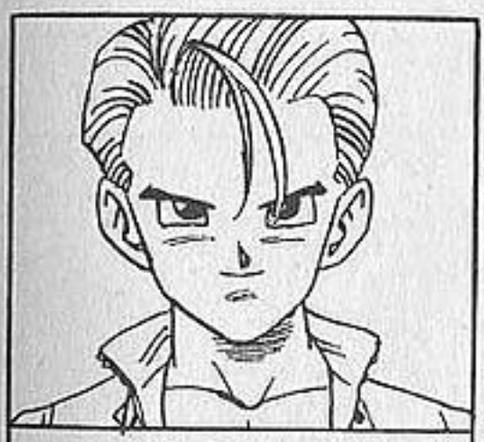
트랭크스



팡



손오천



키라노



맹혈호



우부



캡틴 치킨



노크



오토코스키


어쩔 셈이야 …?
월 꾸미고 있는 거냐구?
미안…, 난 어떻게든 그놈과 싸우고 싶어.
나와 그 녀석, 둘 다 체력이 100% 상태인 1회전에서….
예! 맹 선수는 2번입니다.
다음은 트랭크스 ….
이봐, 아직 마법을 안 써도 되니?
응….
아직 괜찮아.
힐끔
9 트랭크스
8 손오천
7
6
5 캡틴치킨
4
3
2 앵혈호
1 팡
에, 다음은 손오공 씨.
지금이다! 부우, 3번으로 부탁해.
그래!
안녕!
오랜만이네, 보고 싶었어요!
예!
손오공 씨, 3번입니다!
다음은…, 키라노 씨!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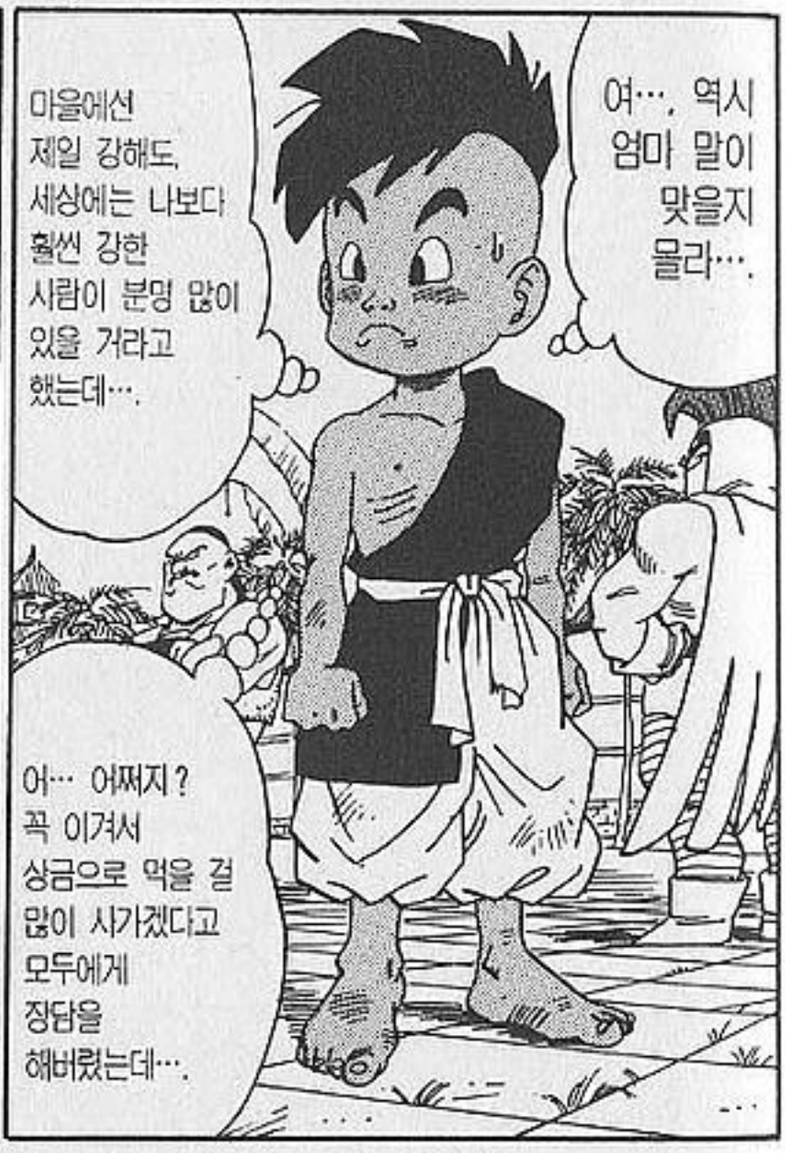


2 맹열호
3 손오공
4
5 캠틴 치킨
6 키라노
7
8 손
…!
저놈이 아닌가…!?
알았어.
쟤는…. 그러니까…, 6번으로 해줘!
그러지, 뭐!
이젠 다음부터 그냥 뒤도 돼!
4번! 저 애를 4번으로 해줘!
예, 예.
자…, 다음은 우부!
무슨 소린지 전혀 모르겠다…. 그만 좀 얘기해봐.
저 녀석이야…. 난 혼자 수행하면서 저 애가 대회에 출전하기를 계속 기다렸어….
뭐… 뭐라고!? 저, 저 녀석!? 저런 어린애가…. 서…, 설마…!
염라대왕 아저씨가 그걸 듣고 소원을 이뤄준 것 같아…!
10년 전…, 난 그 엄청난 악의 화신 마인 부우가 죽을 때 소원을 빌었어…. 다음엔 착한 녀석으로 환생해서 1대1로 붙게 해달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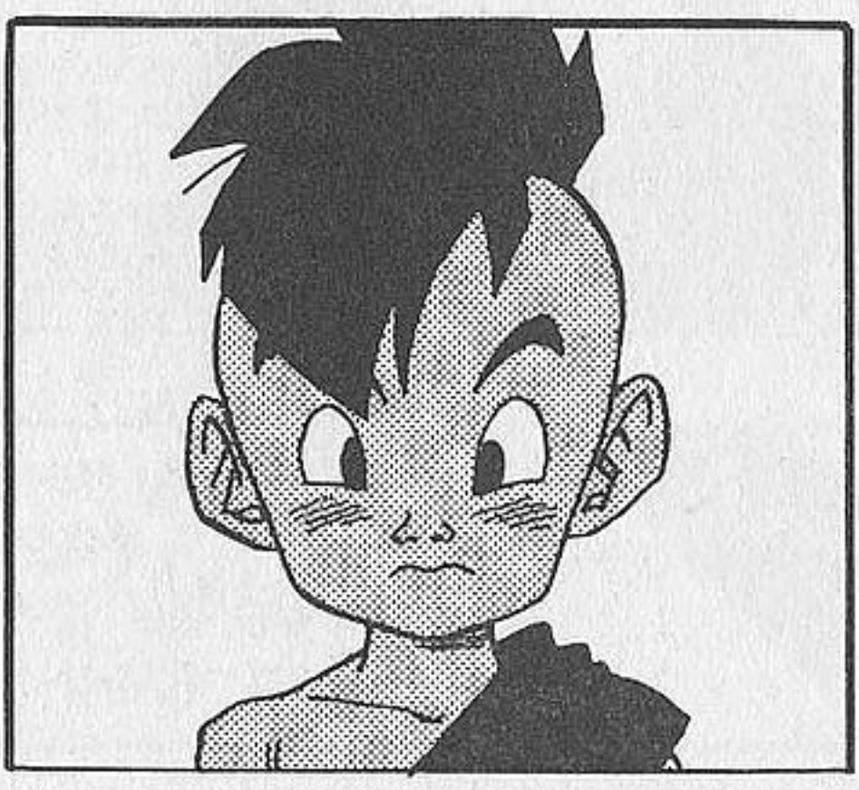




자못!!

●다음회 「드래곤 볼」 제519화에서
중대한 비상사태 발생!!!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너무 기대 말고 기다려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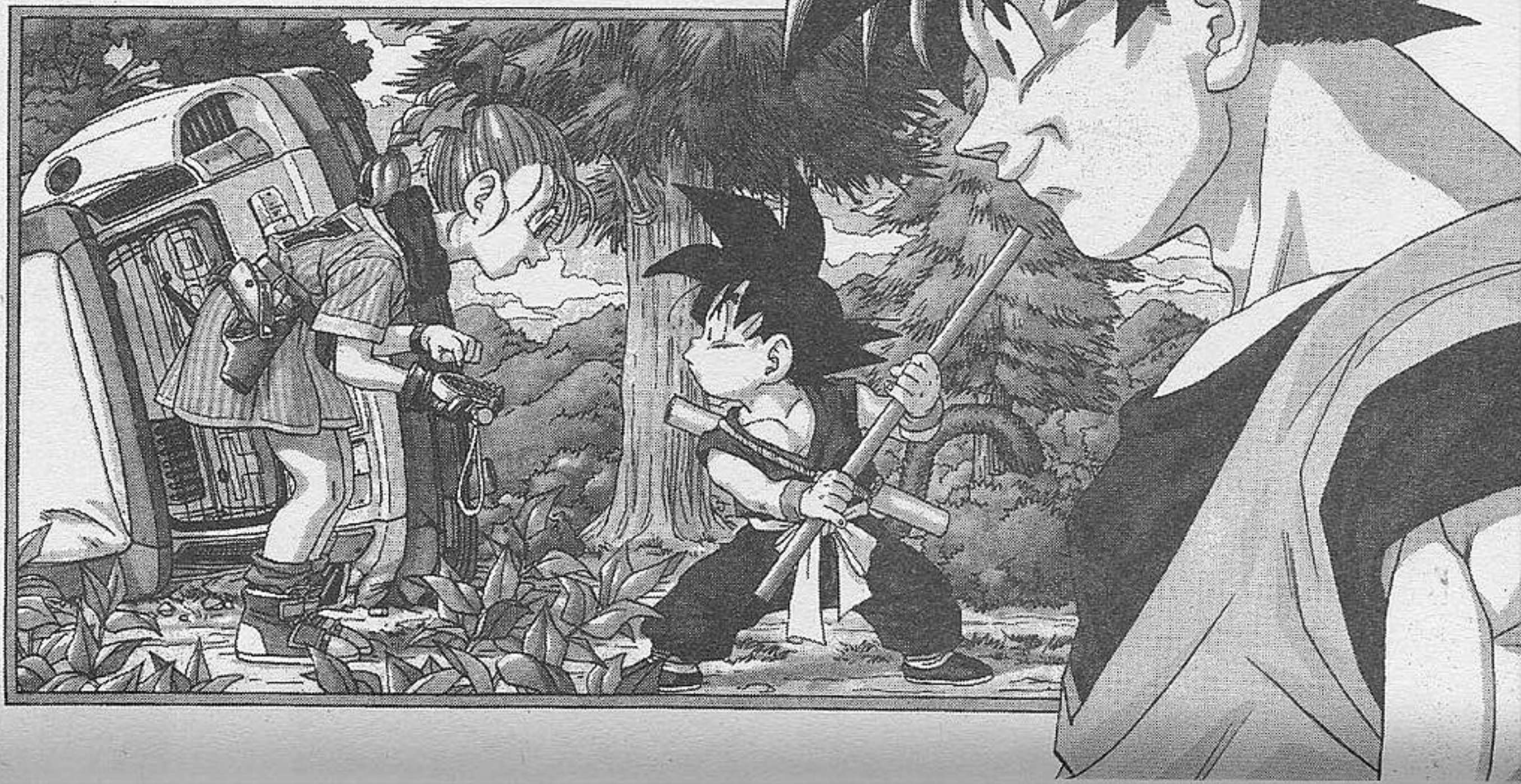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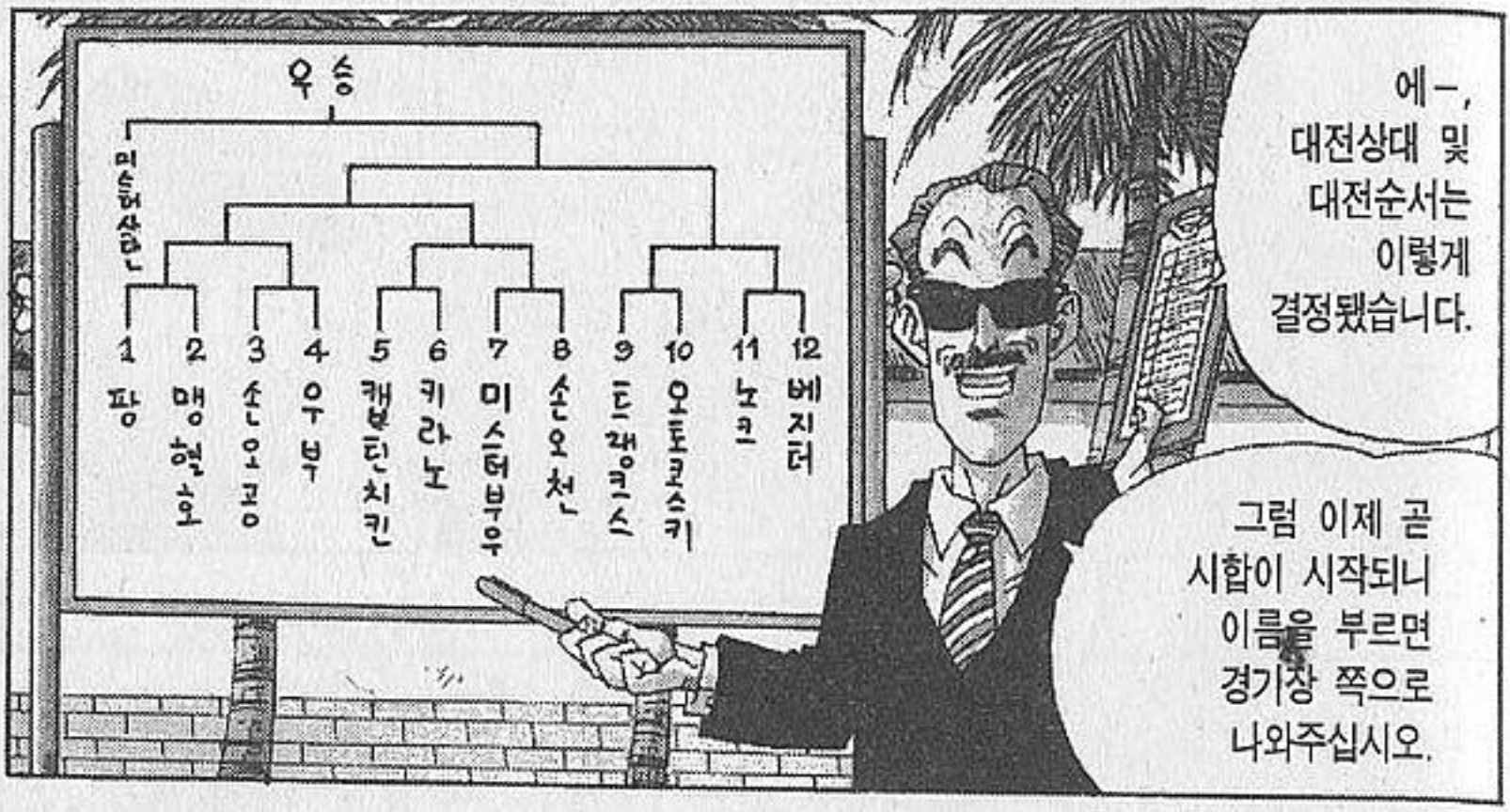
DRAGON BALL

제519화
드래곤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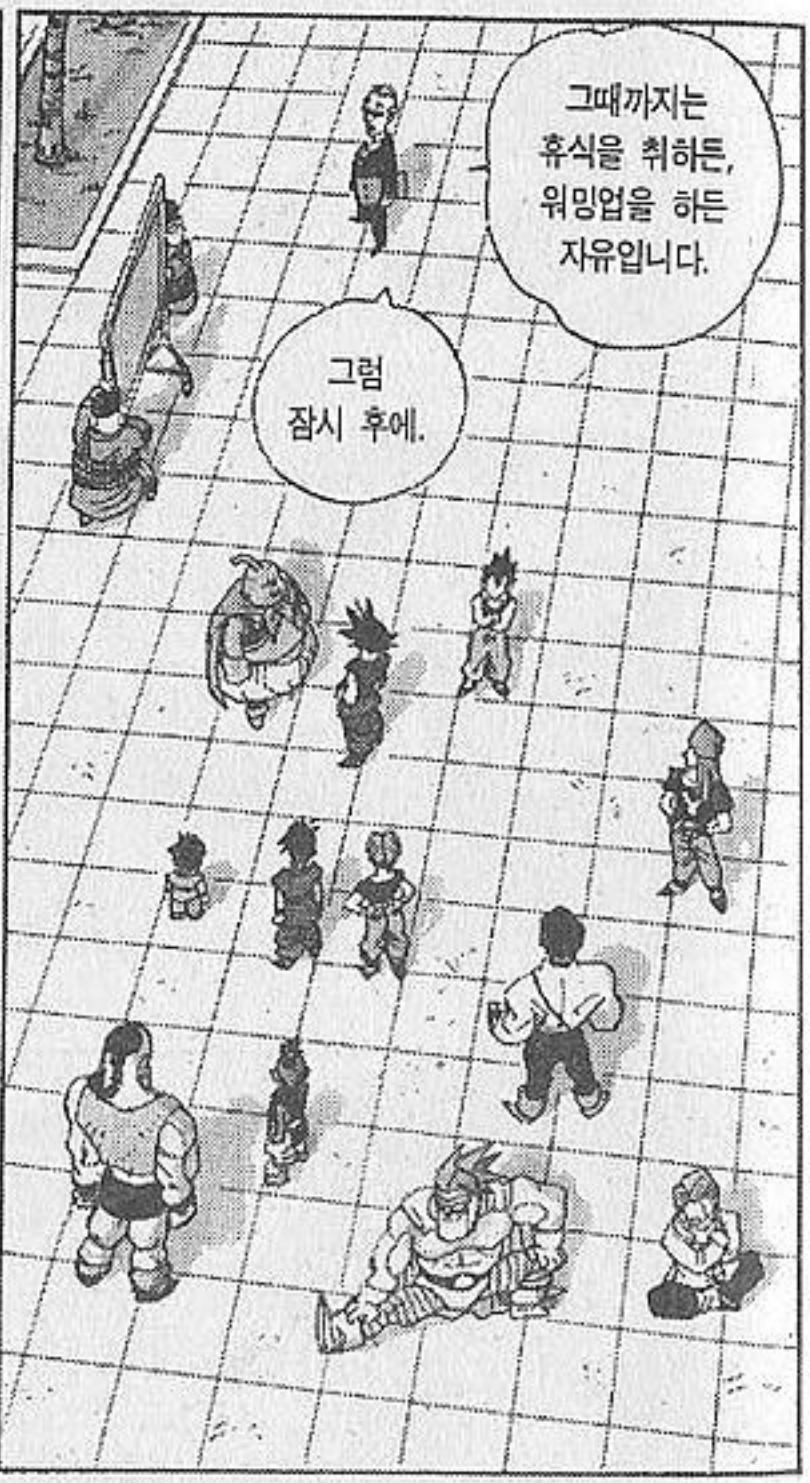


아주 먼 옛날…, 작은 만남에서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는 마침내 현대로 되돌아왔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독자 여러분들 스스로의 눈으로 살짝
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제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마친다….




우승
미스터샤탄
1 팡
2 맹혈호
3 소오공
4 우부
5 캡틴치킨
6 키라노
7 미스터부우
8 손오천
9 드랭크스
10 오토코스키
11 노코
12 베지터
에-, 대전상대 및 대전순서는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그럼 이제 곧 시합이 시작되니 이름을 부르면 경기장 쪽으로 나와주십시오.


1회전에서 갑자기 부우랑 만나다니!!
이거 정말 미칠 노릇이네!
평소 수행을 게을리하니까 그런 꼴을 당하는 거야!


그때까지는 휴식을 취하든, 워밍업을 하든 자유입니다.
그럼 잠시 후에.


내 상대는 요런 햇병아리 꼬마라구! 난 유치원에 소풍은 게 아니란 말야! 빌어먹을!
흥! 울고 싶은 건 바로 나야.

……

잘 됐다~! 완전 내 스타일이네!

으흥~♡ 마음껏 귀여워해 줄 거야!

쳇!

어떻게 요런 놈이 예선을 통과 했지!?

지금 빨리 집에 돌아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라…!

메롱!

우하하 하하!

죽어!

뭘 그리 똥폼 잡고 있어, 못생긴 노인네. 난 대전 상대에게 인사를 해주는 버릇이 있지.

그래! 당신 말야, 당신!

이 봐, 아저씨!

뻐억

누가 좀 전해주게! 한 명 기권이라고.

와—!!

그리고…, 이번에도 상금을 대주시는 분은 미스터 사탄 님이십니다!

사탄! 사탄!

와—!!

마침내 천하제일 무술대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대회 참가자 114명 중에서 선발된 12명이….

武道会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하… 하지만 어림없다. 절대 안 봐줄 거야….

사탄의 손녀라고 …!?

까악! 하하하!!

너무 귀여워! 힘 내!

너무 심하게 하지 마, 맹! 하하하!

이런 제길…!

와!

그럼 빨리 제1시합을 시작합니다!

제1시합은 팡 선수 대 맹혈호 선수입니다! 팡 선수는 놀랍게도 겨우 4살의 천재소녀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바로 미스터 사탄의 손녀라는 걸 알면 모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와아아아아아!

대전할 맹 선수는 지난 대회 준결승에서 아깝게 미스터 부우 선수에게 패한, 키 2m30cm의 막강한 실력자입니다!

흑시 무슨 비리라도 있는 거 아냐!?

글쎄….

근데…, 어떻게 저런 꼬마가 에선 룡과를 했지? 아무리 미스터 사탄 손녀라 해도….

괜…, 괜찮을까…!? 우리 팡…!



하하! 팡부터 시작이네!
팡! 적당히 손금이나 좀 봐줘.
죽이면 안 돼!
그럼 시작해 주십시오!
왁
후우…!
왁
왁
할 수 없군. 그냥 밀어내 버릴까…?
쿠욱
철썩
억…!
억…!
퍽
파밧


퍼억
우와아아~!!
꾸벅
이… 이럴 수가!?
아! 괜찮습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상대가
죽지 않았으므로
팡 선수의
승리입니다!
철썩
다음은
우리
차례다.
응?
아,
예!
다칠
턱이
있나….
다친 데
없어!?
응.
괘…,
괜찮니?
팡!
그럼 제2시합의
대전은 손오공
선수 대 우부
선수입니다!
자, 잘 부탁
드릴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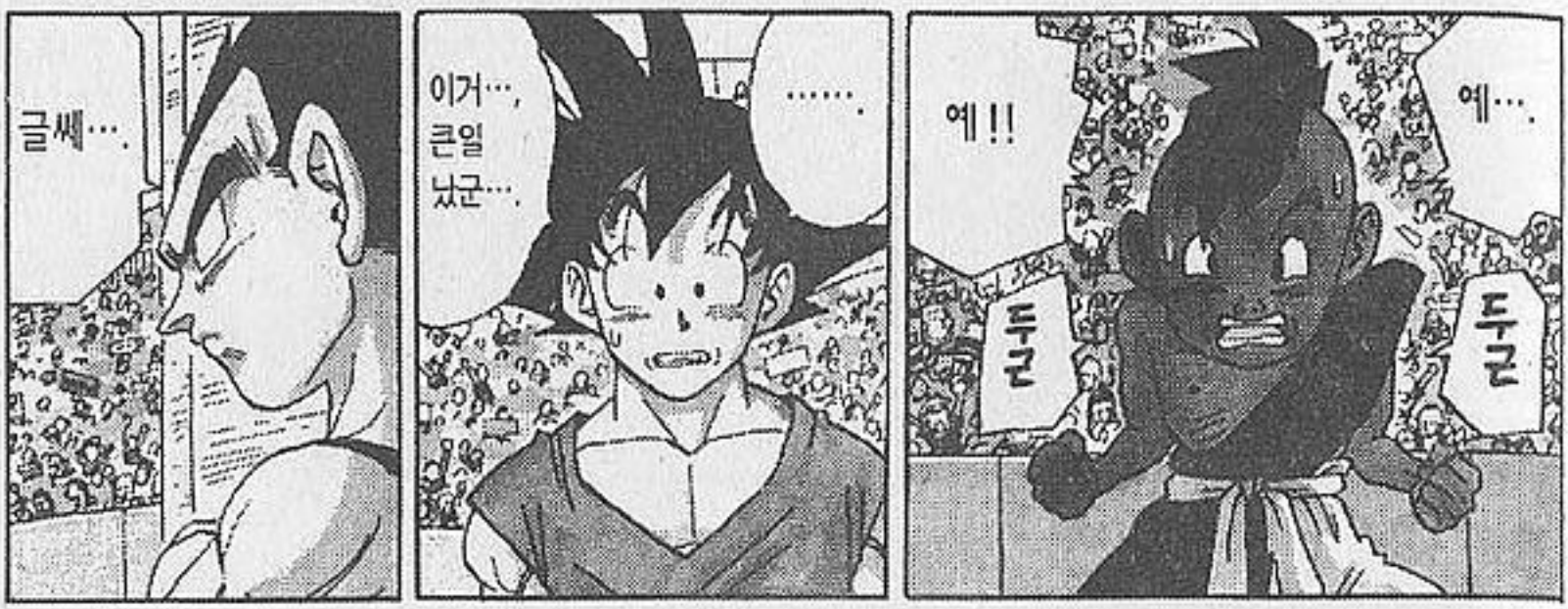

제 개인적 생각으론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 중에서 실력은 최상급에 속합니다! 미스터 사탄의 제1제자인 미스터 부우와의 멋진 한 판 승부가 펼쳐지리라 기대됩니다!
왓 왓 왓
손오공 선수는 과거에 몇번 이 천하제일 무술대회에 출전하여 우승한 경험도 있는 정말 엄청난 실력을 소유한 무술가입니다!


어머나~! 불쌍해라. 그렇게 멀리서 왔는데 상대가 손오공이라니….


덜덜
덜덜
그와 대결할 우부 선수는, 멀리 남쪽 섬에서 올라온 10살 소년입니다!
5형제 중 장남으로, 어린 동생들을 잘 보살피고 있는 소년가장입니다! 이번에 어떻게든 상금을 타기 위해 굳은 결심을 하고 대회에 출전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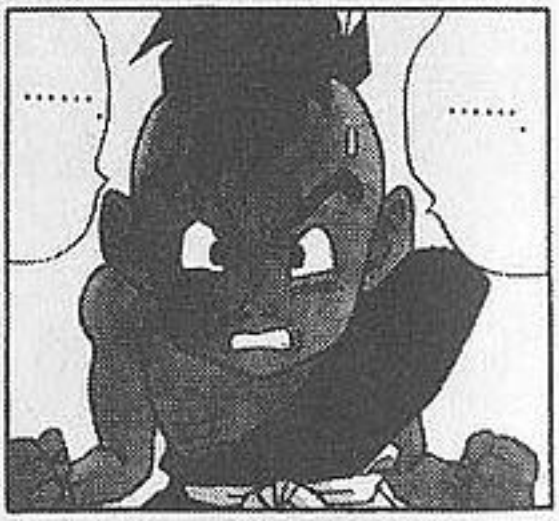

에?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할 시합이다….


왓 왓 왓
제 실력이 안 나오잖아.
너무 긴장 마!
자, 준비 끝입니다! 시합을 시작해 주십시오!
콩닥
콩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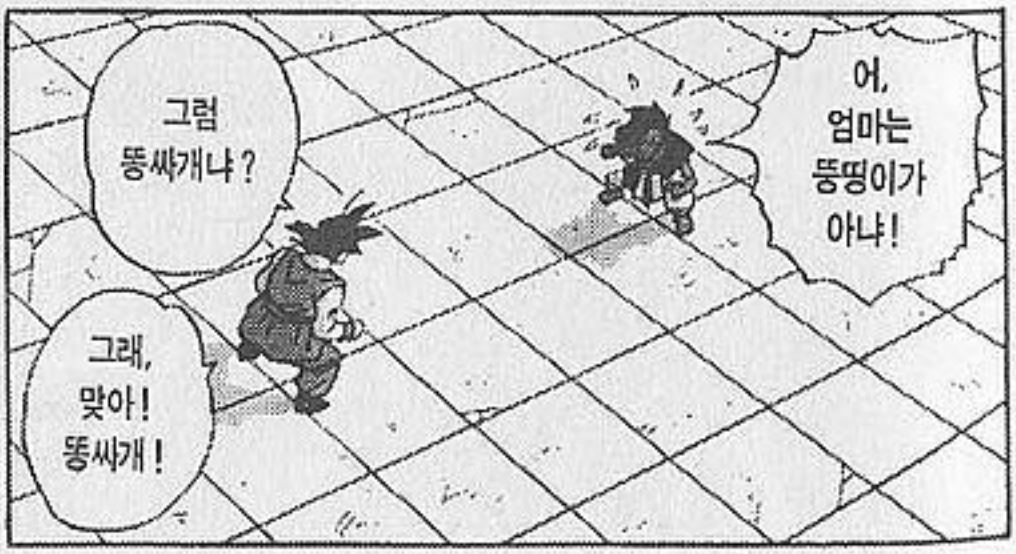

글쎄….
이거…, 큰일 났군….
……
예!!
예….
두근
두근


좀 전엔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착한 사람인 척했지만, 사실 난 엄청 나쁜 놈이야! 너 같은 놈은…. 그러니까…, 싫어죽겠다! 떡을 만들어줄 테야!
야, 임마! 빨리 덤벼! 이 깜씨 촌놈아!
이렇게 되면….
할 수 없지….


뚱띵이 엄마가 기다리고 있겠지!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또…! 완전 박살나서 뼈만 남아 집에 돌아가고 싶냐!?


……
……


…?
뭐 하는 거지? 잡담만 하고 있네….


그럼 뚱싸개냐?
그래, 맞아! 뚱싸개!
어, 엄마는 뚱띵이가 아냐!

네
아빠도
….

됐어!
끝으로
…!

뚱싸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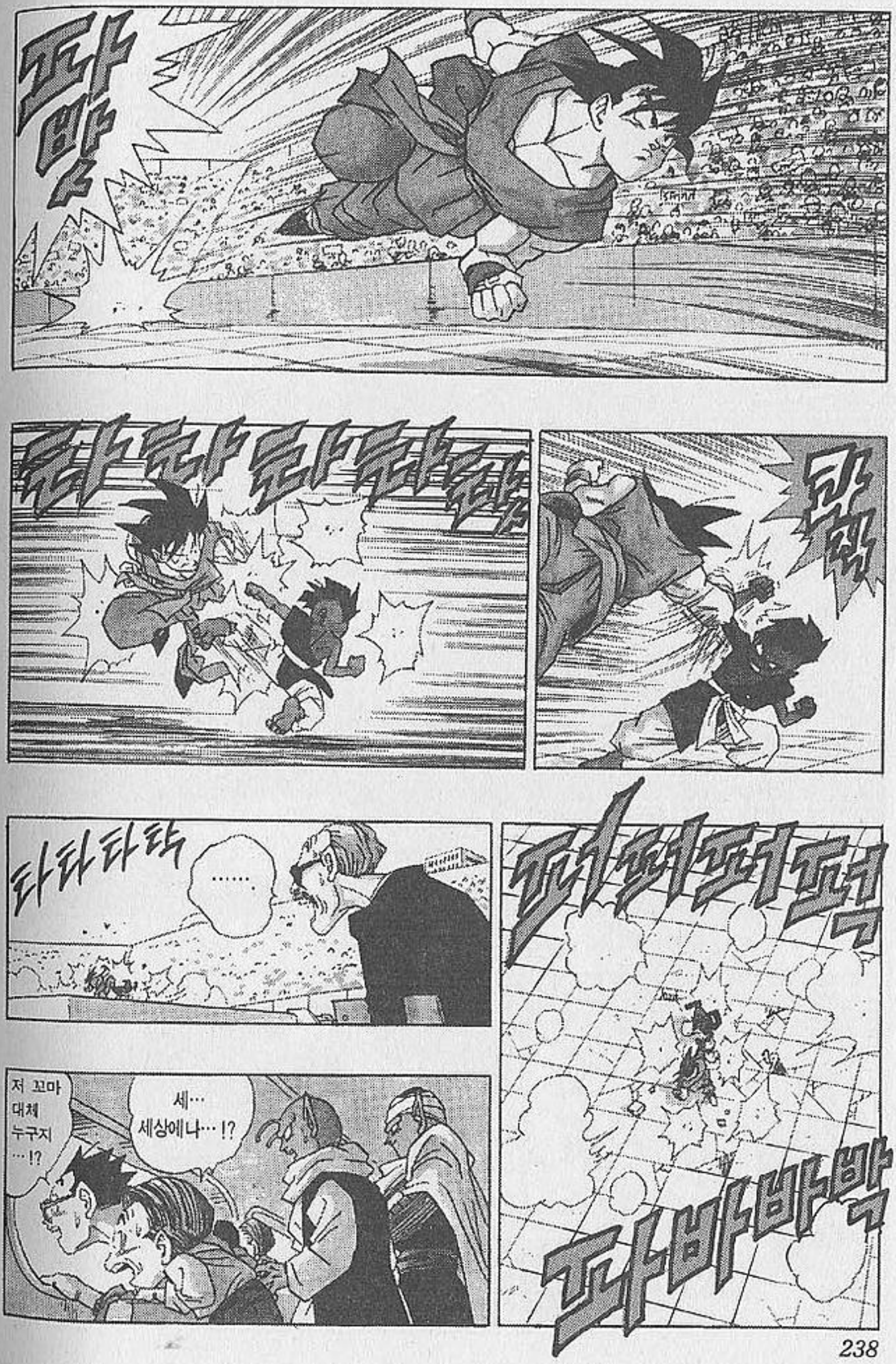
엄마도
…!

아…
아빠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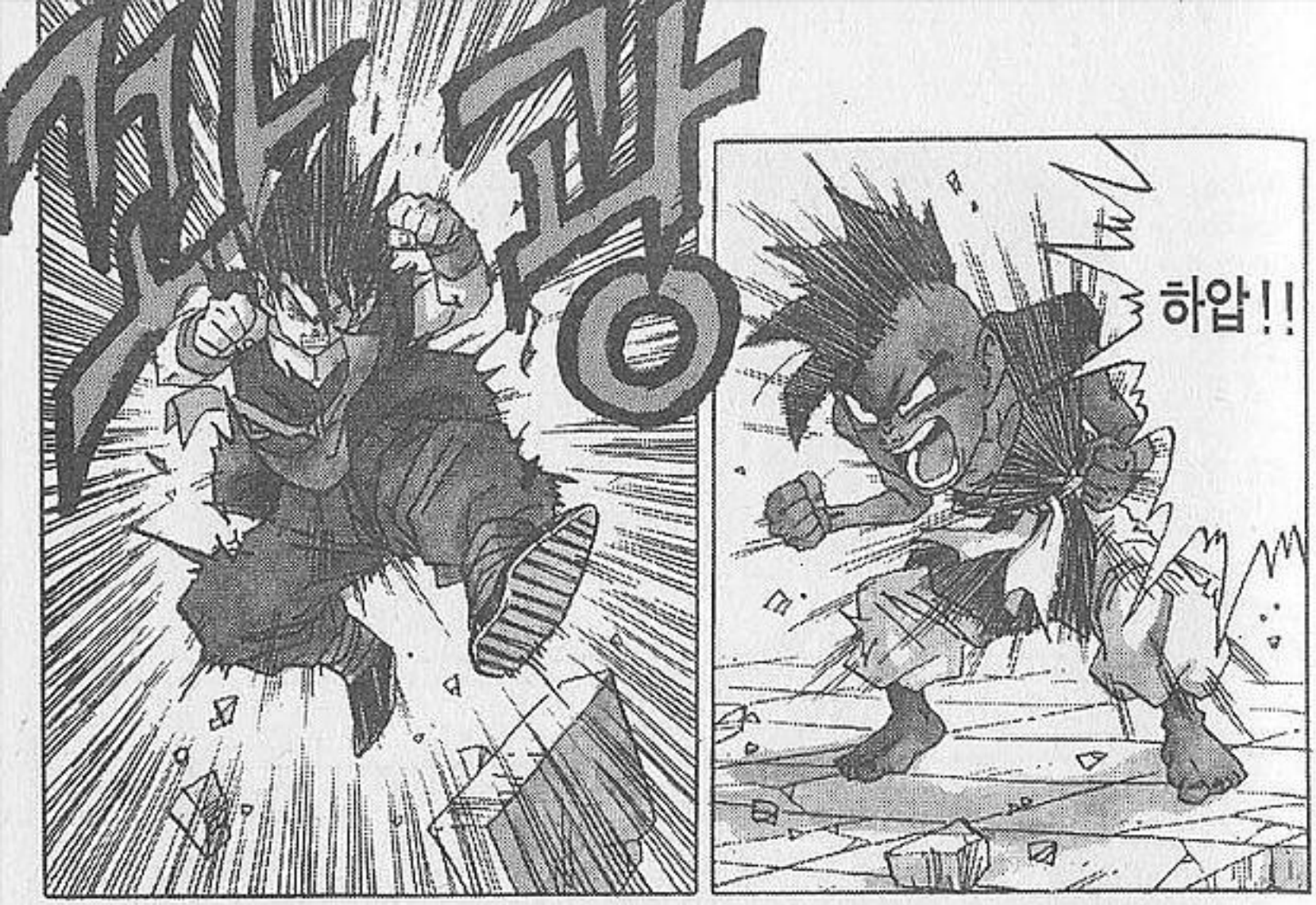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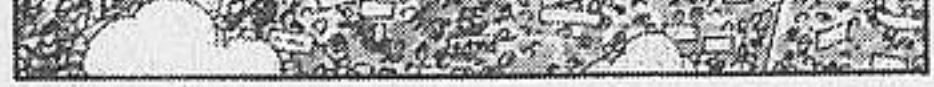
털썩


똥싸개 아냐-!!
꽈엑
으아아 아악 …!!
쥐~잉
슈슈슈슈
윽!!
파밧
파밧



파밧
타타타탁
……
저 꼬마 대체 누구지 …!?
세… 세상에나…!?


하압!!




우와!!

날고
있잖아….
나….

하긴…, 무리도 아니지. 스승도 없을 테고, 그런 걸 생각한 적도 없을 테니….

그렇군. 넌 아직 하늘을 나는 방법도 모르는 구나….

…… !!

턴덕

……

좀 전엔 욕해서 미안하다. 용서해라.

네 실력이 어떤지 알고 싶었던 거야.

엑…?

내가 이제부터 네 집에 함께 살면서 가르쳐주마! 알았지?

예? 하지만….

역시 넌 내 예상대로 정말 대단한 놈이었어.

하지만 파워를 잘 이용 못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싸워보는 것도 이게 처음이지?

우… 우리 집은 가난해서 안 돼요….

그… 그래서 상금이 필요해 무리해가며 온 건데….


앞으로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평화를 지키게 되는 건 바로 너일 테니까!
사양할 필요 없어!


권첸아, 걱정 마!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내가 미스터 사탄한테 받아줄게. 저 녀석은 영웅이란 핑계로 엄청난 돈을 모으고 있거든.
그…그래도…


뭐!?
난 저 애를 수행시키기 위해 쟤네 집에 가서 같이 살다 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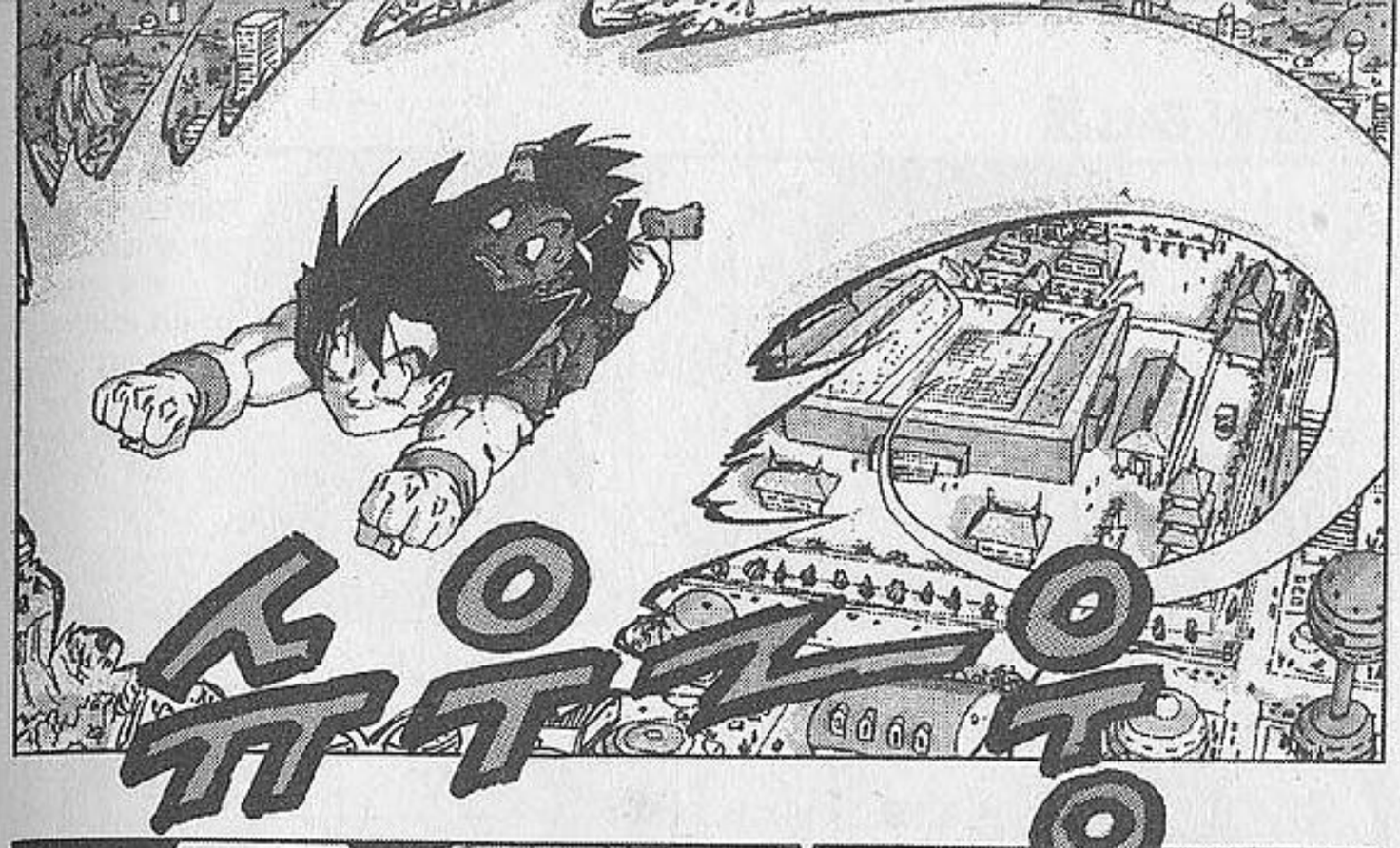

앗…!
휘잉
잠깐 기다리고 있어.


예…!?


예…
예…!
자, 가자! 등에 타.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간혹 놀러올 테니까 잘들 지내고 있어.
저기…, 저…! 이버지…, 대체 무슨…!
안녕!


좋아! 단단히 잡고 있어.
너희 집은 남쪽 섬이라고 했지!


슈우우우우


서…, 설마! 그런….
이게 무슨 일이래!? 수행이라니!?
가…, 갔어….


대체 무슨 일이지…?
머엉…!


나랑 한 번 더 확실한 시합을 해보자!
야, 우부! 네가 수행을 해서 완벽해지면….
아…, 예….
사실 내 진짜 목적은 바로 그거거든!


후후후…. 카카로트, 너의 꿍꿍이속을 알겠다….
부우가 환생한 저 꼬마를 수행시키는 것은 단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냐….


오랜만에 보는군….
저렇게 기뻐하는 오공은….

그럼 —!!

예!!

나 지금 흥분한 게 느껴지니, 우부? 엄청 강한 놈과 만나다니!

예—!

아니, 아니! 허약하게 예가 뭐야!?

더욱 더 강해지는 거야!!

드래곤 볼과 관련된 손오공과
그 친구들의 대활극!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여기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은 분명 일어날 테지만,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극복해내겠죠….
걱정은 필요없어요!
드래곤 볼이 있으니까…!

OK!

ng 안녕!!
고맙습니다!!



THE-END

끝



(드래곤 볼)을 오랜 기간 동안 애독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응원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결심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번 회에 갑작스럽게
발표하게 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는
무리한 부탁을 하여 이 만화를 끝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팬 여러분도 포함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정말 죄송—! 앞으로 한동안 휴식을 취한 다음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단편작품이라도 그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다시 만납시다.
분명 재미(있을 거다)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그 날까지 안녕히. 또 만나요.

1995년 5월 토리야마 아키라

42안녕, 드래곤 월드(끝)

minyou

아이큐 점프 코믹스





저자 ● AKIRA TORIYAMA
번역 ● 아이큐 점프 편집부
발행인 ● 조대웅
발행처 ● (주)서울문화사
등록일 ● 1988년 2월 16일
등록번호 ● 2-484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35
전화 ● (02)7999-179~184(편집) / (02)7999-201~207(판매)
FAX ● (02)798-9991(편집) / (02)749-4079(판매)

인쇄처 ● 청송문화인쇄사

2002년 9월 16일 제1판 인쇄
2002년 9월 26일 제1판 발행

[DRAGON BALL]
© 1984 by BIRD STUDIO
All rights reserved.
First published in Japan in 1984 by SHUEISHA Inc., Tokyo.
Korean translation rights in Republic of Korea arranged by SHUEISHA Inc.
through Shin Won Agency Co. and MSC Japan Inc.

Korean edition, for distribution and sale in Republic of Korea only.
한국 내에서만 배본과 판매가 가능한 한국어판

●인지는 작가와의 협의하에 생략합니다.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상상초월 예측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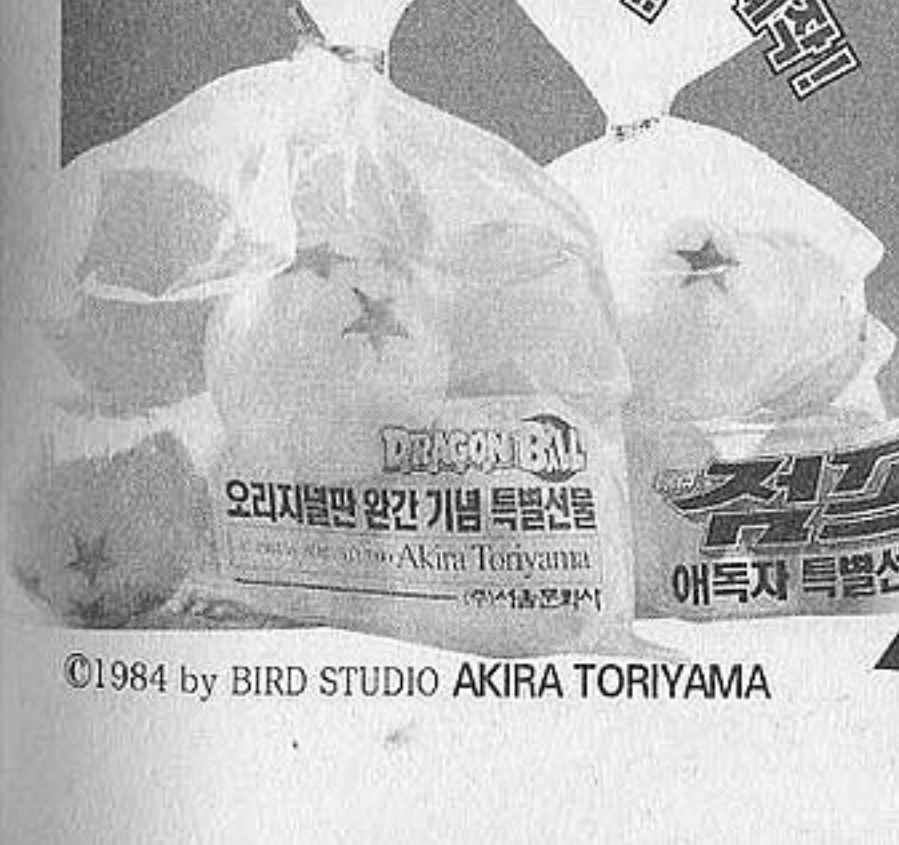


칠성구!

오리지널판 〈드래곤 볼〉 전42권 완간
2,500분 애독자 감싹 특별선물!!

〈드래곤 볼〉 마니아 여러분의 격찬 속에 완벽하게 부활한 〈드래곤 볼〉 오리지널판
완간을 기념 하면서, 아이큐점프 편집부에서는 그동안 보내주신 열혈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멋진 드래곤 볼 「칠성구」 세트를 애독자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에 오직 2,500세트뿐인 드래곤 볼 「칠성구」의 주인이 되어 원하는 세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꽉 잡으세요!

세계 최초, 유일한 오리지널판 드래곤볼 「칠성구」!!



♣응모요령♣

오리지널판 〈드래곤 볼〉 제38권~제42권까지의 표지에
붙어있는 응모권을 잘 오려서 엽서에 부착하여 보내주세요.
한 권당 500분씩, 총2,500분에게
멋지게 포장된 드래곤 볼 「칠성구」를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발표는 앞으로 〈주간 아이큐점프〉에 실릴 예정입니다!!

♣보낼 곳♣

140-737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2-35 (주) 서울문화사
편집3국 아이큐 점프 「칠성구」선물 담당자 앞

♣응모마감♣

제42권은 10월 19일까지

♣당첨자 발표♣

〈주간 아이큐 점프〉 2002년 제 45호.(10월 29일 발매)

오리지널판 〈드래곤 볼〉
초인기 판매중!
전42권



(주)서울문화사

©1984 by BIRD STUDIO AKIRA TORIYAMA

바람의 검심 28권!!

대망의 완결!

아직도 할 말은 남았대!

그 동안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마침내 다시 찾아온 평화. 그러나 그 대가만큼 사람들의 상처는 깊고 세월은 흐른다. 다들 각자의 길로 떠나는 메이지 15년. 그들이 다시 뒤돌아보지 않아도 그늘에 쌓인 눈은 녹을 것인가? 켄신을 향했던 카오루의 사랑도 결실을 맺고 세상은 고요에 휩싸인다. 그래도 시간은 흐르고 또다시 세상은 낯설어지고….

와츠키 노부히로

(주)서울문화사 · 값 3,000원

"꿈을 꿀 수 있는 사랑은 행복하다"

처음 만난 후
사랑하고,
헤어졌다.
다시 만나,
사랑을 확인하고,
결국 또 다시 헤어졌지만…

이치타카와 이오리.
그들은 모든 걸 벗어버리고,
그들의 꿈을 향해
걸어간다!



〈아이즈〉
대망의 완결편
제15권 발행!!

〈아이즈〉 제1~15권! 한꺼번에
다 모아서 보시면 감동, 재미
딱 두 배!!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1997 by
MASAKAZU KATSURA
(주)서울문화사
각권 값3,000원

아이큐 점프 코믹스가 선사하는

감동 스포츠 만화 세편!!

하나!



초특급 골프 가이드

라이징 임팩트

제 1 ~ 15 권

©NAKABA SUZUKI

이것이 바로 골프다!!
젖 먹던 힘을 다해 한타!!
최강 페어가 되기 위해 한타!!

한타, 한타 칠 때마다 신나는
골프세상이 보인다!!
즐겁고 재밌는 골프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골프 교과서—!!

**지칠 줄 모르는 라이징
임팩트의 인기 룽샷—!!**

둘!



복싱!!세계적인 프로골퍼가 되겠쓰~읍~니다!!

그린의 정복자

전 54 권

©TETSUYA CHIBA

우리들의 가슴을 '찡'하게 했던
[열풍 검도불패] · [내일의 죠] ·
[소년이여, 라켓을 잡아라!!]의
거장 치바 테츠야의 또 다른 명작!!

힘들고 어렵지만, 꿈을 향해 꿋꿋하
고 굳세게 프로골퍼의 길을 가고 있
는 소년 무카이!!

**가는 길은 험난하지만
골프 황제의 꿈이 있어
마냥 즐겁기만 하다!!**

셋!



EXCITING BOXING!!

링 위의 히어로

전 19 권

©Tetsu KUSUMOTO

링 위에서 타오르는 뜨거운 청
춘!! 강해지고 싶어! 날 바꾸고
싶어! 만년 왕따 이소노 만텐이
마음을 빼앗긴 스포츠…, 그것은
바로 복싱이었다!
링 위에서 수많은 상대와의 대전
을 통해 만텐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해가는데….

**책장을 펼치는 순간,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파이터의
파워 작렬!!**



각권 값3,000원

(주)서울문화사

절찬리 판매중!!

*한 번 열면
멈출 수 없는 재미가
바로 여기에 !*